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화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1월 1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98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조계종사태 … 또 불심상처

"총무원장 자리가 뭐길래" "화쟁정신 어디로 갔나" "부처님 법으로 조속 해결하자"



◇11일 승려대회 후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이 총무원 청사로 진입하며, 총무원측 스님 몰자들과 몸 싸움을 벌였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3일 총무원 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성북동 길상사에서 속개했다.

"총무원장이 뭐길래, 스님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불교는 뭘 가르치는 종교인가요?"

조계종 선거가 11일 조계종 사태로 곡발해 버린 가운데 또다시 멍든 불심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자들은 스스로 불자를 자처하기가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고 대다수 스님들조차 치미 얼굴들고 외출을 못하겠다며 고개를 떨구는 현실.

4년만에 재연된 조계사 사태는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연일 언론에 내비치는 얼룩진 종단 현실의 권력들을 따라 얼굴을 돌리는 신도들의 눈길에는 야속함과 원망이 가득하다.

부처님법이 외면되는 현실에서, 불상에 분노를 뿌리는 몰지각을 욕할 자신마저 잃어 버렸다는 자조(自嘲), 아직 아물지 못한 상흔(傷痕) 위로 다시 쏟아져 내린 불덩이는 누가 던진 화택(火宅)의 과권인가.

상처받은 불심을 치유할 명약을 찾자는 소리가 높다.

명약은 총무원장이라는 권력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종헌종법도 아니다. 우리가 첫 마음 내어 귀의한 바로 그 법이다. 가려도 가려도 주머니 속 송곳처럼 헤쳐 나오는 그 빛나는 법이야말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바른 길로 끌고가는 부처님의 채찍이다. 다시 또 다시 귀의해야 한다. 탐심은 솟구치고 화쟁심은 까져가도, 수행은 고달프고 종권(宗權)은 감미로울 지라도 후려치는 법의 채찍 앞에서는 번짝 정신이 들 것이므로.

최근의 조계사 사태를 한심한 종권놀음으로 치부하고 자학하기 보다는 한 순간 놓쳐버린 초발심을 다시 추스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듯 부끄러운 현실은 더 튼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반등(反騰)의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자대중은 조계사 사태와 관련된 모든 스님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 이관도 사관도 수행의 한 갈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초발심의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자신을 곱어보는 여유를 가질 것을. 낙엽지듯 팔어져 멍든 사부대중의 가슴에 한한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최보살이 찬불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5년전 시를 쓰면서부터. "불자들의 신심함양을 위해서는 노래가 가장 수월하다고 판단, 찬불가 보급운동에 뛰어들었어요." 찬불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보살은 92년 김해 관음포교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찬불가 알리기에 나섰다. 찬불가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전무했던 시절, 최보살은 복사한 악보를 한아름 안고 법회장을 찾아갔지만 따뜻하게 반겨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심지어 잠을 자면서까지 노래를 한다. 경북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최대혜심(53)보살의 얘기다.

최보살은 6년 전부터 김해와 밀양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찬불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월 초하루 밀양 보문사에서 신도들에게 찬불가를 가르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더성공양앙 보살'

다. '신성한 법회장에서 부슨 노래냐' 며 외면당하는 일도 적지 않아 짓밟힌 악보를 수거하는 일도 있었다. 그럴수록 최보살의 집념은 굳어졌다. '짓밟힌 악보를 즐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찬불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최보살은 강조한다.

활동의 폭이 넓어지자 합창단을 맡아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그러나 승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일. 지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전문 음악인도 아니고 합창단 지도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최보살은 '합창을 위해 내 몸을 바치겠다' 고 발원하고 음악학원에 입학, 음악학도와 지도자의 두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불교음악에 대한 눈을 뜰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칠 수 있는 찬불가가 미흡했던 것이다. 그후 최보살은 합창단지도를 그만두고 찬불가 제작에 몰두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끝에 지난 9월 찬불가와 시가 담긴 〈산사의 밤〉(청명음반)이라는 테일을 출시했다.

"이제는 교도소, 군부대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성공양을 해주고 싶습니다". (0527)356-2220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총무원장선거 18일로 연기

중앙선관위 발표…장소는 추후결정

12일로 예정됐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18일로 연기됐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오후 2시30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관리시행규칙 제42조 1항과 3항에 의거하여 선거일만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밤 10시 5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로 선거를 연기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선관위위원장 현해스님이 10일 사퇴한데 따라 덕운스님(총무원문화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오후 1시부터 선거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사무원들이 조계사 법당에 도착했으나 정화개혁회의 스님들의 저지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간에 30여분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스님과 종무원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예정된 선거시간인 오후 2시경에는 종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인단 70여명이 조계사에 도착했으나 선거가 연기돼 돌아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업무를 진행하던 종회사무처 사무실이 정화개혁회의에 접수된데 따라 조계사 인근인 관훈동 백상빌딩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사태 관련기사 2·3·4·23면

조계종 정화개혁회의 발족

상임위원장에 월탄스님…11일 총무원 접수

조계종 정화개혁회의가 발족됐다.

11일 오후2시 조계사 마당에서 스님 4백여명과 신도 등 1천5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 원로 중진스님들과 대회참가 스님들의 인준으로 발족된 정화개혁회의는 공동의장에 벽암 정대 성파스님을 추대했으며 상임위원장에 월탄스님을 임명했다. 원로의원 비룡, 석주, 창하, 지종스님과 현호, 도성, 설조, 월파, 법타, 혜총, 진관, 혜인, 정우, 성문, 진묵스님 등이 참가해 개회사, 경과보고, 발원문 낭독, 대회사, 월주스님 3선강행 규탄 등으로 진행된 승려대회는 정화개혁회의를 발족시키고 4시40분부터 총무원청사 접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화개혁회의 소속스님들과 청사진입을 막는 신도, 사설경호원, 총무원스님들간에 충돌이 벌어져 조계사와 종무원청사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화개혁회의 소속스님들은 밧줄을 이용 창사 1층에 설치된 쇠창살을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했으나 총무원측 스님들은 분말소화기와 소방호스를 이용 저지했다. 2시간 여동안 공방이 계속되다가 오후 5시40분쯤 정화개혁회의 소속 스님들이 청사를 접수했다. 일부 스님들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승려대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총무원 청사 앞에서 총무원측이 동원한 신도 3백여명이 개혁종현수호 정진 대법회를 가졌다. 총무원측은 승려대회 후 청사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설경호 용역업체에 의뢰한 경호원 1백5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다.

임연태 기자

종회, 개혁회의 해산 요구

의장에 법등스님…각 분과위원장도 선출

10일 개회에 이어 13일 속개된 제135회 중앙종회는 정화개혁회의소속 스님들의 저지로 회의를 갖지 못하고 성북동 길상사에서 속개했다. 종회는 △1998년 11월 11일부터 폭력적으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폭행 기물파손 절취행위를 하는 등, 종헌 종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인 소위 정화개혁회의는 즉각 해산하고 청사를 반환하라 △종정예하의 교시는 중앙종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또 원로와 본사주지들과 종단을 인정 시킬 것이며 "종단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종헌 종법 질서가 수호되지 않는다면 종회는 즉각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할 것이다"는 결의도 했다.

종회는 '원로회의법'을 개정했다. 제8조 '회의' 조항에 5항을 신설, "원로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못박고 부칙 제2조에도 2항을 신설해 "제8조 5항으로 신설된 조항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했다.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는 10일 개원해 종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도 구성했다.

종회는 법등 정대 일면스님이 입후보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 법등스님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2차투표까지 이어진 선거에서 법등스님은 44표, 정대스님은 37표를 각각 얻었다. 종회는 총무분과 영담, 재정부과 지명, 호법분과 대원, 법제분과 정휴, 교육분과 지하, 사회분과 여연, 포교분과 지홍스님 등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장 인터뷰 4면>

임연태 기자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동화로 만나는 푸른 자연의 친구들

창비아동문고 166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생태 동화집/정수영 그림
모든 풀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아기똥풀, 씀바귀, 괭이풀……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풀꽃들과 무엇을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값 6,000원

창비아동문고 161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이상권 생태 동화집/장양선 그림
물귀신 소동을 일으킨 수달, 고양이 쥐를 먹고 자란 다람쥐,
청동오리와 결혼한 집오리 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우리 나라
야생 동물 이야기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값 6,000원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과학의 달 추천도서
● 중앙일보 선정 '98 좋은 책 100선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완역
창비아동문고 164 · 165
삐노끼오의 모험 1, 2
까를로 꼴로디 지음/이현경 옮김



말썽꾸러기 삐노끼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땔감이 될 뻔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다 당나귀로 변하고, 상어 뱃속에 갇히기까지 하는 삐노끼오.
우리 친구 삐노끼오가 들려주는 모험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세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권장도서(아동부문)
값 각권 6,000원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사 설

"화쟁정신으로 풀자"

1998년 11월 11일은 한국 불교사에 또다시 종단분규 사태라는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의 귀감이자 불자들의 귀의처인 스님들이 수행의 상징인 승복을 입은채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니 불교계로서는 이보다 더 큰 수치와 망신이 있을 수가 없다. 불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전근대적인 난투극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불자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조계종 총무원장이란 자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종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번 사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3선공방 다툼과 종단내부 갈등으로 일어났다. 총무원건물 점거사태는 총무원장 입후보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되어,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서글픈 일이다. 이번 사태가 지난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선 후 종단분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총무원장의 3선 여부는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법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후보자 적격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종회의원과 선거인단이 선출한 총무원장의 인준권은 원로회의에서 가지고 있으니 각 후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원로회의, 중앙종회, 본사연합회 등 종단의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단체에서 충분한 대화를 유도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일을 해 나간다면 풀리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산중에서 부처님법을 갈고 닦으며 수행에 전념하는 수좌들과 천만 불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은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가 유발한 데 대해 네탓만을 하기보다 연기론적인 인과법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폭력이나 강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종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가 새로 선출된 종회의원에 의하여 출범하였고, 속세의 상원격인 원로회의가 살아있다. 이러한 종단의 기구들과 본사주지 등 교계의 지도자들이 부처님의 인과법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여법하게 오늘의 사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13일 종회해산권을 쥔 원로회의 관련법을 급하게 개정하고 원로회의는 원로회의대로 회동을 할 계획으로 있어 원로회의와 종회의 관계도 그리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종단의 현 상황을 안정으로 돌려놓을 공식기관들마저 다른 길을 간다면 조계종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종단의 원로중진,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등의 지도자 계층이 '종단화합'이란 대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

IMF체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보다 많은 중생을 부처님법으로 귀의시키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의 역할이 아닌가.

새 세기인 21세기가 눈앞에 도래했는데 불교계에서 이 무슨 추태인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사부대중이 화쟁적이고 대승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더 이상 파국을 막는 지혜를 짜내기를 바란다.

꼬리무는 성명전

월주스님 "불법폭력사태 엄중 단죄"
개혁회의 "종단 제도개혁 제2 정화"
지선스님 "3선 반대 · 개혁회의 인정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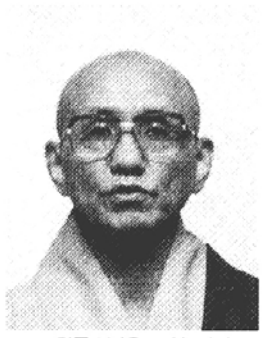
11일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을 접수한 후부터 정화개혁회의와 총무원장 후보 월주·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가 각각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성명을 내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출범한 정화개혁회의(상임위원장 월탄)는 11일 총무원 접수 직후인 오후 6시30분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화개혁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화개혁회의의 조속한 구성으로 종단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개혁과 해종세력에 대한 단호한 경책을 통해 제2 정화불사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월주스님 선거대책본부도 오후 8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정교시 봉행을 빌미로 폭력적인 방법을 써 종권을 탈취하려는 정화개혁회의의 불법적 폭력사태는 엄중하게 단죄하고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도 같은 시각 "3선반대의 종정교시는 봉행돼야 하되 현 종단체제와 종헌종법에 위배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자의적으로 구성된 '정화개혁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주스님은 11일 저녁 8시 조계사 인근 선거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정화개혁회의가 기자회견을 마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글'과 '전 종도들에게 드리는 글' '종정예하를 폭력배로 막으려한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향후 선거일정은 원천무효라 주장했다.

12일 선거가 무산되자 정화개혁회의 월주스님선거대책본부,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간의 공방이 잇따랐다.

월주스님선거대책본부는 오후 5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의 불법점거는 원상복구될 것이며 중앙종회, 본사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의 총의를 모아 종헌종법수호의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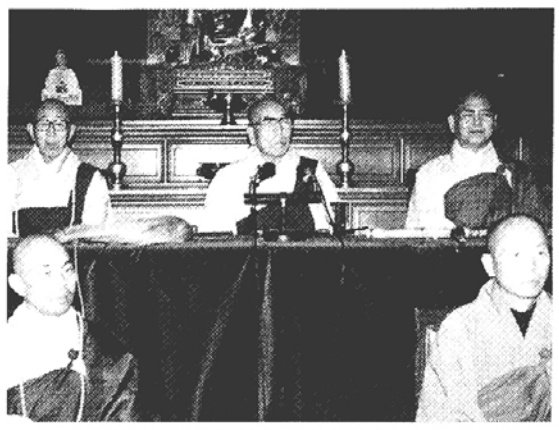


◇월탄스님은 11일 저녁6시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도 선거를 통한 총무원장 선출과 월주스님 3선반대 및 즉각 사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화개혁회의는 13일 중앙종회가 원로회의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 "원로회의법 개정은 종헌 제 43조를 무시한 것"이라 공박했다. 정화개혁회의는 또 이날 종회가 2건의 결의문을 낸 것 등을 비난하며 해종행위라 규탄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두번째줄가운데)이 12일 상경 총무원 청사 1층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월하스님 좌측은 원로의원 지종스님, 우측은 정화개혁회의상임의장 월탄스님, 이랫줄 우측은 송광사부방장 현호스님 좌측은 제주 약천사 주지 혜인스님.

"개혁회의 지지-3선 부당"

월하종정 12일 총무원서 담화문 발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12일 정화개혁회의가 접수한 총무원 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아침 항공기편으로 통도사에서 상경한 월하스님은 12시 30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사법의 혹운이 정법의 일광을 가리니 청중이 불어 다시 대중에게 온기를 북돋움이라. 작금의 대사는 청정한 승풍을 진작하고 승가의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의분의 처사였다. 이로 말미암아 전국의 불자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드리며 목하 전 종도들은 금일부터 여래의 사도로서 미혹한 시시비비를 떠나 청정교단을 건설하는데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월하스님은 또 "지혜의 연을 맺으면 선의 보를 받고 탐착의 우를 범하면 응분의 과를 받는 것이 불법의 지고한 이치이니 스스로 봉행하라. 사부대중은 이로써 일심으로 불조의 혜명을 봉대하여 제2의 정화불사에 수희 동참하길 바라노라"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송광사 부방장 현호스님에게 파사현정을 의미하는 장군죽비를 봉정받은 월하스님은 다시 죽비를 정화개혁회의 상임의장 월탄스님에게 전했다. 월하스님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정화개혁회의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니 내뜻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본래의 부처님 뜻을 잘 받들고 종헌종법대로 살면 된다"며 "월주스님의 3선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월하스님의 총무원 청사 방문과 담화문 발표는 정화개혁회의의 행보에 적잖은 힘을 실어 주었다는 평이다.

12일 정오쯤에 조계사에 도착한 월하스님은 조계사 법당에 들러 부처님전에 3배를 올린후 월탄스님등 정화개혁회의 중진 스님들로부터 3배를 받았다.

임연태 기자

"폭력은 안된다…종단안정 우선"

'조계종사태'를 보는 각 단체 입장

11일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발족, 총무원청사 접수 등으로 급박하게 흐르고 있는 종단현실을 바라보는 교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번 사태 해결의 가장 비중있는 열쇠로 주목되고 있는 원로회의는 아직 큰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오후2시 서울에서 월하스님이 초청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이 발표된 상태다.

12일 오후3시 긴급 소집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법장 수덕사)은 명칭을 본사주지연합회로 바꾸고 회장단을 유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연합회는 법장, 혜광, 성덕, 밀운, 중원스님을 대표단으로 구성,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정화개혁회의 소속 종진스님, 지선스님, 중앙종회의장단 등을 만나 종단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들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를 토대로 종단의 수습과 화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본사주지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단현실과 관련 심한 우려를 표하며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승가대총동문회와 총학생회는 13일 정화불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무원장 임기를 5년단임으로 종헌을 개정하라 △승려노후복지 대책을 조속히 입법 실천하라 △종단의 교육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13일 '현 조계종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폭력은 안된다"고 강조하며 총무원측의 신도 및 경비용역업체 직원 동원을 비판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원로회의나 중앙종회가 원만하게 상황을 수습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전국신도회를 비롯한 재가 신도단체들은 조계종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한 신도단체장은 "침묵도 웅변이 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종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승가의 노력을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원로회의 14일 서울서 열려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정 월하스님 초청형식으로 14일 서울 구룡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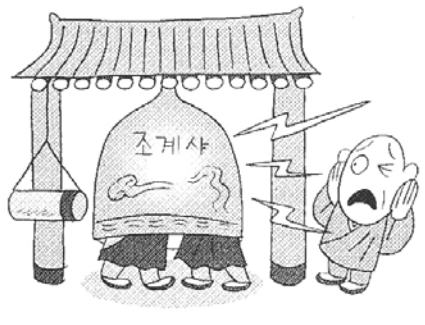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종단의 현상황에 대한 원로의원들의 입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원로의원 스님들은 8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의장 혜암스님과 간담회를 갖고 종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로스님들은 종단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헌종법대로 선거가 치러진 뒤 당선자 인준 문제를 원로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과 함께 승려대회는 평화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간담회에는 혜암스님을 비롯 법전, 일타, 탄성, 종산, 도원, 녹원, 청하스님등 8명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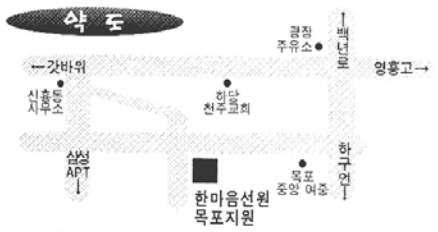
이 소리가 아닌데…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점안 · 개원 대법회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 사부대중은
대행큰스님의 가르침을
세세생생 이어나가고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목포지원 점안 · 개원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행큰스님을 모신 개원법회에 많은 동참 바라오며
이 법연으로 고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점안 · 개원법회 ●
■ 일 시 : 1998.11.22 (음 10.4)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목포 실내 체육관
■ 주 최 :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법회안내
정기법회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초하루 · 보름법회 : 오전 10시 30분
법형제 법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회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학생회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금요법회 : 기초 교리
· 사시 예불 : 매일 오전 10시 30분
· 여자불자님 : 각 신행회를 구성, 정진하고 있으니 종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약도


· 주소 : HanMaUm Seon Center Mok-po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 전화 : (0631)284-1771 / 팩스 : (0631)284-1770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사부대중 삼배

갈등국면 확산…장기화 우려

조계종 12일 선거 무산이후

선관위 '18일 실시' 개혁회의 '무효' 주장

원로-종회-본사주지 '화합의 길' 찾아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18일로 연기했으나 정화개혁회의는 이날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 주장하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42조 1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연기하여야 한다"와 3항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때는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선거일만을 연기하여 추후 공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후보등록과 선거활동 등은 모두 유효하며 중앙선관위가 일정을 정하는데 따라 일정을 바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2일 선거 유보공고를 냈던 정화개혁회의는 초법적 상황에서 선거는 치러질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18일 선거도 사전에 봉쇄할 계획이다. 13일 중앙종회를 저지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종회를 인정 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였다.

월주스님 진영은 선거일정 조정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18일 선거에 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월탄스님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한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선거를 봉쇄하겠다는 방침이고 지선스님측도 월주스님의 3선출마를 부정하고 있어 선관위의 구상대로 선거가 치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거기다 13일부터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사이의 갈등 기류가 형성된 것도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정 월하스님이 14일 원로회의 스님들을 초청 원로회의를 열고 종회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설이 떠오르자 13일 길상사에서 속개된 중앙종회는 원로회의법을 고쳐 종회해산권 요건을 강화했다. 14일 원로회의가 소집되고 종회해산이 논의될 경우 의장이 아닌 종정스님이 소집한 원로회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또 다른 논쟁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결국 월주스님의 총무원측과 월탄스님의 정화개혁회의, 종정을 중심으로하는 원로회의와 종헌종법 질서 수호를 내세우는 중앙종회의 다각 대립 양상이 형성되고 있어 선거국면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여전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종단의 안정을 위해 선거를 둘러싸고 얽힌 실타래를 하루 빨리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3선 공방'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며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입은 깊은 상처를 치유키 위해서는 '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 등 공식기구들이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더 이상의 '선거잡음'을 막는 지름길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한 공식기구간의 특별한 조치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게 지배적인 분석.

무엇보다 후보자들이 화쟁정신에 입각해 한발씩 양보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서로의 종책을 존중하고 불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선거풍토 조성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연일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종단의 파상(破傷)이 가져다주는 업보가 결국 누구의 것인지를 깊히 인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12일 선거업무를 위해 조계사 법당으로 향하던 선거사무원을 정화개혁회의 스님들이 저지해 선거가 연기됐다.



◇승려대회는 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불교 고유의 의견 수렴 방식이다. 사진은 11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비상사태 해결책 찾는 대중공사

전국승려대회의 의미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교시에 따라 11일 조계사에서 소집된 전국승려대회는 지난 94년 4.10 승려대회에 이어 4년 7개월만에 개최된 것.

승려대회는 종헌 및 종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처님 재세시부터 승단내 대소사의 사안에 관하여 전체 대중스님들이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만장일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내는 '산중공사' 또는 '대중공사'로 불리우는 불교고유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유래한 것.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회에서의 결정은 초종헌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일종의 혁명이다(실패하면 구테타).

사상 최대의 승려대회는 52년 11월 불국사에서 비구스님들이 중심이 돼 개최한 일명 정화불사(태고종에서는 '법난' 규정). 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발표 이후 비구스님들이 55년까지 3차에 걸쳐 전국비구승대회를 개최했다. 광복 이후의 전국승려대회를 정리한다.

▲1945년 9월 22~23일 전국승려대회=사찰령 및 태고사법·31본말사법 폐지, 조선불교 교헌 제정,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 각도 교무원 설치, 교구제(13교구) 실시 등 결의, 교정 박한영, 중앙총무원장 김법린스님.

▲1946년 1월 전국승려대회=신탁통치에 반대.

▲1952년 11월 승려대회=비구스님들의 교단쇄신 결의(일명 정화불사).

▲1954년 10월 6일 비구승대회=일본적 승려정신 일소를 결의.

▲1954년 12월 1일 전국비구승대회=종헌 개정.

▲1955년 8월 12일 전국승려대회=종정 송만암스님을 수반으로 하는 총무원 및 산하 각기관 일체 인사 해임, 중앙종회 구성, 종헌 제정, 새 종정 설석우, 총무원장 이청담스님 추대.

▲1983년 9월 5일 전국승려대회=조계사에서 불교개혁과 정법수호운동 다짐, 비상종단운영회의 설치 결의.

▲1986년 9월 7일 전국승려대회=해인사에 2천여명 참가, 불교 제관계법 철폐 및 전면 개정, 10.27법난 해명 촉구.

▲1991년 7월과 9월, 종정자리를 둘러싸고 해인사와 통도사에서 각각 승려대회 개최, 월산스님 종정추대파는 통도사 승려대회 후 서울 강남에 총무원을 개설, 종단이 양분됐다.

▲1994년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의장 해암)=조계사에 스님 1천5백여명, 신도 1천여명 참가, 총무원 점거,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월하)' 출범.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관련 일지

9월15일: 설조스님 출마선언 기자회견

9월23일: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 출범

9월29일: '송월주 총무원장 3선 출마반대를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 발족(종회의원, 승·재가단체 14개 단체 참여)

10월2일: 연대회의, 월주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장 성타스님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0월7일: 연대회의, 월주총무원장 면담 신청공문 총무원에 접수(8일~12일 면담 요청)

10월8일: 공선협, 공정선거촉구 성명 발표

10월10일: 공선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월주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위원장 성타 스님에 대한 고발장 접수

10월12일: 연대회의 의장단, 월주총무원장 면담요청차 총무원 방문

10월13일: △공선협 기자회견

10월14일: △월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 △연대회의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추대위원회'의 불법성과 자진해체를 요구하는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10월15일: 월주스님 후보추대위, '3선불가론'에 대한 반박문 배포

10월19일: 연백문도회 백양사에서 총회 개최.

10월21일: 연대회의, 불교중흥과 종단안정을 위한 정진법회 봉행

10월22일: △총무원장 후보 지선 월탄 설조스님, 월주총무원장의 3선 부당성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10월24일: 28명의 승려 총무원 청사 점거

10월26일: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위원회,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 월탄스님 선거대책본부 10·24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총무원, 10·24사태에 대한 입장발표 △중앙종회 직능직의원 선거

10월27일: △1차 종정 교시 발표

10월28일: △'종정예하 교시봉행위원회 발족(준비위원장 일타·성수스님) △지선스님 총무원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

10월29일: △월주스님 10·24사태에 대한 담화문 발표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거

10월30일: 연대회의, 오체투지 참회정진법회

11월2일: △월주·지선·월탄스님 후보 등록 △연대회의, 월주스님 후보등록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영우회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입장표명 △연백문도회, '종정예하 교시 봉행 정진대법회'에 대한 입장표명

11월3일: △월탄스님 후보 출마 기자회견 △월주스님 후보 출마 기자회견

11월4일: △'종정예하 교시 봉행 정진법회' 개최 △석림동문회 성명발표

11월5일: △총무원장 후보초청 합동종책토론회(한국불교언론인회, 한국불교기자협회 주최)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 특별기자회견

11월6일: △월하 종정, 통도사서 원로회의 간담회 제2차 교시 내림, △월주 후보 선거대책본부, 종정교시에 대한 입장표명 △월탄스님 선거대책본부, 5일 지선스님 특별기자회견과 관련 입장표명

11월8일: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 현 선거국면과 관련 입장표명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문 채택 △월주스님 후보 선거대책본부, 승려대회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11월9일: △연대회의, 11월9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과와 월주 총무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발표 △월탄스님, 월주총무원장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월주스님 후보 선거대책본부, 현 선거국면에 대한 특별기자회견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문채택

11월10일: 제12대 중앙종회 개원

11월11일: △조계종 전국승려대회 개최, 전국승려대회준비위원회 총무원 청사 점거, 정화개혁위원회 발족 △총무원, 총무원 청사 점거 폭력사태에 대한 성명발표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 현 국면에 대한 입장표명

11월12일: △월하 종정 담화문 발표 및 기자회견 △선관위 선거 일시 유보 발표

11월13일: 중앙종회 원로회의법개정, 결의문 발표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목어 스님들께 ②

총무원장 3선공방이 결국은 망신살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어느편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언론은 일제히 11월 11일 조계종 사태를 '스님들과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는 승려대회를 열었고, 뒤에서는 총무원 진입을 막으려는 보살들이 노래와 염불로 맞섰고, 용역경비대도 동원됐습니다. 급기야 보기 민망한 장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역왕전 지장보살님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떠셨겠습니까. 땅바닥에는 양측에서 달았던 리본 '봉행 전국승려대회' '개혁 종헌종법준수'가 나딩굴었고, 신도들이 손목에 차고있던 단주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어찌 리본과 단주뿐이겠습니까. 무엇이 또 땅에 떨어졌느냐고 물으신다면 답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는 불자들도 있었습니다. 스님들을 향해 항의하는 보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스님은 신도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불교 안믿으면 될 것 아냐".

TV를 보는 불자들도 울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TV로 본 한 어린이가 영문도 모른채 가까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줄다리기 안해?"

그 스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스님들께선 그 어린이 가슴에 새겨진 '줄다리기'를 어떻게 씻어내시겠습니까.

평소 스님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인이 법문하네" 그렇습니다. 속인들이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요. 국민의 스승, 정신적 교사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1월11일 조계사 마당에는 로이터통신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의 치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보도됐을 겁니다. 큰길 전광판에도 큰 제목으로 떴습니다.

이제 더이상 망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빨리 수습해 주십시요. 법문할 때 마다 설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태해결의 약으로 써주십시요.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조계종의 선거를 개선해 주십시요. 성명서, 기자회견, 거액의 선거비용이 왜 필요합니까.

임기가 끝나면 새 총무원장이 나왔나보다 할 정도로 조용히 진행돼야만 오늘의 망신이 제값을 치루게 됩니다. 조계사 부처님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일정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5일간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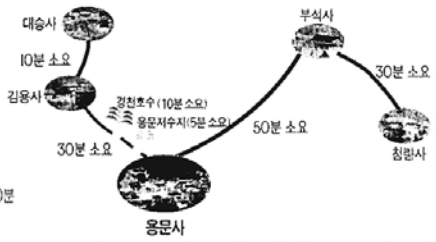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삼사순례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치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월주 총무원장측에서는 11일 개혁종헌수호 정진대법회를 열고 승려대회 철회를 주장했다.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총무원 청사 2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집 버리고 청정승가 거듭나라"
"혼탁한 종단현실 共業…부끄러울뿐"

PC통신에 올라온 불자들의 분노…한숨…당부

11일 조계사 총무원을 사이에 놓고 벌어진 스님들 간의 폭력을 지켜본 사부대중들은 총무원측이든 정화개혁회의측이든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게시판을 통해 불자들은 분노와 한숨을 그대로 토로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코메디' '전쟁터'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한 스님은 '죄송할 따름'이라며 오늘의 종단 모습을 한탄했다. 또 한 스님은 승단화합안이라는 장문의 글을 싣기도 했다. '아집을 버리고 청정승가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는 바램도 있다. 불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4년전 개혁을 외치던 스님들이 오늘의 그들인데, 종단의 민주화와 올바른 승풍의 진작을 외치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만과 아집을 버려야할 청정승가에서 어찌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는지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울(PSH0121)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이 모든 혼탁과 비방은 출가와 재가를 앞세울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공업 아닙니까? 부끄럽고 미움이 아플 뿐입니다. 총지(BANGHA)

○…저들이 저런다고 실망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자. 부처님의 제자행세를 하며 불교를 해하는 무리가 저들이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법의를 몰수해야 한다. 최윤규(CHOI1214)

○…수치를 아는 이가 그리울 뿐입니다. 법리해석이니, 소급적용이니 모두 말장난일뿐. 경과 율로써 출가자를 평가하십시오. 부합치 않으면 따르지 마세요. 금강경에서 "이 혼탁한 종단에 기대를 구하지 말고, 오로지 삼장의 가치를 현실화해 구해야 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원창(DAMMA)

○…삭발을 했다고 한들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확인한 진실이다. 그러나 불법의 맥은 살아있다. 원로 큰스님들이 올바로 판단해 정법을 밝혀 주시옵소서. 조영훈(생명이)

○… '자명등 법명등' '귀의승가'의 원칙으로 승단을 이끈 부처님을 본받아야 할 때다. 각자 진리를 찾아서 법답게 사는 '자명등 법명등'은 수행의 원리이고, 승단과 선지식을 좇는 '귀의승가'는 불교 운용의 원리이다. 이선화(LEE1499)

○…조계종이 없어져도 그리 상관할 바 아니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민경석(다키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모든 공부 헛것이다. 속세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출가한 스님들이 무엇이 아쉬워 다시 쓰잘데기없는 직책에 집착하는지 안타깝다. 권희순(khs1515)

○…권력을 차지하려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폭력조직을 거느리고 염불은 뒷전인채 이권에 눈멀어 주먹다짐으로 불법을 왜곡하고 있으니 큰일은 큰일이다. 전병택(금화종지)

○…차라리 뜨거운 불판에 앉더라도 자기 분에 맞지 않는 직책을 삼가는 그런 스님을 뵙고 싶다. 송형근(adamant0)

종회 선출→종정임명→경선 '변화'

역대 총무원장선거 어떻게 치렀나

66년부터 문중간 주도권 다툼

1962년 제정된 조계종 최초 종헌은 총무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해 종정이 임명토록 했다. 종정이 종단직원 및 주지임면권, 재산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증정의 권한이 더 컸다. 총무원장은 종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없었다. 본산 주지 등으로 구성된 50명의 중앙종회에서 초대종정에 효봉스님, 초대 총무원장에 임석진스님을 선임했다.

70년대초까지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였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추대의 형식이었으며, 이같은 관행은 73년 서옹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입명제로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조계종은 종정 및 총무원장 선출을 놓고 종단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사찰 또는 문중별로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효봉스님 입적(66. 10. 15) 이후 66년 종정 추대과정에서 파벌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2대 종정 청담스님과 당시 총무원장 경산스님(재임 66. 4~67. 7. 경산스님은 73. 1~75. 9에도 총무원장을 역임했다)과의 불화가 표출됐으며, 결국 청담스님과 경산스님이 모두 사퇴했다. 내분으로 종단지도부가 사퇴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때부터 종정과 총무원장간의 권한 문제로 분쟁이 본격화했으며, 경산스님에 이어 67년 7월 총무원장에 취임한 영암스님, 월산스님도 임기 도중에 물러났다. 69년 1월, 급기야는 청담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아 종권을 행사한다.

서옹스님과 고암스님이 종정을 역임한 시기(73. 8~81.1)는 종단분규가 계속되었으나, 종정이 총무원장을 입명해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 이때의 총무원장은 서암스님, 영암스님, 영해스님, 자운스님, 혜정스님, 석주스님이었다.(10대~15대)

80년 10·27 법난으로 기능이 정지된 조계종은 정화중흥회의를 구성해 종무행정을 이어갔으며, 탄성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으며, 다시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은 10·27 법난 이후 들어선 정화중흥회의 때부터다. 중흥회의는 81년 1월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고 종정의 임기를 10년으로 하는 등 종단운영의 새 틀을 짰다. 또 6대 종정에 성철스님을 추대하고, 18대 총무원장에 성수스님을 선출했다.

84년 해인사 승려대회에서는 녹원스님을 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86년까지 총무원장을 종회에서 선출했지만, 경선의 방법이 아니고 이때도 사실상 추대하는 형식이었다.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그대로 였으나 경선이 이뤄지기는 90년 26대 총무원장 선출 때가 처음이었으며, 지금까지 경선하고 있다. 이때 의현스님과 월탄스님이 출마했으며, 이 선거에서 의현스님이 당선됐다.

의현스님은 통합종단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마쳤으며, 연임한 첫 총무원장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오점은 아니었다. 의현스님 반대측 스님들은 9월 통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어 벽암스님을 총무원장에 추대했다. 이로써 또다시 강북-강남의 총무원 체제로 갈라졌다. 90년대 나타난 강북-강남 총무원 체제는 서로 자기 문중의 어른을 종정으로 추대하려는 의중에서 나타난 갈등이었다.

94년 3월 의현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나섰으나 반대에 부딪쳤다. 4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고, 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11월 21일 종회는 총무원장에 월주스님을 2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때 월주스님과 월탄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근소한 표차로 월주스님이 당선되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언론 조계종사태 보도경쟁

'3백여명 난투' '폭력으로 얼룩진 불심' 등 표현

11일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출범 후인 12일 일간신문에는 일제히 '조계종 또 폭력사태' '3백여명 뒤엉켜 난투' '폭력으로 얼룩진 불심' 등의 제목을 달아 사진과 함께 사회면의 머리에 올렸다. 또 사설을 통해서 "사회의 정신적 교사로서 참 종교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겨레는 13일자 그림판에서 총무원청사 앞마당에서 부처님을 가운데 두고 월주스님과 월탄스님이 힘겨루는 장면 사이로 각목을 들고 마스크를 쓴 스님들의 모습, 멀리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지선스님의 모습을 풍자한 만평으로 현 조계종 사태의 첨예한 대립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12일자에서 '조계사의 낯선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검은 양복의 짧은 머리를 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이야기를 박스기사로 처리해 조계종단의 모습을 꼬집었다.

이에앞서 연합통신은 7일부터



'무력충돌 위기로 치닫는 조계종 사태' 등의 해설기사를 띄웠다. 경향신문도 9일 기자메모를 통해 성철스님 5주기를 맞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과열 양상을 보도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 뉴스에서도 11일 승려대회와 총무원청사 점거 폭력충돌 등을 생생한 현장 모습과 함께 비중있게 다뤘으며, 12일 총무원장 선거 무산과 각 후보진영의 동향, 총무원 주변 모습을 신속히 보도하는 등 이번 사건을 집중보도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이렇게 들었다

불심이 얼룩진 사태가 또다시 빚어졌다. 지난 11일 조계사에서는 이날 전국승려대회에 참가한 스님들과 총무원측 스님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승가집단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수치스런 사건이었다. 불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고 말한다. 가장 비폭력적이어야 할 승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일반의 여론도 비등하다. 폭력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새겨본다. 〈편집자 주〉

폭력

참는 것만이 진실로 싸움 끝내나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대중들이 다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 가운데서 다투는 것은 꾸짖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큰 뜻을 가지고 출가하였는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혼란에 빠지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감이고, 변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변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잡아함경〉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아난다여! 밧지 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또는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다는데, 너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틀림없이 저는 밧지 족은 양가의 부인이나 규수를 폭력으로 붙잡아 가거나, 구속하거나 가두지 않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 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대반열반경〉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안락한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법구경〉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란다.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안락을 구하면 뒷세상의 안락도 얻게된다. 〈법구경〉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전륜성왕수행경〉

▨부모와 형제를 때리고 욕하여 존비(尊卑)의 질서가 없으면, 부문(門門·죄값을 치르는 곳)에 떨어진다. 〈잡아함경〉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싸움으로 얽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하리라. 〈중아함경〉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은해사 제주 극락도량 藥泉寺

종단등록 기념 대법회 및 주지 진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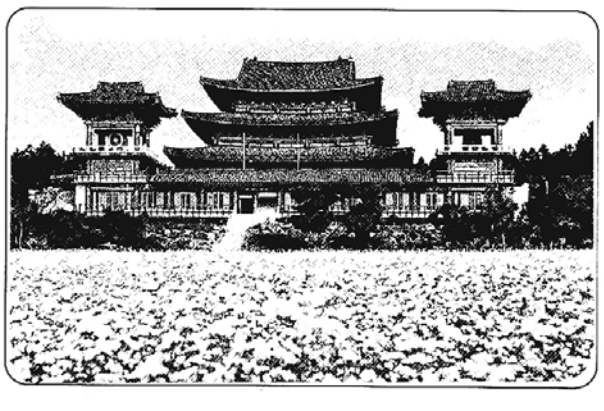
(수륙영가 천도재 및 방생)

초대의 글

귀의 삼보 하옵고
평소에 변함없는 마음과 정성으로 약천사를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옵니다.
저희 약천사는 대웅전과 나한전이 완공되어 행정당국으로부터 지난 10월 9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삼보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보존되도록 조계종단에 등록하게 되었으니 이 기쁨과 보람을 모든 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하여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日陀대종사님을 모시고 傳法度生의 수륙천도·방생 대법회를 봉행하면서 아울러 주지 진산식을 갖게 되었사오니 함께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기를 바랍니다.

南無佛! 南無法! 南無僧!

극락도량 약천사 회주 혜인 합장



▶ 일시: 1998년 11월 25일(수)-26일(목)
(음력)1998년 10월 7일-8일(약사재일)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1165 약천사
전화 : 064)738-5000(대)
팩스 : 064)738-5022 주지 합장

▶ 법회에 동참하실 불자 문의 접수처
· 서울 반야 여행사 02)730-0020(나인성과장,정재학)
· 대구 불교 방송국 053)427-5114
· 부산 우진 여행사 051)468-7447
· 진주 우진 여행사 0591)759-6400
· 제주도 대자연 관광 064)721-0005(제주도내 교통편 문의처)
· 제주도 서귀포 중앙 항공 064)732-3288(항공권 할인 구입)

행사일정

· 11월 25일(음 7일) 수요일 오후
■ 5시 40분 - 범고 및 범종 타종
■ 6시 - 저녁 예불
■ 6시 30분 - 법문/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 9시 - 수륙영가 천도재/혜인스님 영가법문
- 영가 위로 바라춤사위/
무형문화재 50호 송암스님 제자스님 일동
■ 11시 - 철야 기도

· 11월 26일(음 8일) 목요일 오전
■ 4시 - 새벽예불
■ 5시 - 법문 - 혜국스님
■ 8시 - 방생 법회 /약천사 앞 바다
■ 10시 - 주지 이·취임식
- 분향/축가 -서귀포 연꽃 합창단
- 축사/격려사
- 법어 - 일타 큰스님
- 취임사 - 신임주지 性空스님
■ 12시 30분 - 사시공양

▶ 약천사 오는 방법
▷제주도에서
대중교통이용 -중문에서 서귀포로 가는 길에 중문상고 앞에서 하차
중문상고 →약천사(500m)
▷육지에서
예약 -행사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접력업체에 문의하시면 편리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1 대자연 관광버스 이용 -공항대기 대자연 관광버스→약천사 직통(1시간 소요)
2 공항버스이용-공항버스(리무진)이용 중문 관광단지 하이아트 호텔에서 하차
·공항에서 하이아트까지 · 50분 소요 · 하이아트에서 약천사까지 · 택시로 10분

교차로 승가



불교방송에 후원금 1억 기탁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불교방송후원회 부회장)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광고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교방송을 돕기 위해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후원금 1억원을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에게 전달했다.



스리랑카 공로상 받아

광우 전국비구니회장은 불교발전과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스리랑카 불교사회기구 사라보다야에서 주는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돼 27일 출국, 12월12일 귀국한다.



통도사 화엄산림 입제

월파 통도사 주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통도사 화엄산림 입제식을 봉행한다. 99년 1월 17일 회향한다.



삼화사 미타전 상량법회

원행 삼화사주지는 18일 오전 11시 지역기관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산신각, 미타전 신축상량 대법회를 봉행한다.



보개산 석대암서 산상법회

영도 철원 심원사 주지는 22일 1227년전 지장보살이 직접 몸을 나투었다고 전해오는 심원사 옛터인 보개산 석대암에서 산상법회를 봉행한다.



'지자체장 역할' 강연회

동진 불교대구청년승가회장(칠곡 망월사 주지)은 4일 대구 프린스 호텔에서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을 초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운영혁신…생산적 종회 구현"

조계종 12대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의정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이 많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현실로 펼쳐 볼 기회가 주어졌으니 선배, 동료, 후배의 원스님들과 함께 종단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중앙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개원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법등스님은 종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종회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대 종회에서 거듭됐던 유회를 감안, 회의 운영규칙 시안을 만들어 놓았다는 설명. 이를 통해 12대에서는 중앙종회법에 입각, 일부 의원스님들이 발언권을 독점하는 등의 폐단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각 상임분과위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최소한 1주일 전부터 상임위별로 토론하고 심의해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의 혁신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종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법등스님의 목표다.

제8교구 직지사 직선의원인 법등스님은 61년 녹원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제9, 10, 11대(부의장)에 이어 4선의원.

"원로·중진 의견 폭넓게 수렴"

부의장 청화·명진스님





제12대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에는 청화스님(사진 위)이 차석부의장에는 명진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두 스님은 종회의원과 원로 중진스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며 의장스님과 협력해 원만한 종회와 종단을 일궈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1대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청화스님은 64년 법인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시인으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11대에 이어 재선의원. 제3교구 신흥사 직선의원.

직능직 선원대표인 명진스님은 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문경봉암사등 선원에서 정진했다. 11대에 이어 재선의원.

임연태 기자(ytlim@buddhia.com)

조계종 교육부장 현진스님 임명



조계종 신임 교육부장에 여의도포교원장 현진스님이 임명됐다.

65년 양평 용문사에서 득도한 스님은 71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마치고, 73년 동국대 불교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76~78년에는 동국대 석림회장을 역임했으며 82년 서울 사당동 여래원을 개설했다. 85년에는 여의도포교원을 개원해 포교활동에 매진해 왔다.

"소득증가 행복증가 아니다"

부탄 틴리 총리 방한



불교국가 부탄의 틴리 총리가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밀레니움회의 개회식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하는 인사말을 해 주목을 받았다.

틴리 총리는 "행복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경제적인 풍요로움보다 중요하다"며 "점점 소가족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는 도시 속의 외로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은 자본주의에 매료되어 영적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정책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린이건 노년층이건 간에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고3 언니 대입합격 발원

Focus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우하수) 1·2학년 학생들은 요즘 점심시간을 이용, 교내 법당인 수심당을 매일 찾는다.

수능고사를 앞둔 3학년 언니들의 고득점과 대입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1·2학년 학생들 모두 수능고사일 전까지 108배를 하기위해서다.

3일부터 시작된 '합격기원 108배'는 후배스스로 수심당 입구에 비치한 출석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출석표시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략 2백여명.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 불교학생회에서도 손수 만든 향나무 단주를 나눠주며 참여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황청원·김혜정부부 BBS·btn MC '경쟁'



"포교와 정진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가을 개편으로 불교방송과 불교TV의 주요 프로그램에 MC로 기용된 황청원 시인과 탤런트 김혜정씨 부부의 다짐이다.

불교방송의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와 불교TV의 '토요기행, 절로 가는 길'을 맡고 있는 황씨와 불교방송의 '일요초대석' 불교TV의 '차문화 산책'을 진행중인 김씨는 재미있고 친근감 있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프랑스 각 대학서 시낭송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파리8대학 등 프랑스의 각 대학에서 열리는 시낭송회에 참석차 27일 출국, 12월 7일 귀국한다. 이번 시낭송회에서는 대표 시들을 한국어로 낭송하며 프랑스 대표시인들과 대담도 나눈다.

대각전 만불 2차 봉안식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7일 오전10시30분 90주년기념 문화관 대각전에서 깨달음의 법당 대각전 만불봉안불사 제2차 봉불식을 봉행했다.

제2건국 추진위원 위촉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은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초대위원으로 위촉됐다.

'노장사상과 불교' 다보강좌



김항배 동국대 철학과교수는 1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11월 다보문화강좌 '노장사상과 불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승가원 3차 이사회 참석



함종한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신임이사로서 중앙승가대 자비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승가원 98년 제3차 이사회에 참석했다.

대산문학상 수상자에





불자시인 신경림씨(사진 왼쪽)와 회곡작가 이만희씨가 대산문화재단에서 제정한 제6회 대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베트남 빙엄사와 결연법회



성순경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이사장은 베트남과의 우호증진 및 친선교류를 위한 수계법회 및 자매결연 대법회를 29일 베트남 빙엄사에서 갖는다. 성이사장과 법사회 일행은 28일 출국해 12월 2일 귀국한다.

28일까지 '각자' 전시회



오옥진씨(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목각장)는 28일까지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각자(刻字)전시회를 갖는다.

지안스님 초청법회 열어



엄영건 부산불교거사림회장은 10일 오후 7시 부산 진구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지안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저희 주식회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신 많은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자 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요.

일년후 만 이천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동소방에 투자해 주시고, 심적으로 위안을 주신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투자해 주신 유치금액은 363분 19,000,000원으로 IMF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 IMF초기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건설사 및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로 당사가 입은 피해액 5억원은 이미 변제를 마친상태이나,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막은상태에서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사발행 어음 가운데 약 3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으로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 이었으며 올 3/4분기까지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1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이고 연간계약으로 이집트에서 $1,250,000어치를 계약하였으며, 남미의 도미니카, 중동의 이스라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약 $500,000 정도의 L/C가 내도 예정이어서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실한 불자기업으로 키울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 발전과 불법증흥의 믿거름으로 최선을 다할것을 불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 변제에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이남제외 직원일동

투자자명단(총363명)

(재)선학원	김금임	김유화	두기권	배경희	신현종	윤인숙	이인길	임명덕	정학수	최경락
강병주	김광훈	김은분	명김재	배영숙	신희심	윤정연	이인한	임순규	정해수	최기순
강성훈	김귀순	김윤성	명법시	배종수	심복사	윤정희	이재선	임순류	정혜진	최길숙
강순덕	김규친	김은희	무아	배증욱	심성엽	윤혜애	이재숙	임옥빈	정현애	최성숙
강연미	김금홍	김인규	무주성	배필수	심유희	윤희선원	이재순	임옥희	제인스님	최성연
강영운	김기중	김안란	문대식	백싱현	안락철	이가자	이재영	임환숙	조규동	최순자
강은주	김경순	김정복	문옥남	백일응화사	안중순	이경근	이재옥	임우덕	조명숙	최영희
강인지	김길지	김정봉	문류미	백영보	악사사	이경숙	이재옥	임화순	조명숙	최인영
강종구	김덕화	김정숙	민경원	보륜사	양기열	이경애	이점심	장경심	조명식	최원지
강중혁	김두경	김정예	민후원	보천사	양승욱	이경자	이정숙	장명민	조선옥	최정숙
고명옥	김명순	김정옥	박김순	북평사	양재십	이경희	이정순	장문지	조연숙	태인사
고순진	김미경	김정호	박건석	서승희	엄화십	이군자	이정우	장영친	조은경	허병석
곽종국	김미명	김정훈	박동원	서영석	여영주	이기남	이종관	장정태	조은성	현경규
관선스님	김미숙	김주덕	박득재	서은석	역곡보교	이기형	이승순	장정해	조인길	한경호
권용사(포항)	김민옥	김주석	박미혜	서운석	역곡교고우	이덕기	이종욱	장준혁	조정현	현마음선원
권용서울	김병곤	김주자	박분두	서은희	연명순	이동춘	이종태	장태영	조치원보사	현영자
구본일	김보리화	김주형	박상림	서태은	염명호	이동희	이종현	전상섭	조호용	제인사역수원
구영미	김봉희	김주성	박순자	석동현	영광도시	이루진	이진구	전승철	주간팀교	혀주
구영미	김분남	김주홍	박순자	성정	영명사	이만승	이진우	전이준	지산스님	혀경욱
구영자	김상순	김지숙	박승운	성기훈	영원스님	이명숙	이철은	정강주	지원하	혀덕님
구자원	김성관	김진성	박시영	성묵스님	영전사판	이복희	이청도	정경순	지은혜	혀상수
권기신	김수경	김청수	박연조	성역수림	오광수	이봉윤	이태원	정계령	지일스님	혀신자
권영순	김수연	김춘연	박영수	성향선	오세진	이분사	이태우	정기영	지현스님	혀종범
권영웅	김숙자	김태문	박영숙	손강지	오양자	이분아	이현숙	정덕근	지현자	혜국스님
권영하	김순복	김청진	박영원	손순호	오혜숙	이석정	이현호	정동숙	진관스님	홍연혁
권재술	김순희	김효성	박영순	송범스님	오혜주	이순문	이혜경	정수형	진남곤	화암사
권혁선	김양수	나숙희	박정만	수종	우신자	이순자	이혜정	정원축스님	채봉수	황봉환
금성시(부산)	김영순	남규홍	박주명	수능업사	울산정도	이승원	이화이	정원희	챔피온	황신자
기장사	김영주	내원사서원	박현동	신규감	원택권	이승칠	이효숙	정인섭	천경남	황윤길
김신	김영환	노건성	박현동	신동준	유영숙	이영이	이효순	정인순	천만자	황정복
김강웅	김옥순	노재성	박희철	신성욱	윤명욱	이영숙	인임스님	정일여	천성봉	황창영
김강웅	김옥희	노혜남	방남순	신우철	윤명희	이완규	안윤기	정종윤	청용사	홍류사
김경자	김위수	노화옥	방동원	신정옥	윤봉임	이윈형	임경분	정태호	청호스님	홍원사

참여하실 방법

1. 하기 당사 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2.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3. 투자모금액수:5억원
4. 투자한도:1인당 1만원이상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07640-717
예금주:(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 사: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TEL:(02)215-0723/FAX:(02)246-8503
경주지사: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TEL:(0561)772-0729/FAX:(0561)772-3923

하이텔 불동에 영어경전방

금강경 · 반야심경등 올려

'컴퓨터 통신하며 영어공부해요.'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상일)는 최근 영어경전 게시판을 신설했다.

영어로 불교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영어경전방은 경전원문과 해설을 영문으로 싣고 있다.

현재 영어경전방에는 성진경회원(cjksung)dl 반야심경, 양법장회원(bobjang)이 틱낙한스님(베트남)과 에드워드 콘즈(미국불교학자)의 금강경등의 경전이 올라있다.

영어경전방은 하이텔불교동호회 톱화면에서 26번으로 들어가면된다.

山寺 갈땐 운불택시 부르세요

전국운불총련 콜택시제 시행

'산속의 사찰을 찾아갈 때 친절한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지역 운전불자회를 찾으세요.'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한국운전불자총연합회(회장 문영호)가 사찰과 불자들을 위해 콜택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표 참조)

대구개인택시 정법회(회장 류지순)는 5일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동화사주지 성덕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및 호출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또 대구개인택시 연꽃회(회장 마종구)도 2일 대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내고 연꽃호출택시를 발족했다.

불자들이 작은 사찰이나 산간벽지 사찰을 찾을 때 탑승을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운전자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 이럴 때 각 지역의 운전불자회를 찾아 불자택시를 이용하면 쉽고 친절하게 해결이 된다.

또 사찰에서 행사를 할 경우 행사차량을 지원하는 등 불자운전자회

친절봉사에 바가지요금 걱정 '뚝'
성지 안내 · 사찰행사 차량지원도

택시는 사부대중의 친숙한 도반이 돼가고 있다. 그래선지 각 지역 불자운전자회는 콜택시제로 인해 눈코를 새없는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대전운불련 윤현순씨는 "하루 7백~1천2백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대전지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불자들을 모실 택시가 모자라 고민할 정도다".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봉사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믿고 많이 찾는 것 같다"며 "수입의 일정액을 봉사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콜택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서둘러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제주불교운전기사회와 경주운전불자회서는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지역관광택시도 운행하고 있다.

불자택시는 불자들에게 관광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불자상점과 연계하여 알뜰한 쇼핑을 돕고, 불교성지 안내에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인기가 높다.

한국운전불자총연합회 문영호 회장은 "손님에게 불교안내 책자도 배포해 포교에도 앞장서는 것은 물론 불자들을 위해 친절한 호출택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국 운불련 연락처

운불련	연락처
제주불교운전기사회	(064)510108
서울BBS교통봉사원	(02)705-5151
서울법륜회	011-760-3776
경기부천법륜회	(032)668-90073
부산불교운전기사회	(051)624-2207
대구운전기사불자회	(053)764-0766
대구개인택시정법회	(053)764-0766
울산개인택시법륜회	(052)278-5000~5
김천운전기사불자회	(0547)011-535-2913
경주운전기사불자회	011-523-5722
대전운전기사불자회	(042)626-6463
부여운전기사불자회	(0463)835-9003
청주운전기사불자연	(0431)271-8999
광주불교운전기사회	(062)266-4991
원주운전불자기사회	(0371)763-9911



이기영박사 2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구도법당 원효문고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2주기 추모법회 및 〈불교개론강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故 이기영 박사의 유가족을 비롯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 윤이흠 서울대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삼론종 총무원 서울이전 개원법회

삼론종(총무원장 대정)은 10일 총무원을 충북 충주에서 서울 홍은3동 4-8로 이전하고 이전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대산스님을 비롯 부종정 석봉스님, 총무원장 대정스님, 재정원장 혜광스님, 포교원장 범진스님과 신도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대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국불교발전과 종단발전을 '화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 청화스님 초청법회

등산반야회(회장 김재일)은 7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에서 창립 16주년 기념 청화스님 초청정토법회를 가졌다. 스님은 "염불과 선이 근원의 자리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토사 조실 설산스님, 동산반야회 법주 두진장스님, 전국신도회 손안식 사무총장, 동국연수원 권지홍원장, 동산포교사단 이남형단장, 아미타춤무용단 오영희단장 등과 불자 8백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실직자위한 화엄동산 개원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9일 오후 3시 여성실직노숙자들을 위한 희망의 집 목동 화엄동산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광서대표, 화엄의 집 남상균 소장,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정진 국장, 화랑선우회 최한수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화엄동산은 숙소,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40명 정원이다.

법륜불자교수회 창립 10돌

운문사서 기념법회…국악공연도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신준식)는 8일 경도 청도 운문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국악공연을 개최했다.

법회에서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륜불자교수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한다"며 "더욱 정진하여 불법홍포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만세루에서 펼쳐진 국악공연에는 96년 전주 대사습놀이 관소리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운숙 명창과 대금연주자 김경애씨등이 출연하여 관소리 '흥부가', 민요, 사물놀이를 연주했다.

지난 88년 창립한 법륜회는 현재 대구 경북과 경남지역의 교수 1백60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동하계 수련대회와 격월 성지순례 가족법회를 갖고 있다. 또 법륜불자교수회보를 14호에 걸쳐 발간했으며, 93년에는 큰스님의 법문과 회원들의 논문을 엮은 〈세간과 출세간의 만남〉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법륜회는 7월 제6대 임원진을 선임, 고문에 관응스님 명예회장에 정희돈(영남대)교수 회장에 신돈식(대구대)교수 부회장에 김광수(영남이공대)교수와 김상달(영남대)교수를 각각 추대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동불라이온스 첫 월례회…장학금등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제1지역(부총재 김성호, 불교미술관 대표)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이 5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첫 합동월례회의에 참가하고 육바라밀에 입각하여 불교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성호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봉사는 물질만이 아니라 불교의 보시와 자비의 마음이 함께할때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동국대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본부 봉사금, 결식아동기금 등을 기탁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융불련 연꽃마을 위문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29일 예천 연꽃마을을 방문하여 위문법회를 개최한다. 이날법회에서 금융단불자연합회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도 결칠 예정이다.

송파구 청화스님 설법회

송파구청반야회(회장 유중원)는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청화스님초청 대법회를 개최했다. 청화스님은 "모든 중생이 다같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받들어 만중생이 성불하고 삼라만상이 자성대로 살 수 있는 불국토를 만들자"고 법어했다.

탐방 목포 비로자나산악회



◇목포 비로자나산악회 인준법회가 10월18일 담양정토사에서 열렸다.

청정한 사찰환경 가꾸기 앞장

올 6월 창립…회원 50명
월 2회 산행…신심 다져
지역불교 활성화 노력

한반도 남단 목포에 비로자나산악회가 창립돼 전남지역 불교중흥과 청정국토건설을 일구고 있다.

목포 비로자나산악회(회장 김우숙,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10월 18일 담양 정토사에서 5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준법회를 갖고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에 공식등록했다.

이날 법회에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한계수 상임부회장은 비로자나산악회 회기와 인준패를 김우숙회장에게 전달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비로자나산악회는 지도법사에 법인스님(남원 실상사)을 위촉하고 실상사와 지리산에서 창립기념 첫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서 비로자나산악회 회원들은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 산처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발원했다.

목포불교대학 학생들이 주축인 목포 비로자나산악회는 지난 6월 7일 창립했으며 앞으로 산행과 함께 주변사찰을 참배하고 법회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정한 사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곡의 쓰레기줍기운동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로자나산악회는 99년부터 전남지역 산사를 한달에 두번씩 찾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 불교산악회와 연계 동반산행및 수련대회를 갖고 교류를 통한 화합과 우의도 다질 예정이다.

김우숙회장은 "산행을 통해 불심과 우의를 돈독히 하겠다"며 "앞으로 산악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98 광주 ·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도 그 더러움을 물들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향기와
우아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더러운 땅에 피는 연꽃에 비유하시는 까닭을 확연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 전남 불교합창제 또한 화합과 마음을 청순하게 이끌어내 밝은
생활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한지라
올해에도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출/연 ●

살풀이(양 영)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어린이합창단
도신스님, 정율스님

■ 일 시 : 1998년 11월 22일(일) 오후 5시
■ 장 소 : 광주남도예술회관(도청앞)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 관 : 사암연합합창단, 향림사 합창단, 화엄사 합창단
광주불교방송합창단, 증심사 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 후 원 : 불교광주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 · 전남, 북지사
(☎ 문의전화 : 062)375-9986)

지자체 사이버문화관 '볼만'

'경주넷' '빛고을광주' '경기넷' 등 홈페이지 40여개
사찰-불교문화재등 지역 유물·유적 상세히 소개

전국의 도청과 시청 등 지자체들이 앞장서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에 문화관을 속속 마련, 지역문화 행사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불교문화재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불교문화 홍보에 첨병역할을 맡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후원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이버문화관은 모두 40여곳.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홈페이지들인 경주넷, 대구시청, 빛고을광주, 대전시청, 속초시청, 수원시, 경기넷, 경남, 구미지역정보센터, 경북 국제관광정보망, 부산시, 전남도청 등은 지역문화 소개에 충실한 사이트들이며 춘천시청에서 운영하는 춘천시티넷과 거창지역정보센타 등은 알찬 내용으로 특히 눈에 띄는 사이트.

춘천시티넷에서는 만화축제알리기, 춘천의 명소, 문화행사 등과 함께 춘천의 명소 코너로 청평사 회전문(보물 164호), 근화동 당간지주(보물 76호), 칠층석탑(보물 77호) 등의 위치, 연혁소개 등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거창넷에는 거창지역 사찰인 금봉암 연수사 고견사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재미골 가섭사지의 바위전설이 보는 이의 재미를 더한다.

문화재의 보고 경주를 소개하는 경주넷은 '서라벌 나드리' 코너를 통해 석굴암, 마등사지 3층석탑, 원원사지를 도는 불국사권과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남산입곡석불두 등 남산권 순례, 석탑 순례 등이 네티즌을 사로잡는다. 10일 끝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구시청의 홈페이지에서는 팔공산에 위치한 파계사, 동화사, 부인사 등의 사찰을 소개한다. 광주시청의 빛고을광주는 사찰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고 있다. 대전시청은 고산사, 보문산마애여래좌상, 중암사 부도, 봉소사 석조보살입상 등의 유물 유적을 관광안내 코너에서 선보인다.

이밖에 충남도는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외에 제공하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해 2000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은 16억원을 들여 내년말까지 백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멀티미디어 기법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정보시스템 개발을 마무리짓는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물과 유물 유적지 설화 제도 종교 등을 시기별로 구성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이버문화관 개설 사이트

사이트	주소
사이버문화관 홈페이지	www.mct.go.kr:7000
한국문화공간종합안내시스템	www.mct.go.kr/s_space_h.html
춘천City Net	culture.chuchon.kangwon.kr
거창지역정보센타(거창넷)	www.keochang.kyongnam.kr
경주인터넷정보센터(경주넷)	www.kyongju.co.kr
경기넷	provin.kyonggi.kr
대구시청	www.metro.taegu.kr
대전시청	www.metro.taejon.kr
빛고을광주	www.metro.kwangju.kr
속초시청	www.city.sokcho.kangwon.kr
수원시	city.suwon.kyonggi.kr/main.htm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provin.kyongnam.kr
구미지역정보센터, 구미교차로	www.cyber2000.co.kr
경상북도 국제관광정보망	www.kyongbuktour.or.kr
부산시	www.metro.pusan.kr
전남도청	www.provin.chonnam.kr
한국전화번호부 홈페이지	www.ktdc.co.kr

불심시심 〈150〉

좋은 친구 반은 새와 고기

雲踈到此愛幽居 (운종도차애유거)	구름자취 여기 와서 그윽한 거처 사랑해
邱壑情緣笑未除 (구학정연소미제)	정으로 인연된 산천 웃어도 못 떨쳐
細月娟娟新蟾夕 (세월연연신제석)	가는 달도 아른아른 새로 개인 저녁
斜陽艷艷澹烟墟 (사양염염담연허)	지는 볕 곱게곱게 맑은 연기 옛 터전
安貧達士誰能致 (안빈달사수능치)	가난에 통달한 선비 누가 이를 수 있나
高尙明時易見疎 (고상명시이견소)	밝음을 숭상할 때는 소외되기 쉬운 것을
江近林深人跡少 (강근임심인적소)	강 가까이 숲도 깊어 인적 드므니
此中友樂牛禽魚 (차중우락반금어)	이런 때 좋은 친구 반은 새와 물고기.

초의선사가 두릉시사에서 지은 시이다. 스님의 발자취야 원래가 구름 물의 자취라 하여 세사에 얽매이지 않음이 본분이니, 구름 자취라는 운증은 선사로서의 지당함이다. 그러나 여기 이르렀다는 여기가 어디일까. 지금 세속의 선비들이 모인 이 사회이다. 정으로 이끌린 산천이다. 이러한 반연을 끊어야할 처지에 정에 이끌림이 되었으니 그저 웃을 수밖에.

여기에 범연히 넘어갈 수 없는 경치, 가는 초생달의 고움, 그것도 비가 개인 초저녁이다. 아직 석양의 뒤끝이 가시지도 않은 노을 낀 녘허에서다. 여기는 세속과 그리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비들과 시회를 위하여 모인 자리이다. 주변의 경관이 이런 흥을 돋우기에는 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초야에서 항시 경안히 지낼 수 있다면 그를 일러 통달한 선비라 할까.

이러한 안빈의 통달한 선비란 이루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시대가 성군의 시대라면 나아가 세상을 경륜함이 선비의 본분이니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상놀이에서는 소외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안빈과 달사라는 상반된 듯한 길을 중도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어려움을 조용히 초극하는 것이 산중 생활이다. 그러기에 절집이 아무리 마을에 가까워도 강을 끼어 거리를 두든지 대숲이라도 가려 닭 개의 울음을 막은 것인지도 모른다. 강 가깝고 숲이 깊으니 자연 인적이 드물고, 인적이 드쿠니 친구르는 자연의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 즐거움의 반은 산새와 물고기의 몫이라는 이 선사의 생활은 그 자체로서 선 수행을 마친 느낌이다. 물고기로서야 '내 즐거움은 내 것인데' 하겠지만.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외화내빈 행사였다

310만명 관람 '그나마 성과'

"여러가지 많이 보았지만 기억에 남는게 별로 없어요."

9월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달동안 경주에서 열린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의 소감이다.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라는 점에서 국내 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주문화엑스포는 총 3백1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함으로써 일단 성공적이지만 이번 행사의 주제인 '새천년의 미소'를 발견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불교계로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다.

경주는 신라불교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천년고도로, 이번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한껏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오페라 '원효'가 법향 그윽한 불국사에서 공연돼 큰 감동을 준 외에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깊이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했다. 이것은 엑스포 조직위에서 지나치게 탈종교성을 강조한 점도 있지만 불교계에서도 말로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비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행사가 주로 열렸던 보문단지와 경주 각곳의 사찰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해 경주 문화엑스포를 찾은 사람들이 사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사찰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한 안내팜플렛 등 특별히 포교할 수 있는 방안을 갖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무관심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경주문화엑스포는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국민들의 문화마인드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큰 문화행사다. 앞으로 2000년 ASEM과 2002년 월드컵과 같이 열리게 될 문화엑스포를 대비, 경주 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불교계가 내실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뤄온 불교문화가 21세기에 새롭게 꽃피울 수 있도록 불교계가 참신하며 창의성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를 포교에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연화장 세계를 꿈꾸며'

백양사서 인명스님-이영섭씨 2인전



◇이영섭作 '보리수'.

인명스님과 조각가 이영섭씨의 2인전 '연화장세계를 꿈꾸며'가 12월 6일까지 장성 백양사 고불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인명스님은 '蓮' 등 수묵담채 동양화 25점을, 이영섭씨는 '보리수' 등 테라코타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인명스님은 4차례의 개인전을 비롯 여러차례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고 이영섭씨는 국제교감예술제, 새로운 전망전 등 다수의 조각전시회로 주목받는 작가이다. (0685)392-7502

화제의 전시

홍석화씨 해우소사진전

서울·의정부·이천·안성·수원 등 순회



사찰의 해우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토종뒷간연구가 홍석화씨(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의 해우소 사진전이 서울 의정부 이천 안성 수원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완벽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 선암사〈사진〉 을진 불영사 문경 김용사 등 요사이 사찰에서 보기힘든 사찰 해우소를 비롯, 농가의 잿간변소 등 환경친화적인 한국의 옛 뒷간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1.17~23. 인사동 나 갤러리 △11.24~27. 의정부 청소년회관 △12. 7~12. 이천 한국전력 한빛전시장 △12.13~16. 안성문예회관 △12.17~23. 안성 고삼농협 △12.24~31. 수원 경기도문예회관.



◇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어린이불교합창제.

광주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합창단 소년가장돕기 '성황'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주지 혜월) 어린이 불교합창단의 제2회 소년소녀돕기 정기공연이 7일 광주시민회관 강당에서 지역스님 30여명과 불자대중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합창단은 '공심공체 들어난 노래' '주인공이 무엇일까' '비오는 오솔길' 등 찬불가와 동요, 외국가곡 등 16곡을 합창했으며 청년회 중창단과 거사림합창단이 찬조로 출연하여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날 합창제에서는 1천 2백만원이 모금됐으며 수익금 전액은 11월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준비한 김장 4천포기와 함께 광주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액 전달된다.

문화 단신

사야골선다헌 개원

전남 담양에 전통차를 보급하고 공연과 전시까지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사야골선다헌'이 7일 개원됐다.

'사야골선다헌'은 개원과 함께 12월 5일까지 '윤회법' '꽃을 든 모델' 등 황토흙으로 제작한 청공스님 작품 20여점과 구산 석주승찬 스님등 고승대덕들의 글씨 10점, 장석원 강철수 씨 등의 유화및 관화 1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선다헌 대표 청공스님은 앞으로 다도, 경전강의, 관화 등의 문화강좌를 비롯 시낭송회와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선다헌을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글짓기 입상작 발표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윤열)가 주관하고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가 주최하는 제17회 전국불교어린이글짓기 작품공모에서 운문부문 우수상에는 △저학년='우리 부처님'(조각류 서을 서정초등3), 산문부문 우수상에 △저학년='어머니와 약사여래불'(윤슬지 서울 은석초등2) '복받은 어린이'(안세란 서을 은석초등3) △고학력='경주를 다녀와서'(이호진 서을 목등초등6), '부처님품안에서'(양예림 광양 가야초등6)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등시 10,211편, 산문 25,901편등 모두 36,112편이 응모해 우수상 5편, 금상 43편, 은상 58편, 동상 40편 등 총 146편이 입상했다.

법보신문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의 조계사 정진법회에 부쳐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원들의 조계사 정진법회가 '법보신문 사태' 해결의 기점이 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며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법보신문 전 직원에 대한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의 일괄사표 요구로 시작된 '법보신문 사태'가 석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기협회보'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법보신문 사태'는 지난 7월 불국사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법보신문 운영진에 대한 곡해로 발생한 전대미문의 '불교언론 탄압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은 손상된 불교언론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대응에 나섰으나,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부장·차장들에 대한 해고예고 통보와 출근정지 통보에 이어 또다시 평기자들에 대한 면직과 무기정직 등 중징계를 단행하여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전에 서원하건대 '법보신문 사태'의 책임과 그 해결의 열쇠는 전적으로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기간 분단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은 냉전시대를 거쳐 이제 민주와 개방의 시대로 진입해 그 어느때보다도 정의와 인권이 신장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로 반세기만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사회 각 분야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개혁이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사부대중이 하나가 되어 불교와 불교언론 발전의 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건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반개혁적 사태가 법보신문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간의 '법보신문 사태'를 바라보건대,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밝힌 '재정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명분은 이미 빛을 바랜지 오랩니다.

편집국 부장과 차장을 해고예고한 후 국장과 부장·차장을 새로 영입한 일, 사무실이 좁다며 더 넓은 공간을 계약하려 했던 일 등은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당초 밝힌 '재정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이유가 그저 직원 물갈이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제(인재)양성을 외치면서도 단순히 스님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개년에서 10여년 이상 동안 불교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해 온 전문 불교언론인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몰아내는 일은 차마 자비문중의 스님들로서 해서는 안되는 서글픈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교계가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가 우리를 더욱 회의에 젖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보신문 사태'는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자비심과 성의만 보여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제,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원들이 원만한 사태해결을 발원하며 조계사에서 매일 정진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만큼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은 스님으로서의 자비심과 성실한 자세로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법보신문사 노동조합과 허심탄회하게 마주한다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초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요구했던 편집부장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표를 낸 지금에 이르러 어떠한 명분으로도 선별처리가 아닌 해고예고자와 중징계자 전원에 대한 원직복귀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걷는 사문으로서 자비문중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법보신문사 편집국 직원들이 3개월이 넘도록 고군분투하며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은 채 복직에 대한 희망 속에서 피나는 정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법보신문사 편집국 기자들의 이같은 꿋꿋한 자세는 전문 불교기자로서, 또한 불자로서의 깊은 신심과 불교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의 발로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보신문의 정상화를 위한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원들의 조계사 정진법회가 2천만 불자와 함께 거듭나는 불교언론의 내일을 기약하는 화합의 장으로 회향되기를 기원하면서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법보신문 직원들의 대화노력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은 선별처리가 아닌 해고예고자 전원 원직복귀와 중징계 해제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신문정상화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법보신문 정상화를 위해 복직의 희망을 잃지 않는 편집국 기자들의 정당한 분투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할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법보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불기 2542(1998)년 11월 11일

한국불교기자협회

교계기자 5명이 안내하는

기도도량 36곳의 모든것

불교시대사 '한국불교 기도성지' 펴내



최근의 어려운 여건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해마다 연말이 가까와지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원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럴때 평소 가보고 싶었던 기도도량이나 이름난 기도도량을 찾아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좋은 수행방법이 된다.

불교시대사에서 펴낸 〈한국불교 기도성지〉는 기도도량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자상한 안내서다. 기도성지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를 묶고, 여기에 5대 적멸보궁과 최근 새로이 떠오르는 기도성지까지 안내해 놓는 등 이름난 기도성지 36곳을 총망라했다.

필진이 모두 교계 기자들이라는 점도 이 책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정성운(현대불교신문) 채한기(법보신문) 이성수(주간불교) 조병활(불교신문) 이재우(월간 금강) 기자 등이 발로 뛰며 현장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그런만큼 기도도량의 생생한 현장이 그대로 전달된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으로는 통도사, 상원사, 정선 정암사, 영월 법흥사, 설악산 봉정암 등이, 관음기도성지로는 양양 낙산사 홍련암, 남해 금산 보리암, 동해 두타산 관음암 등 8곳이 소개돼 있다.

지장기도성지로는 철원 심원사, 고창 도솔암, 완주 송광사, 서산 개심사 등 4대 지장도량을 포함한 6곳이, 약사도량으로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와 청양 장곡사 등 2곳이 실려있으며, 문수도량으로는 서울 북한산 문수사와 나한 기도성지로 청도 운문사 사리암과 합천 해인사 희랑대 등 6곳이 담겨 있다.

또 서울 삼각산 도선사와 간양 구인사 등 8곳을 최근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기도성지로 포함돼 있다. 이들 기도성지는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을 선정해 분류한 것이다.

구성은 해당 사찰마다 전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영험담을 비롯해, 기도도량이 된 내력, 사찰 역사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기도법회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며, 교통편과 주변 명승지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도 풍부하게 실어 입체적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자칫 빠져들기 쉬운 기복적 요소는 배제하려고 애쓰면서 기도의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책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영험은 초월적 절대자에 의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통한 죄업의 소멸과, 정진을 통한 내면적 변화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값 7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밀교사전' 나왔다

주보윤교사 10년작업
밀교용어 총망라 수록


◇주보윤씨

학자도 아닌 현직 교사가 〈밀교사전〉을 펴냈다. 국판 크기에 1천여쪽의 분량으로 밀교와 관련된 1만여 단어가 수록된 〈밀교사전〉(홍법원 刊)은 방대하지는 않지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주보윤 교사(39, 진선여고)는 10년간 한결같이 이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전심전력했다.

"학부시절 밀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밀교를 미신적 주술체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군요. 그래서 밀교를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교사는 〈밀교사전〉을 만들기 위해 팔만대장경과 한글대장경에서 밀교와 관련된 용어를 모두 뽑았다. 밀교 경전과 밀교 관련서 및 논문을 전부 읽고, 중국·일본 밀교와는 다른 한국 밀교의 특성을 찾는데도 주력했다.

밀교 경전 및 교리와 연관된 대승 경전을 수록하고, 밀교 종단인 진각종의 교리와 의식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함께 실었다. 또 공과 연기 등 밀교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승불교의 용어도 설명해 놓았다. 주요 경전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고려대장경과 한글대장경의 권 수를 표기해 공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왔다. 값 7만원.

한명우 기자

해외신간

가브리엘을 만나다



선(禪) 수행자가 대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났다. 스테판 미첼이 발간한 〈가브리엘을 만나다(Meetings With the Archangel: A Comedy of the Spirit)〉는 유태인으로서 불교에 귀의하고 불법을 구도하는 한 청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선 수행자' 등 3편의 소설적 수필로 구성돼 있으며, 동일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각 에세이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유태인 청년의 정신적 성장을 조명하고 있다. Harpercollins 刊.

조심스런 질문



〈조심스런 질문(Mindful Inquiry in Social Research)〉의 저자 제르미 사피로는 경제, 정치, 종교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20세기를 주도한 종교계와 철학계의 마지막 담론이라고 설명하고, 다원화 된 패러다임과 시스템으로 글꼭된 현대사회의 인식론은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철학들이 담론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Sage 刊.

불교로의 권유

젊은이나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본래의 모습, 바른 종교관'을 날카로우면서도 쉬운 언어로 제시하는 안내서 〈불교로의 권유〉가 나왔다.

불교를 '인간학'이자 '행복학'이라고 정의하는 저자 야마자키 다쯔아키(山崎龍明)는 특히 최근들어 사회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생명'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을 기초로 생명의 기반, 생명의 존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방장당출판(方丈堂出版) 刊.

정병삼교수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스님 알면 삼국불교 보인다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문화는 물론 한국불교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는 사서이다. 이 책을 찬술한 일연스님 역시 선교를 두루 겸비한 선사로서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 등 오랜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연 고승이다.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가 펴낸 〈일연과 삼국유사〉(새누리 刊)는 〈삼국유사〉와 일연스님을 심도깊게 조명한 학술서로 스님의 생애와 〈삼국유사〉의 주요 부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 전반부에서는 일연스님의 출가수행에서부터 중앙교단 활동, 선사상, 교류인물 등을 연보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기이(紀異)편' '흥법(興法)편' '탑상(塔像)편' 등에서 〈삼국유사〉를 대표할 만한 항목 40여편을 내용별로 가려 뽑아 번역하고 간단한 주석을 달아 놓았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수행에도 지름길 있는가

골드스테인 '통찰의 체험'

故 현음스님-이금주교수 번역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현재 미국에서 수행센터를 개설해 일반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골드스테인(J. Goldstein)이 저술한 〈통찰의 체험〉(한길 刊)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삼발라(Shamshala)출판사에서 90년 출간된 〈The Experience of Insight〉를 입적한 현음스님과 이화여대에 몸담았던 故 이금주교수가 공동 번역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수행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일기식으로 정리해 놓아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식으로 요점을 정리해 놓았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매력이 있다. 수행을 설명하기 위해 노장사상 등 동양철학을 폭넓게 녹여 낸 것도 특이하다.

경전 말씀이나 일화 등을 섞어가며 설명해 놓아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다.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2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3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반 영 규	솔 바 람
4	불성이란 무엇인가	다카사키	여시아문
5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7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고명석·고경형	대원정사
8	화두, 혜능과 세익스피어	김용욱	통 나 무
9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10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구입문의:(02)737-0695

'구정가 판매전'

책방 여시아문, 15일부터

책방 여시아문이 불서보급과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취지로 15일부터 구정가 판매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에서는 장경각이 펴낸 〈성철스님 법어집〉(전11권)을 사는 고객에게 성철스님의 행장이 기록된 5부작 비디오테잎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10여개 출판사에서 내놓은 2백여종의 책이 정가보다 30~40% 정도 싸게 판매된다. (02)737-0695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갈까 혜정스님 지음

화제의 책

이야기 듣듯 읽다보면 삶의 법문



어린 행자 무릎에 안고 얼러주고 꿀밤 주고 볼우물을 꼬집으면 제법 힘을 쓰며 엉겨든다. 요놈 나 넘어지겠다 하고 허허로움도 즐겨본다. 스님과 어린 행자는 과연 무엇을 주고 받았을까.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갈까〉는 자신에게, 타인에게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라는 화두로 세상을 살아보라고 말한다. 일상의 단편을 모은 수필집이지만 마치 법문을 듣는 듯한 교훈이 서려 있다. 지금까지의 승려생활에 대한 느낌과 스님으로서 불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다. 〈동원사, 6천5백원〉

함께 사는 아름다움 정화스님 지음

화제의 책

'나와 나의 것'에서 벗어날때 자유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빈 마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움'과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찬 마음의 차이에 있다. 우리의 삶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자기 한정'이란 업에 매여있다.

〈함께 사는 아름다움-금강경·반야심경 풀이〉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함께 사는 아름다움'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말하고, 모든 불자들이 이 경전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한정'의 업을 벗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공사, 1만원〉

마음아 마음아 뭐하니 나상호 지음

화제의 책

성불의 길 자신에게 있다는데…



태우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살아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바가 없어도 잘 배우게 되는 길이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지혜의 등불이야 말로 성불로 가는 첩경임을 깨닫게 한다. 생활의 단편들 속에서 성불에 이르는 길이 바로 자신의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수필집.

마음닦는 이야기,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 등 신행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동남풍, 6천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니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법(無碍法)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학술단신

미국서 '국제원효의 밤'

국제원효학회(본부장 송석구)는 21~24일 미국플로리다주 윌트디즈니 스완호텔에서 열리는 미국종교학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원효학 특별분과'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원효사상의 철학적연구' '원효저술의 문헌학적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22일에는 '국제원효학의 밤' 리셉션을 연다.

20일 불교학회 논문발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는 추계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를 2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갖는다.

자유주제 발표로 진행되며 △근대 승니도성출입의 해금과 그 추이(김경집 · 동국대 강사) 등 7편이 발표된다. (02)260-3122

'원효사상 통일이념' 세미나

원효학회(회장 김영태)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스님)은 제3회 '원효학연구 학술발표회'를 26일 오후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원효성사의 교학과 통일이념 연구'를 주제로 △법화경종요에서 본 귀일사상(김영길 · 동국대) 등 총 8편이 발표된다. (0561)742-9922

"화엄사상 사회통합 정치적 기반" 최병헌교수

탄허불교문화재단 '화엄사상' 학술발표

"통현장자-청량국사 정토관 달라" 각성스님

"탄허스님 현대화엄학 기초 다져" 정병삼교수


◇각성스님


◇최병헌교수


◇정병삼교수

"통현장자의 화엄론은 독특한 전통적 계통은 없으나 화엄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특수하게 밝힌 저서다."

삼국시대에 수용된 후 한국 불교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사상으로 자리잡은 화엄사상. 오늘날 화엄사상 연구에 있어 지침서가 되고 있는 〈화엄론(華嚴論)〉과 〈화엄소초(華嚴疏鈔)〉의 저자 이통현장자(李通玄長者 · 생몰연대 미상)와 청량국사 징관(淸凉國師 澄觀 · ?~839)의 화엄사상을 비교한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탄허스님 열반 15주기를 맞아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렬)은 14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엄사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성스님(삼일선원 상임지도법사)은 '통현(通玄)과 청량(淸凉)의 화엄사상 비교'에서 통현과 청량의 차이점을 분석, 제시했다.

각성스님은 먼저 "통현과 청량은 정토신앙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화엄종에 정토신앙이 있을 뿐만아니라 〈화엄경〉 보원행원품에 정토신앙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통현장자는 아예 극락정토를 따로 믿지 않았다는 것. 각성스님은 "통현장자는 완전히 화엄사상에 입각한 정토를 최고로 보며 〈화엄경〉 외에 다른 서방정토나 불국정토에 신앙을 두고 그 정토가 좋다고 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화엄의 대가들인 청량이나 두순, 지엄, 현수 등은 정토신앙을 배제하지 않은 반면 통현은 화엄의 사상이나 화엄의 종지보다 더 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는 설명이다.

각성스님은 통현과 청량의 또하나의 차이점으로 "선종(禪宗)에 대한 언급에서 사상적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량국사는 〈화엄소초〉에는 달마스님도 나오고 6조스님도 나오는 등 〈화엄경〉을 해석하며 선종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통현장자는 전혀 선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통현장자는 유식(唯識)을 반야(般若)보다 상위(上位)로 보고 있으나 청량은 하위(下位)로 보고 있는 것도 특징.

이외에도 육상원융(六相圓融)을 중시한 것(통현)과 중시하지 않은 것(청량), 보통 〈화엄경〉을 칠처구회(七處九會)로 보는데 통현은 십처십회(十處十會)로 본 것 등을 차이점으로 제시한 각성스님은 "〈화엄경〉보다 더 이상이 없다는 기치를 높이 세우는 것이 통현장자의 특색"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성스님은 "화엄의 대가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청량국사는 화엄종 계통의 출가사문으로 화엄학 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석학이라면 통현장자는 다양한 학설과 경론을 통해 독특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역사와 화엄사상-한민족의 통일과 화엄사상'에서 최병헌 교수(서울대)는 삼국통일과 후삼국통일에서 대립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의 이념으로 기능한 점을 강조하며 "오늘날 한민족의 통일에 있어 새로운 화엄사상의 체계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삼국통일에 있어 화엄사상은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이질 세력간의 조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후삼국 통일 후에는 균여(均如)가 화엄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현행원의 신앙을 통해 분열의 시대에 대응하는 사상으로 역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교수는 "남북 관계에 있어 정치적 통일 후에 예상되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나 현재 나타나는 영 · 호남의 갈등에 있어 화엄사상은 사회통합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화엄사상을 통해 분열을 극복했던 역사를 밝히고 재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교수는 "삼국통일과 후삼국 통일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앞선 경험에서 불교의 역할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화엄사상연구와 탄허대종사'에서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탄허스님은 〈신화엄경론〉 역해 작업을 통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청량국사의 〈화엄소초〉를 위주로 이해해오던 화엄학의 경향을 새롭게 하여 지눌의 선교통합적인 화엄 이해의 흐름을 되살리며 현대 화엄 이해의 디딤돌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태고보우국사 법통 재조명

대륜불교문화硏 18일 학술발표회

"한국불교 종단사는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 · 1301~1382)를 종조(宗祖)로 다시 쓰여져함을 물론, 그동안의 종조논쟁을 정리하고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1954년 불교분규 이후 태고보우-보조지눌 스님에 관한 종조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은 18일 오후 1시 불교방송국 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태고보우국사전서(太古普愚國師全書)〉 제3권 완결판 발간과 함께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는 지난 97년 1월 제1차 학술발표회에 이은 두 번째로, 한국불교의 종조는 태고보우인가 보조지눌인가, 또 태고보우국사는 임제종맥을 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 '태고선(太古禪)의 선풍(禪風)과 특색'에서 정태혁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태고보우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국불교의 법맥은 태고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태고보우의 법통이 임제종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므로 한국선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중국의 선지식인 석옥화상에게서 심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석옥이 도에 있어서 서로 계합된 것이었으니, 그것이 반드시 중국 임제종의 선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태고보우가 출가 수선한 곳이 가지산(迦智山) 총림이었으므로 한국불교의 법통을 이어받아 중흥시킨 분이 아니라고 하나 구산오교(九山五敎)를 회통시킨 원융부를 설치하여 이를 지양했음을 보면 가지산파의 법통만을 이은 것이 아니라 선과 교를 회통시킨 분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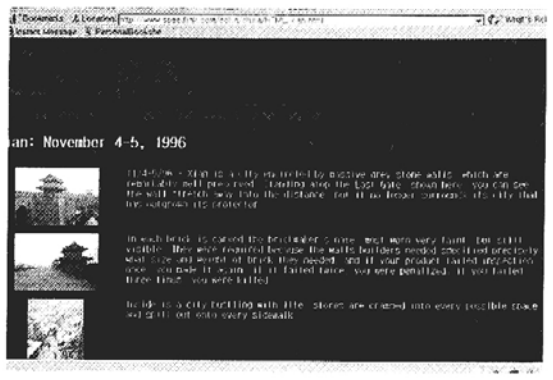
'서산문도의 태고법통설 천명'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임진왜란 이후 서산의 문도들에 의해 법통설이 강조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조계종의 법손임을 대내외적을 천명하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사명이 자신을 '조계종유(曹溪宗遺)'라고 했던 경우 처럼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소속과 동시에 그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임제 의현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성본스님 · 동국대) △태고법통 확정의 사적(史的) 고찰(김영태 · 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된다.

김정은 기자



해설 너희들 비구는 계에 머무를 수 있게 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제어함으로써, 오욕(五欲)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 소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감시함으로써,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곡식을 못 먹게 해야 하는 것과 같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실크로드를 찾아서

서안·돈황등 불교도시 유적감상 NASA 레이더 촬영 사진도 열람

인터넷의 정보망을 통해 실크로드를 걷는 것은 네티즌만의 즐거움이다. 이곳에서도 일반적인 여행과 같이 서안, 돈황, 타쉬켄트 등 실크로드의 대표적인 도시를 방문해 유적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불교와 실크로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연대기적 사건으로는 △기원전 300년 불교의 북방 전파와 간다라미술 양식의 발전 △기원전 1년 인도 불교의 중앙아시아로 전파, 조르아스터교를 대신해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종교로 발전 △100년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 △300년 돈황의 석굴사원 조성 등이 있다. 실크로드는 1800년 곤륜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고대 도시 불교유적이 발굴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독일의 리히코펜박사가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오아시스의 고대도시들=기발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이용, 불자네티즌들이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흥미진진한 사이트. 1994년 우주선을 타고 우주 궤도에 오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스페이스셔틀 레이더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촬영했다. 이때 이 사막에서 사라진 고대도시의 흔적들이 대거 발견돼 화제를 모았다.

△서안=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現 서안)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의 한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장안에서 난주를 거쳐 돈황에 이르고, 돈황으로부터 산악지대와 사막을 넘는 고통스런 대상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서안의 사원과 거리 풍물 등을 담은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다.

△투르판=해발 4천m가 넘는 천산산맥의 만년설과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 지역인 해발 154m의 아딩콜(Aydingkol) 호수가 있는 조건을 가진 투르판은 실크로드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독특한 역사와 불교문화를 지닌 곳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실크로드를 찾는 여행자들로 인해 붐비는 투르판의 생생한 모습과 접경지역인 몽고의 풍물이 소개된다.

△감숙성=돈황 막고굴로 더욱 잘 알려진 감숙성은 중국의 중서부에 해당하는 지역. 황하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요, 돈황과 빙링 등 대규모의 석굴사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든다. 50여종에 달하는 장대한 석굴사원의 유적과 유물들이 생생한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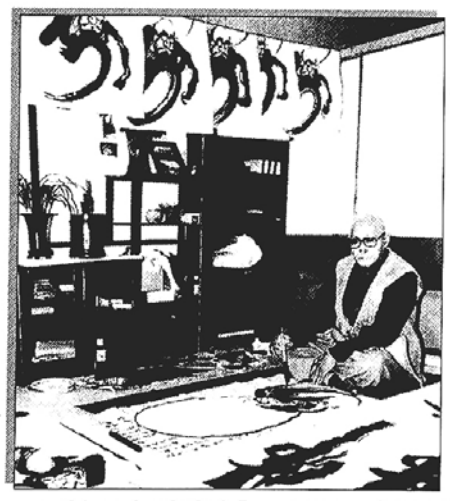
△실크로드 사진=낙타, 돈황의 사구, 가욕관, 까오창의 폐허, 카쉬가르의 시장, 카쉬가르의 모스크, 빙링 석굴 등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오아시스의 고대도시들 http://www.alumni.caltech.edu/~pamlogan/silkroad/
타클라마칸 사막 http://139.169.126.95/images/STS074/712-93.jpg
서안 http://www.speedlink.co:m/collin/china/html/xian.htm
투르판 http://www.caco.com/culture/travel/xinjiang/turpan.htm
감숙성 http://www.travelon.com/edu/106gsr01.htm
실크로드 사진 http://www.atm.ch.cam.ac.uk/~oliver/silk2.html

달마 가훈 보급 안내

"무불스님 달마상 및 가훈을 저렴한 가격으로 법보시합니다!!"


▲무불스님 달마가훈 33만장 10년 결사


◀달마조사상
⊙ 규격 : 45cm × 70cm
⊙ 서울 · 울산에서 방광
⊙ 수맥 차단
⊙ ₩33,000


◀일지일도
「한뜻을 가지고 한길로 나아가라」
⊙ 규격 : 35cm ×110cm
⊙ ₩10,000

달마조사상 · 일지일도
신행단체나 사찰에서 다량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통장입금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37-52-042983 (예금주 박 석 구)

대한불교 조계종 죽림사 달마보급 가훈보급 선양회

■ 주문전화 051)361-6662 ■ 주문팩스 051)361-6663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판/408면 값 7,500원

그냥 갈수 없는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솔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 수 없는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록을 읽고 발심, 1980년 범어사에서 성운지효(聖雲智曉)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교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눠가고 있다

불광출판부 대표전화 : 420 - 3200 팩시밀리 : 420 - 3400

한형조 무문관 밖방

72

수산의 죽비②

禪은 왜 언어를 부정하나

인식·언어는 무명에 뿌리둔 인위적 도구

선은 신학이 아니다. 그래서 개념의 초월적 형이상학적 성격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 실천적 윤리적 함의에만 주목할 뿐이다. 그래서 그토록 언어를 두려워하고 부정한다.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할 지 모른다. 개념은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규약이고 약정일 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언어를 부정하는가. 대체 언어에 대한 공포(lingua-phobia)는 선이 노리는 궁극적 관심과 무슨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선사들은 그렇게 자상한 답변을 꺼린다. 한가한 논의에 시간을 뺏길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단도직입! 학인들은 궁금증을 접고, 스승이 제기한 물음을 끌어안고 뒹굴어야 구원의 빛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선의 역사는 이 방식이 유효적절했음을 웅변으로 증거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방법은 현대인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행동을 주문받기 전에 문제의 전말과 선택의 경위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긴, 선의 창시자인 달마도 이리 말했다. "우선 원리를 이해하고(理入), 그런 다음 실천에 임해야(行入)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나는 언어와 구원과의 관계를 읽는 선의 관점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기실 이 결과인 언어와 사유-가 모두, 예외없이 실제로부터의 단절이요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식은 욕망에, 다시 말해 무명(無明)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맹목의 의지가 고요한 근원의 에너지를 격동시켜 주체 혹은 자아를 형성시키고, 곧 그 짝인 대상을 불러온다. 이들이 결합하여 인식을 구성하고 강화한다. 이때 인식은 세계의 인위적 도구적 분절을 의미한다. 이를 경계(境界)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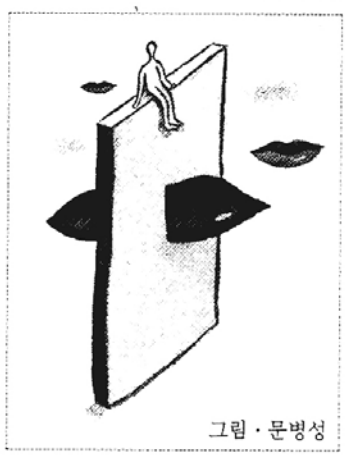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리가 '이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저것'과 분리시키며, 그 분리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감정적 편향을 갖는다. 모든 인식은 이처럼 세계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의 결과이며 또한 원인이다. 생멸윤회(生滅輪廻). 그렇지 않은가. 이데올로기나 명백한 가치어는 물론이고, 러셀이 말한 가장 객관적이라는 논리적 고유명사조차 이 훈습(薰習)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실제가 아닌 이미지의 세계, 인간의 오염된 인식이 구축해 놓은 환상, 즉 마야(maya)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커튼을 찢어버려야 서슬 시린 실제(實際)와 만날 수 있다. 〈금강경〉은 말한다. "만일 세계의 모습을 이같은 오염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구원이 다가올 것이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는 인간이 구성하는 모든 인식-그리고 그 이어진다는 것! 그 비판적 인식은 불교적 전통이 공유하고 있다. 일찍이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는 개념과 판단의 객관적 지평을 확인하려 노력했다. 자아를 지우고 진리만을 남기기 위해 특유의 다르마 이론이 개발되고 이 성과를 명상하는 것을 지혜로 여겼다. 대승(大乘) 공관(空觀)은 이 기획을 순진한 것으로 치부했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언표하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유마의 침묵만이 실제를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진술은 그것이 진술인 한 오염과 일탈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공(空)이다. 방법적으로 공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진술을 타파하는 다이아몬드의 검이다. 그 부정의 칼춤 뒤에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가 새로이 현전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원효는 후자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불교는 삶을 위한 기술이지, 죽음을 위한 조곡이 아니다. 〈대승기신론〉은 이 양 측면을 동시에 조망한 불후의 역작이다. 입파여탈(立破與奪), 빼앗으면서 주고, 주면서 빼앗는 역설이 불교의 참 정신이다. 선은 이 후기불교의 변증적 관점을 실천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지 말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2



욕망, 두려움, 권태, 불신, 불안 등 수행의 장애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평소 행하는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결코 그릇된 습관이 아니다. 습관이란 자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의 본성이며, 어릴 적부터 개발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일을 하고 또 즐거워한다.

수행의 장애③

만약 우리가 이 습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세간의 유·무정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알게될 것이다.

두번째 우리는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한다. 세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매번 "이것이 최선이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사실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습관적 반응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습관적 반응을 지켜보는 '마음챙김(정념)'에 그 방법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적인 반응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을 챙기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순간 순간의 경험을 되짚는 작업이다. 그리고 욕망, 두려움, 불신 등 수행의 장애들이 찾아오는 순간 잠시 멈춰서서 "아! 내가 여기에 있구나"고 말하면 된다. 이 순간은 바로 자신의 실체를 알게하는 순간이다. 욕망, 두려움, 불신의 깊이와 정도를 스스로 알게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이것이 최선인가' 묻지말고
습관의 시작과 끝을 살펴
욕망을 중단하세요

수행으로 불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세번째 수행의 장애물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물에게 주목하는 만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과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수행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내면에서 욕망, 혐오 혹은 그 무엇을 찾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서 떨어진다든지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수행이 깨달음을 향한 구도보다는 갈등과 싸움으로 점철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장애물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더욱 분명한 실체를 갖게 된다.

네번째 장애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지 지켜보는 것이다. 욕망, 불신 등 장애물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관찰해 보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언제 마음을 동하게 하는지.

미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뉴만박사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청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칠판에 '욕망의 중단, 욕망의 중단, 욕망의 중단'이라고 쓰고선 연단을 내려온 것이다. 이 강의의 주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 일은 비싼 강의료를 지불한 청중들에게 그가 가장 정직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기억 중에서 욕망, 분노 등의 감정이 복받쳤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 때의 감정을 곱씹어 보자. 또 마음이 변화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 보자. 이 과정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교훈을 일깨워준다. 그 과정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수행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덧없고 비인간적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장애를 넘어서는 수행은 바로 먼저 그 유형을 살피고, 그 순간 우리의 경험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애물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을 살피고, 단지 그것을 떼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작, 과정,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잔차스님은 중도(Middle Way)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이같은 수행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욕망과 톰닉, 또 한편으로는 공포와 혐오를 따르는 것은 어느 쪽도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다만 즐거움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성냄과 공포와 불만은 수행자가 따를 길이 아니라 세속인의 길이다. 마음의 평정시킨 사람은 한편으로 집착을 놓고 또 한편 공포와 혐오를 버려 바른 수행길, 중도를 택한다. 수행의 길은 택한 사람은 마땅히 중도를 따라야 한다. 패락이나 고통 따위는 거들떠 보지 않으련다. 그 따위 것들은 다 내어버리겠다. 결심으로, 물론 처음엔 힘들다. 그것은 마치 양쪽 발길에 채이는 것과 같다. 마치 소방울이나 시계추처럼 앞뒤로 얼어 맞게 된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1

불교와 수학

76

공시성

김 용 운

링컨과 케네디의 유사점은 카오스적 의미지닌 연기법

1초마다 일정한 양의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 1분 후 물통에 담겨지는 물의 양은 간단한 일차방정식(또는 비례식)으로 쉽게 풀 수 있다. 이와같이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가 결정되는 현상을 '단순계'라 하며, '인과율'이 허용된다고 한다. 한편 일기처럼 기압, 풍속, 온도 … 등 여러 요소가 얽혀서 결정되는 일을 '복잡계' 또는 '카오스적'이라고 한다.

불교철학의 기본인 연기의 이(법칙)는 카오스(복잡계)적인 의미를 지닌다. 복잡계의 현상은 우연으로 대부분 처리되어 왔다. 꿈에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아침에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식의 일들은 흔히 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는 우연히 좋은 일을 연속 체험한 인력거꾼의 비극적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융(C. G. Jung · 1875~1961)은 이와같이 인과율이 성립하지 않는 우연의 일치를 '공시성(共時性 · Syndhronicity)'이라고 이름지었다.

공시성의 보기로 곧잘 인용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일이다. 당선된 해의 끝자리 수가 0이었던 대통령들, 예를들어 해리슨(1840년 당선), 링컨(1860년), 가필드(1880년), 맥킨리(1900년), 허딩(1920년), 루즈벨트(1940년), 케네디(1960년) 등은 모두 재직 중에 사망하였으며, 단 한 사람 레이건만이 1980년에 당선되어 1981년에 암살 당할뻔 하였지만 1~2cm의 차이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 특히 16대 대통령 링컨과 제35대 대통령 케네디 사이에는 더욱 놀라운 일치가 있다〈표 참조〉.

링컨과 케네디에게는 이와같이 많은 일치점이 있으나 그외 얼마든지 다른 점도 있다. 사람에 따라 이 우연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또는 그 반대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 이상의 깊이가 내재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링컨과 케네디 유사점

유사점	링컨	케네디
1	1846년 의회선출	1946년 의회선출
2	1860.11. 6. 제16대 대통령 당선	1960.11. 8. 제35대 대통령 당선
3	암살자는 존 욱스 부스(1838년생)	암살자 리 하비 오스왈드(1939년생)
4	암살자는 남부출신	암살자는 남부출신
5	암살자가 재판전에 사살됨	암살자가 재판전에 사살됨
6	암살후, 극장으로 달아나다	암살후 극장으로 달아나다
7	암살당일 링컨은 경호원에게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으며 그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암살 몇 시간 전에 케네디는 경호원에게 "총으로 포격당한다면 방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8	암살일은 금요일	암살일은 금요일
9	총격부위는 후두부	총격부위는 후두부
10	사살장소는 포드극장	사살장소는 포드자동차공장에서 제작한 Lincoln 차 안
11	링컨부인도 암살현장에 있었음	케네디부인도 암살현장에 있었음
12	링컨 사망후, 그 후임자는 존슨이라는 이름의 남부출신이며 1808년 생 이다	케네디 사망후, 그 후임자는 존슨이라는 이름의 남부출신이며 1908년 생 이다
13	링컨은 열심히 인권운동을 제창하였다	케네디도 열심히 인권운동을 제창하였다
14	케네디의 비서 중 링컨이라는 이름의 비서는 케네디에게 달라스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안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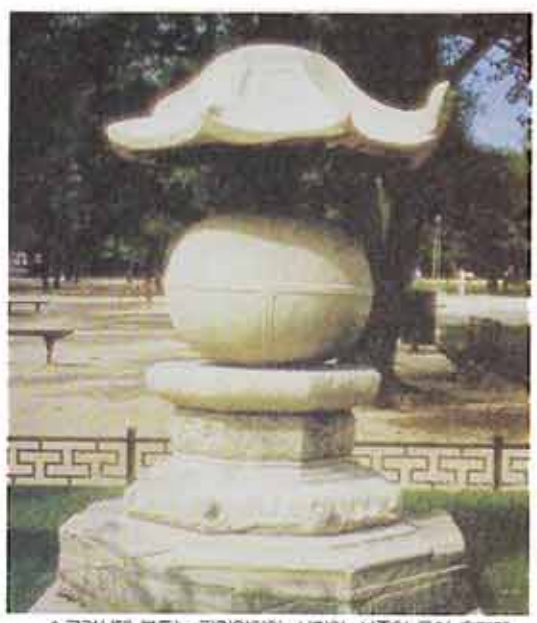
◇팔각원당형 부도의 시조 염거화상탑(국보 104호). 신라 문성왕 6년(844년) 조성. 서울 경복궁 뜰에 있다.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한층 화려해진 부도. 통일신라 시기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57호)이 대표적이다.



◇석종형부도는 고려초기부터 성행해 조선조까지 이른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금강계단 위의 석종형 부도. 고려 선종조에 제작됐다고 추정된다.



◇고려시대 부도는 팔각원당형, 사각형, 석종형 등이 혼재돼 있다. 고려 중기 만들어진 홍법국사실상탑(국보 102호)은 둥그란 탑신부와 옥개석 일면의 비천상조각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부도

'수행의 결정'과 '불교조각'의 어우러짐

生과 死의 가르침 담겼다

건축 · 조각 · 회화 등 종합예술의 극치
'산은 산 물은 물' 圓에 담은 성철스님 부도

팔각원당형→사각형→석종형 등 시대별 양식 변화
고달사지부도등 8개 '국보', 지증대사적조탑등 42개 '보물'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로 응축시킨 진리를 상징하는 원. 그 원을 받들며 무한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등을 맞댄 반구. 성철스님의 부도는 이렇게 형상화되어 열반5주기에 맞춰 8일 해인사에 모셔졌다. 고승들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는 팔각, 사각, 종형 등이 대다수인데 스님의 검소했던 삶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간결함과 절제의 미가 돋보인다. '산은 산 물은 물'의 가르침을 원(圓)에 담은 성철스님의 부도는 여느 부도와도 다른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해내고 있다.

스님의 부도가 위치한 일주문에서 1백여m 떨어진 곳에는 해인사를 거쳤던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 20여기가 모여있는 비석거리가 있다. 각양각색의 고아한 자태를 뽐내는 부도들은 역사 속의 변천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성철스님의 부도와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사찰에 들어서면 자그마한 항아리모양 부도에서부터 화려한 장엄이 눈부신 탑형 부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옛 고승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부도밭이다. 부도밭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있는 부도에는 대개 탑비도 건립되어 있어 스님의 행장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문화상까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건축·조각·회화 등을 종합한 예술의 극치인 부도는 전체적으로 균정한 조형미와 표면 장식의 정교한 조각 등이 뛰어나 석조미술 가운데 당당한 하나의 주류를 이루며 당시의 문화적 양식까지 알려주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경전상에 나타난 최초의 사리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8개의 탑이다.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인도의 산치대탑은 나중에 석종형 부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전래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도는 선종 전래 이래 선사의 사리 존숭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져나간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도는 원광법사 혜숙스님의 부도이고 백제는 혜현스님의 부도로 나타나는데 두 부도 모두 7세기경 건립된 것으로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도의선사 부도로 추정되는 진전사지 부도(보물 439호)로 사각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이 어우러져 있다. 건립연대가 확실한 최고(最古)의 부도는 문성왕 6년(844)에 건립된 염거화상탑(국보 104호)으로 팔각원당형 부도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9세기에 이르면 팔각원당형 부도들이 선보이고 고려시대부터 석종형이 뒤를 이어 유행한다. 신라말기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조성된 부도에는 운룡무늬가 새겨진 것들이 많고 사천왕 가릉빈가 연화 비천상 등의 유려한 조각들이 화려함을 한층 더한다.

우리나라 전시대를 통하여 가장 수려한 부도로 알려져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57호)에는 곧 날아갈 듯한 비천상과 가릉빈가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연곡사 동부도(국보 53호)는 정교한 조각이 일품인데 중대석의 팔부신중 조각은 불법 수호의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듯 힘이 넘친다.

이외에도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보물 157호),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보물 38호) 등이 팔각원당형 부도들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들이다. 고려시대까지 석종형과 더불어 조성되던 팔각원당형은 고려말 조성됐던 수종사 부도를 최후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팔각원당형이 아닌 경면을 사각으로 잡은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국보 101호)과 정토사 홍법국사실상탑(국보 102호)이 유명하다. 현묘탑은 탑신 가득 비천상 비룡상 외에도 옥개석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등 다양하고 정교한 조각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이러비아 양식이 엿보인다. 신륵사의 보제존자부도와 같은 석종형은 인도 석탑의 복발형(覆鉢型)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석종형부도는 신라 말기에 나타나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통도사 금산사 안심사 등을 비롯하여 개성 부근의 회암사와 불일사의 지공부도 등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특이한 양식의 전개없이 팔각원당형과 석종형 등이 혼합되어 이어진다. 팔각원당형으로 탑신부에 배흘림이 독특한 창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국보 197호)은 옥개석에 귀꽃이 만발해 있다. 둥근 탑신에 운룡무늬가 가득 새겨진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 후기 석조물로는 뛰어난 형식미를 자랑하는 연곡사 서부도(보물 154호) 등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부도들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부도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것은 고달사지부도, 연곡사 동부도 등을 포함해 8개이고 보물은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 등 42개에 이른다. 세련된 선과 간결한 표현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낸 성철스님의 부도가 석종형에 이은 현대의 새로운 양식으로 자리잡는 것은 아닐까.

황수영박사(전 국립중앙박물관장)는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성철스님 부도탑에 대해 "옛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감각에 맞게 표현해 현대적 문화재로 재창조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역사 속에서 보여졌던 우리 나라 사리탑의 종류가 다양했던 만큼 앞으로도 불교조각의 한분야로서 발전·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8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성철스님 사리탑 건립회향법회에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청하·성수·일타·녹원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한 양식없이 전대에 대한 모방으로 이어진 조선시대 부도 가운데 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는 탑신부와 기단석에 새겨진 운룡무늬가 화려하다.

성철스님 사리탑 설계 최재은씨

"올곧은 수행정신-자비심 현대적 조형미로 표현"



"큰스님의 청빈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현대적 조형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철스님 사리탑을 설계한 재일 설치미술가 최재은(45)씨는 스님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사리탑에 담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모티브를 따온 사리탑은 두 개의 반구 위에 한 개의 구(球)를 얹어 3.5m 높이의 3층탑 모양을 하고 있다. 돌을 소재로 했으면서도 부드럽고 예민한 선을 중요시해 중량감을 느낄수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과 구 그리고 사각형등 기하학적 무늬들이 서로 보완하거나 때로는 긴장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조화감을 주고 있어 새로운 부도 개념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씨는 성철스님 사리탑 공간 자체를 '나를 찾아가는 선(禪)의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죄 무게 달아 천당 · 지옥 결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⑳



◇무위사 지장시왕도(부분). 1710년경.

죄의 측정

이승에서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면 죽어 지옥에 간다고 한다. 종교에서 이야기되는 지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러한 것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 가를 일깨워 나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도록 하는데 그 함뜻이 있다.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을 비롯 각 저승의 왕들이 생전에 지은 죄를 샅샅이 밝혀내는데 생전에 지은 죄가 업경대에 그대로 나타나거나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그 죄의 양상과 무게에 따른 벌을 받게된다.

왼쪽 그림은 무위사의 지장시왕도의 부분으로 죄인의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은 천사 성 미카엘이 천상의 문앞에서 한 영혼을 놓고 악마와 심판이를 벌이고 있는 그림이다. 그 영혼의 착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저울바구니에 담아 무게를 다는 모습인데 어느쪽 무게가 더 나가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된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신 미구엘 성당의 제단그림. 13세기. 스페인의 수리구 메롤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14)
沙門問佛 何者爲善 何者最大
사문문불 하자위선 하자최대
佛言 行道守眞者善 志與道合者大
불언 행도수진자선 지여도합자대

한 사문이 여쭈었다.
'무엇을 선이라 하며 무엇이 최상승법 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팔정도를 따르고 항시 참됨을 지키는게 선이니 뜻이 그러하면 도와 계합하여 높고 크리라.'

(15)
沙門問佛 何者多力 何者最明
사문문불 하자다력 하자최명
佛言 忍辱多力 不懷惡故 兼加安健
불언 인욕다력 불회악고 겸가안건
忍者無惡 必爲人尊
인자무악 필위인존
心垢滅盡 淨無瑕穢 是爲最明
심구멸진 정무하예 시위최명
未有天地 逮於今日 十方所有 無有不見
미유천지 태어금일 시방소유 무유불견
無有不知 無有知聞 得一切智 可謂明矣
人以愛欲交錯 心中濁興 故不見道
인이애욕교착 심중탁흥 고불견도
汝等沙門當捨愛欲 愛欲垢盡 道可見矣
여등사문당사애욕 애욕구진 도가견의

사람이 애욕을 품으면 도를 알 수 없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을 휘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여다 보아도 제 얼굴을 비춰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욕에 뒤엉키게 되면 마음이 매우 혼탁해져 도를 알 수 없다.
너희들 사문은 마땅히 애욕을 버려야 한다.
마음에 애욕의 때가 없어야 도를 볼 수 있느니라.

(17)
(佛言)夫見道者 譬如持炬入冥室中
(불언)부견도자 비여지거입명실중
其冥卽滅 而名燭存
기명즉멸 이명독존
學道見諦 無明卽滅 而明常存矣
학도견체 무명즉멸 이명상존의

'무릇 도를 안다는 것은 비유하여

팔정도 따르며 참됨 지키는게 禪
애욕에 뒤엉키면 도를 알 수 없다

무유부지 무유불문 득일체지 가위명의

한 사문이 여쭈었다.
'무엇이 가장 힘세며 무엇이 가장 지혜롭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인욕이 가장 세다. 악한 마음 품지 않으므로 겸하여 편안하고 건강하며 그에겐 악한 마음이 없으니 사람들이 반드시 존경한다.
마음의 때가 깨끗이 사라져 더러움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지혜롭다.
천지가 벌어지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방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게 없고 알지 못하는게 없고 듣지 못하는게 없어 일체지를 얻었으니 이를 일러 가장 밝은 지혜라 한다.'

(16)
(佛言)人懷愛欲 不見道者
(불언)인회애욕 불견도자
譬如澄水 致手攪知 衆人共臨 無有覩
비여징수 치수교지 중인공임 무유도
其影者
기영자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 밝아지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 진리를 알면 무명은 곧 사라져 항시 밝은 지혜만 있게된다.'

(18)
(佛言)吾法 念無念念 行無行行 言無言言 修無修修
(불언)오법 염무념념 행무행행 언무언언 수무수수
會者近爾 迷者遠乎
회자근이 미자원호
言語道斷 非物所拘 差之毫釐 失之須臾
언어도단 비물소구 차지호리 실지수유

'내가 가르치는 이 법은 얽매이는 생각없이 생각하며 얽매이는 의도없이 행하고 얽매이는 뜻없이 말하고 얻는다는 생각없이 닦는 것이다.
이를 아는 자는 가까이 이를 수 있고 미혹한 자는 아득하리라.
말로 이를 수 없고 경계마다 걸림이 없으니 티끌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찰나간에 길을 잃고 만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참고 기다릴줄 알아야

천운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약력
- 1932년 전북 고창 生
- 47년 월정사서 지암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58년 선운사서 지암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60년 선운사 도솔암 대교과 수료
-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수선안거
-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주지 역임
- 現 광주 향림사에 주석
- 저서 〈알고가는 길〉 〈끝없는 행원〉 등 다수

광주 치평동에 자리를 잡고 향림사라 이름지어 부처님 전에 향 올리며 살아온 지 어언 30여년이 되지만 출가수행자의 생활이란게 별다른게 있겠어요.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간에 남의 일 간섭치 않고, 그저 나의 몸과 마음에 밴 악습이나 고쳐서 부처되는 길에 도움을 얻고자, 남의 단점도 스승 삼고 남의 장점도 스승 삼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자면서 평상심으로 지내고자 합니다. 늦게나마 복지에도 관심을 쏟다보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틈나면 참선하고 어떻게 하면 한사람에게라도 불법을 더 알릴까 고민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입니다.

내게 출가란 단호한 결심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어린아이의 사중 생활이 자연스레 옮겨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때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 일본말만 배워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다녀, 중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집안에서 중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완고한 한학자여서 한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야지 무슨 '어문' 공부냐고 학교를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후 나는 당대 한학자였던 김상숙 선생에게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꼽 친구들이 중학교에 다니는걸 보고 서당 보다는 학교에 가고 싶어 안달했었습니다.

공부가 하고싶어 집을 뛰쳐나와 정읍으로 갔는데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 시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몇몇 비구니 스님들을 만나, 스님들을 따라 찾아간 사찰이 한영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던 내장사입니다. 내장사에서 한영스님을 처음 친견했는데 당시 여든이 넘으셨던 한영스님은 내가 내장사에 오게 된 연유를 말하자 중학교에 보내주기로 약조하시며, 그 전에 스님에게서 글을 배우며 시봉을 한 두 해 정도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래 한영스님을 시봉하면서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스님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참으로 천진무구하셨어요. 당시 스님은 내장사 아랫 마을로 마실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당연히 시자도 따라 다녔지요. 한영스님의 행동은 단 세가지였어요. '앞만 보고 다닌다' '아무데나 앉아서 먹는다' '있는대로 내어준다' 이것이 전부죠. 오죽했으면 아랫 마을 장사치들이 장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을 매번 예워쌌겠습니까. 스님의 덕담도 좋아했지만,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팔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더욱 생각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 혼자만의 영화를 위해 기를 쓰고 살면서 남의 고통은 나몰라라 해요. 부모형제도 모르고, 일가친척도 모르고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선호해 인선(仁善)을 무시하고, 물질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삐뚤어진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마저 짓밟힌 상태에서 인명을 경시하는 풍토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 아무리 물질을 자기 앞에 쌓아놓아도 정신은 항상 혼란스럽고 일은 고단하며 소득은 적다고 불만이지요. 베풀면 또 채워지고 베풀면 또 채워지는 이치를 모르고들 삽니다.

"남의 단점을 스승삼고 남의 장점도 스승삼아 몸과 마음에 밴 악습고치면 선한마음 선한행동 드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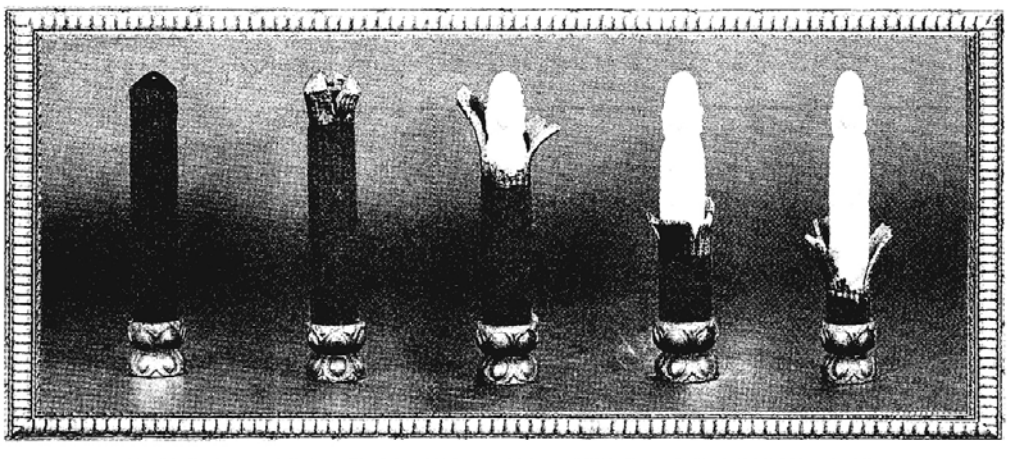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불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가짐이나 행동은 부처님 제자답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언제나 많은 복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해달라'는 기복 일색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고통이나 아픔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영화를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은 '나는 언제나 잘 살아보나' 하는 쪽으로만 기울어 점쟁이를 찾고 사주 관상쟁이를 찾아다니며 아까운 금전을 낭비하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돈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거나 부모나 형제를 위안하는데 써 주면 더 좋을 일을 왜 모를까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느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에 젖어 산다면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지나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못배운 사람들은 못배워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요행만 바라고 있으니 세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욕심은 또다른 욕심을 낳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에 뜻을 두지 않지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본위가 아니라, 상대를 본위로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희생과 봉사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교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시봉든지 1년쯤 후 한영스님이 입적하셨어요. 한동안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를 면치못했던 나는 월정사에서 지암스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지요. 한

■ 의장등록 : 98-19350
■ 상표등록 : 98-28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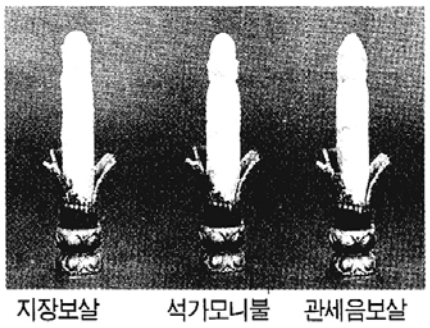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한 후에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내부적으로는 타고 남은 재가 흰색법상의 부처님 형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뜻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 즉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법리와 상통합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석가탄신일, 백중, 법회 및 각종 기념행사와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향입니다.
향이 타는 도중에 부처님의 법상이 출현하고 부지불식중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 · 경기/대전 · 충청남,북/ 광주 · 전라남,북/
부산 · 경남/대구 · 경북/강릉 · 강원/제주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근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근

큰스님 수행한담

풍성한 열매 얻게돼요"



◇ 1980년 3월 쌍계사 보살계 계사로 참여한 천운스님(앞줄 맨 오른쪽).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욕심은 또 다른 욕심 낳는 법 불자는 만족함을 알아야해요"

영스님과의 인연으로 일주문을 들어섰다면 지암스님과의 인연은 내가 '무(無)'자 화두 정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정식 사미계를 받도록 이끌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스님의 가르침은 내 수행의 발판입니다. 한영스님은 항상 "나의 허물을 고치는 수행인이 될 지언정 남의 수형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고 지암스님은 "수행인은 일체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틈나는대로 참선과 〈금강경〉 독송을 권유하셨죠. 이것은 이곳 향림사 내의 가풍이기도 합니다. 지암스님은 '1일 4독'을 어김없이 지키신 분입니다. 출타시에는 경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버스나 기차 속에서도, 또는 길을 가는 도중에서도 시간에 맞추어 독송하되 장소를 가지리 않았습니다. 스님이 실천해 보이신 그 진지함과 엄숙함은 그 자체가 신앙이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지암스님이 열반하신지 29년이 흘렀지만, 13년여를 시봉하면서 귀동냥을 하게 된 인연으로 나도 20세 전에 〈금강경〉을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암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에서 '일체가 공(空)하고, 혜(慧)가 공하고, 공혜(空慧)로써 체를 삼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늘 수행의 불꽃을 피워준 핵심이었습니다.

6·25전쟁이 터져 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요즘에는 '군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군승이란 있지도 않았어요. 단지 미군의 영향을 받아 목사들만이 병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한 곳이 2군 소속이라고 기억되는데 이 부대에서는 매주 수요일 목사를 데려다 정신교육을 실시했어요. 힘든 군대생활이다 보니 기독교인이 아닌 병사들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휴식, 그리고 예배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한영·지암스님 밑에서 공부하며 절밥을 먹었던 나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불교라는 전통종교가 있는데 정신교육을 목사만이 맡다니 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다음주 정신교육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아멘'하고 외칠 때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바하'라고 소리쳤지요. 2군 사령부를 들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2군 사령관 강문봉 중장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글쎄 한영스님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정신교육 시간에 목사뿐만 아니라 스님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잘 끝났습니다. 돌아가신 한영스님의 덕을 본 것입니다.

지암스님을 여의고서 나는 조계산 토굴, 도갑사·대흥사·선운사 선원을 전전하며 10여년간 참선을 했고,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 상순·호산스님에게서 대교과를 배웠습니다. 또 내 공부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널리 펴고 알리는 포교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힌다는 생각으로 포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나는 대부분 조석(朝夕)으로 두 차례 참선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고 군부대며 교도소를 방문해 포교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도 따지고 보면 지암스님에게서 배운 것이지요. 참선을 올곧이 실천하는 것은 스님이 가장 강조한 수행자의 도리인 까닭이고, 대중들의 세간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교가 산중에만 있지 말고 도시와 농촌으로 나와서 교화사업을 활발히 펴야 한다"는 지암스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교란 종파·문중·승속을 떠나 불자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불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승가에서는 복을 짓고나서 수행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임을 깨닫고 이제까지의 안일무사에서 벗어나 전법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학체계를 잡아 철저히 교육시키고, 여기에 포교와 복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실천은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복지에 있다고 볼 때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복지를 중요시하는 복지시대로 가는 만큼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기생활을 수행의 첫 길로 삼아야 합니다. 즉, 마음에서 육체에서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념, 욕망, 삼독심을 이겨내는 인욕바라밀을 행해야 되지요. 성불하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이 정도는 능히 이겨내야 부처님 제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고 부단히 가꾸어야 수확하듯 어려움을 참고 기다릴줄 알아야 뜻한 바가 이루어 집니다.

남의 고통 나몰라라 하니 세상 더 각박 있는대로 다 베풀면 또 채워지는데…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IMF라는게 어떤 마구니인지는 몰라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곳을 찾는 보살이며 거사들의 일상 대화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국민 전체가 먹고 쓰고 입는 것을 줄이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들 왜 IMF 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선운사 도솔암에서의 정진이 생각납니다. 생사(生死)를 담보로 한 정진이었죠. 면벽 기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먹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만을 뚫고 사방 벽을 판자로 막았던 방에서 수 개월간을 '무'자 화두만을 안고 살았습니다. IMF를 화두정진만으로 이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분수껏 산다면, 가진것이 별로 없더라도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스님의 본분이 수행과 포교라면, 재가자의 본분은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IMF를 이기는 한가지 방편은 될 수 있겠지요.

불교적 세간 살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 법대로 검소하고 소박하고 아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실천의 으뜸은 나보다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지금보다 못한 때를, 예전의 어려운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칠불통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게 곧 불교다'라는 뜻이지요. 부처님이 경계하도록 가르친 악(惡)에는 우리들의 검소함을 방해하는 '삼독'이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이 이 게송만 재대로 실천해도 더 이상 고(苦)를 겪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자는 말이 없어야 하는데…. 항상 쓸모 있는 말,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승(僧)과 속(俗) 어느 곳에서든지 쓸데 없는 망어·양설·악구 등의 말들이 시끄러운 문제의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성 외에는 다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수행의 결과가 훌륭히 나타날 수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비를 실천하세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지혜이니 항상 닦아 밝은 지혜를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유 홍 근

〈강서구청 자원봉사계장〉

매일 업무 시작전 10분동안 좌선 주인공에 맡기는 삶 언제나 평안

나의 하루 일과는 염주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 출근시 염주를 목에 걸면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 속 깊이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면서 출근길에 오른다. 다니는 직장이 집에서 걸어 20~30분 거리에 있다. 걷는 길에 산책로가 있는 공원도 있어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그대로 참선이리"는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마음 속으로 항상 관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업무시작 전 10분 정도 의자에 앉은 채로 좌선을 하고, 일체를 주인공의 시자로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함이 없이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직장의 중요한 계획이나 행사가 놀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 되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럴때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모든 생활이 수행의 연속이라는 것을.

사량적인 계획이나 행동보다도 주인공 그 자리에 맡겨가며 단지 심부름만 할 뿐 그 결과에는 관여치 않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보니 힘도 들지 않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면서 마음의 작용이 무한함을 알게 되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선원에 가는 것이 생활화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할 정도로 나의 생활은 직장과 집 그리고 선원으로 이어진다. 불자로서 신행생활의 기본이 되는 정기적인 법회활동은 한층 규칙적이고 생기있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런 나의 생활로 옛날 그렇게 유흥을 즐기던 모든 습들을 녹여 버린 것 같다.

이제는 나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내면의 참나와의 무한한 대화로 기쁨을 느낀다. 요즘 어려운 경제난으로 사회 어느구석도 편안하고 조용한 곳이 없는 것 같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철밥통이라고 하던 우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시절 좋던 때 같으면 내 나이정도면 한참이고 장년이 61세까지 보장되었던 것이, 어느새 50대 중반이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야단들이다. 동료 또는 선배들이 명퇴, 구조조정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분들이 하나같이 이 나이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걱정이 태산같은 것이다. 직위가 높건 낮건 간에 직장을 떠나면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기에 막막하고, 그저 세월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인생 장년 이후 생활태도의 대부분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길이 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여생에는 불법수행의 길을 오로지 달려가고 싶을 뿐이다. 이런 인생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다.

나는 인도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느 책에서 본 글귀가 생각난다. 서양사람들은 퇴직하면 눈에 총기가 없고 그저 세월만 보내기 때문이 육신이 힘없이 축 처져 있다고 하나, 인도 사람들은 직장을 은퇴하면 몸은 쇠약해도 오히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빛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은 자기의 영원한 길, 즉 마음 수행의 길이 열려 있고 가야 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우주만물 중에 영원한 진리란 마음의 본래 자리 밖에 없다고 무수한 옛 조사와 선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요, 생활이 불법이라고 한다.

지금 내 나이 지천명인 50을 넘었다. 이생을 가다듬으며 참다운 삶을 위하여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살아갈 뿐이다. 〈끝〉

녹수청산이 불교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통 찻집 '녹수청산'이 종전의 운영형태를 바꿔 불자님들을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앞으로는 불교 신행단체의 공부모임이나 작은 법회, 문화강좌, 세미나 개최 등의 경우 불자라면 누구나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사용을 원하실 경우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께서 별도의 서비스(음료제공, 장내정리 협조 등)를 원하실 경우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약간의 법보시금을 받아 이를 군법당, 교도소 등에 보내는 신문발송비용으로 사용케됩니다.



한마음 불교사랑 운영자 합장

이용안내

▶이용가능한 시간
월~토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문의 및 예약접수처
전화 ☎ 02)736-3782

▶위 치
견지동 110-33 한마음불교회관내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일시 수용인원
50 ~ 70명

미망의 어둠 밝히는 진리의 빛



◇태양의 불꽃같은 불상의 광배는 진리와 광명 지혜를 상징한다. 부석사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9)

불

지심귀명례 서건동진 급이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至心歸命禮 西乾東震 及我海東 歷代傳燈 諸大祖師 天下宗師 一切微塵數 諸大善知識)

"서천축국인 인도와 동쪽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법의 등불을 이어받으신(歷代傳燈)' 큰 조사님과 천하의 으뜸가는 스승님,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훌륭한 선지식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례하옵니다."

〈예불문〉에서 일곱번의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중 여섯 번째인 위의 구절은 부처님께서 열반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를 이루신 훌륭한 스승들을 받드는 귀명례이다. 이 등불에서 저 등불로 불을 옮겨 붙이듯 훌륭한 선지식들에 의해 불법이 전해 왔다는 뜻이다.

"진리 등불삼아 의지하라" 부처님 유촉

연등 마음 밝히고 오탁악세 정화 발원

부처님의 진리는 흔히 등불에 비유된다. 〈대반야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등불이 빛을 밝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미망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에서 기인한다. 즉 진리를 상징하는 '불'이 고도로 상징화 된 것이 법등(法燈)·전등(傳燈)의 개념이다.

진리를 상징하는 '불'은 영원한 빛과 광명을 통해 사바세계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인 태양은 '진리 자체'이자 진리를 드러내는 '여래'로 비유된다. 불에서 나오는 빛은 우주공간에 충만한 지혜를 상징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 중의 하나인 불은 '열기'를 뜻하는 것으로 소우주인 인체에서는 체온과 같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우주에서는 태양처럼 모든 물체를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작용을 한다.

진리의 빛이 가득 찬 궁전이란 뜻으로 연화장세계의 부처님인 비로자나불이 본존으로 모셔진 '대적광전(大寂光殿)'은 크나 큰 고요의 선정과 지혜의 빛을 통해 깨달음과 진리의 세계가 결처져 빛이 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불자들은 법당에 들어서면 촛불을 밝힌다.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고 무명을 타파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원을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에서 명상에 들어, 7일째에 새벽 별을 보고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얻은 것도 지혜의 빛으로서의 '불'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새벽 별은 무명을 멸하고 '밝음(明)'에 도달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불'은 정반대의 개념인 '번뇌'를 뜻하기도 한다. 열반(涅槃)의 원어인 범어 니르바나(nirvana)는 '번뇌의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를 가리킨다.

■석등

캄캄한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진리로 비추어 불성을 밝혀 주는 법등은 석등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석등의 8각은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등의 8정도(正道)를 상징한다. 또 8각의 기둥이 위로 솟음은 구도자가 8정도와 한 몸이 되어 진리의 세계를 향해 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활짝 핀 연꽃은 8정도의 완성을 뜻하며, 4개의 화창(火窓)은 고·집·멸·도(苦集滅道) 4제(諦)의 법문을 상징한다.

■연등(燃燈)

불전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부처님의 덕을 기리고 대자대비한 부처님께 귀의하려는 의미를 담은 것이 연등이다. 〈법화경〉에서 "등공양의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듯이 연등은 무명의 오탁악세를 밝힌다. 〈현우경〉의 '가난한 여인의 등불(貧者一燈)'이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다. 〈시등공덕경〉 〈법화경〉 등에서는 등명(燈明)의 한량없는 공덕을 설하고 있다. 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을 관등(觀燈) 또는 간등(看燈)이라고 한다.



◇삼계의 번뇌를 끊어 무위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비의식.

■광배(光背)

진리와 광명을 상징하는 태양의 형상을 조형으로 재구성해 나타낸 것이 불상의 광배다. 후광(後光), 신광(身光), 광염(光焰)이라고도 하는 광배는 불상과 불화 등의 배면에는 광명으로서 불꽃이 표현되어 있다. 〈대지도론〉에는 "불신의 네 주위에는 각각 1장씩 되는 광명이 있는데 이것은 32상의 하나이다. 이름하여 장광(丈光)의 상이라고 한다"고 설해져 있다. 초기 불상의 광배는 다소 도안화되기는 했으나 불꽃 모양을 잘 표현하였는데, 점차 인동 당초문 형식으로 바뀌어졌다. 머리 위의 원광은 두광, 등뒤의 타원형광은 신광이라 한다.



◇불성을 밝혀주는 법등이 형상화된 석등. 화엄사 석등(국보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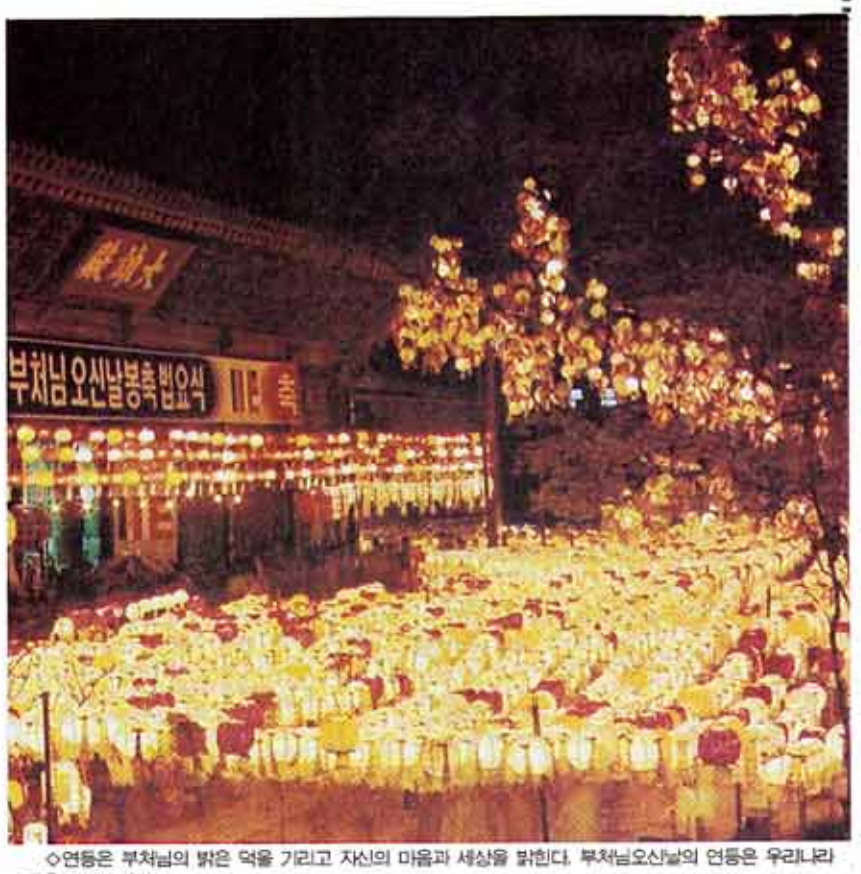
■다비

스스로 몸을 태움으로써 분별심을 없애고, 삼계의 번뇌를 끊어 공적(空寂), 무위(無爲)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회신멸지(灰身滅智)'라고 한다. 스님들의 화장(火葬)인 다비의식은 색신이 재가 되고 분별심이 공적에 든 회신멸지의 경지에 듦을 의미한다. 최근 소신(燒身) 입적한 태고종 승정 충담스님처럼 수도자가 자진해 소신공양(燒身供養)한 사실도 많다. 입적한 스님을 화장하면 그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이 때 재는 번뇌와의 단절을 표상한다.

■달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나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책이다. 이처럼 달 그림자(月印) 또는 달빛은 불법을 상징한다. 달은 밝고 원만하되 한 모습을 고집하지 않기에 원융자재(圓融自在)한 달은 불교적 이념 구현을 상징하게 되었다. 강이나 바다 등 물에 비치는 달은 어느 곳에서나 같은 모습, 같은 밝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구여일한 진리의 보편성과 진리가 구석구석에 두루 미쳐 인용을 상징한다.

또 달은 해와는 달리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점으로 인해 무명, 즉 불교적 무지를 벗어나게 하는 힘-유명(有明)을 상징한다.



◇연등은 부처님의 밝은 덕을 기리고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오신날의 연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이다.

■'불타는 집'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번뇌에 쌓인 사바세계를 '불타는 집(火宅)'에 비유하셨다. 〈법화경〉에서 "삼계에 편안함이 없음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三界無安 猶如火宅)"고 하시고, 이 삼계의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선포하셨다. 부처님은 불타는 집 속에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는 아이(중생)들을 급히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버지(부처님)가 취하는 방편(양·사슴·소가 끄는 놀이용 수레) 이야기인 '화택유(火宅喩)'를 설하셨다.

■화탕지옥(火湯地獄)

번뇌의 상징으로서의 '불'은 화탕지옥(火湯地獄)을 통해 죄악의 과보가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계를 파하고 악을 범하고 그 죄를 갚추는 자는 타오르는 불길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니을 것이다. 지옥의 고통은 그의 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까닭이다"는 〈아함경〉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뜨거운 가마솥에 지옥의 옥졸들이 죄인을 잡아 장대에 꿰어 솥 속에 집어넣는다. 죽을 지경의 고통으로 까무러치면 다시 살아나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실로 무서운 지옥의 형벌인 화탕지옥은 과계와 탐욕의 삶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바닥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접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말·행·뜻 자기 마음자리서 다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나쁜마음 없이 지극하게 하면 자신과 세상 법계가 다 알아요

여러분과 도반으로서 이렇게 끝없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찰나에 헛을 수가 있겠지만 영혼의 근본 뿌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길 가끔 합니다. 콩씨는 콩싹을 면치 못하고 콩싹은 콩씨를 면치 못한다구요. 이 세상 이치가, 일체 만물만생의 이치가 다 그러하거늘 때로는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죽는 게 원통하고, 사는 게 복잡하고 외롭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린애 적이 있었고, 또 젊었을 때가 있었고, 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젊었을 땐 젊은대로 또 그렇게 살아왔고, 나이가 좀 들면 드는대로 부모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만 될 건지, 내가 아무 때에는 참 그렇게 안해야 될 것을 그렇게 했어! 하는 생각도 나고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그 뜨거운 정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가 돼서 늙어보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젊은 혈기로써 살아나갈 때는 그런 걸 다 일일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지혜가 생기고, 철도 나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은혜를 갚는 효도와 교훈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만 끝없는 세월을 빛이 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심 걱정도 생기겠지요.

예전에 그 무슨 백화점인가 하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욕심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죠.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빚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좀 더 남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모두 내 아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상대를 돌 아니게 생각했을 때는 잘 베풀어 줄 수가 있고, 잘 리드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상대방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이 멀고 귀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훌딱 다 없애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도반으로서 걸림이 없는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찰나에 인간의 삶이 다해갑니다.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씨앗이라는 것은 종자가 천차만별이며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종자라는 그 두 글자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차원이 큰 콩씨다, 아니면 아주 작은 콩씨다 이렇게도 생각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콩씨를 큰 콩씨로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덮을 수 있는 종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조그마한 종자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 뿌리에 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놓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놓을려고, 놓을려고 애를 써도 놓아지지 않습니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래 콩씨와 콩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콩씨가 콩싹으로 화하려면 수분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합니다. 가운데 부분들은 다 놔두고라도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자기가 싹으로 화합니다. 싹으로 화하는데 그 싹이 어디 가서 내 콩씨를 찾겠습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찾으러 가겠습니까? 형상에게 내 뿌리, 씨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름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스님들의 고깃덩어리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하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콩씨만은 바로 자기 몸뚱이를 버려서 콩싹을 만들어서 그 싹이 화하게 되면 또 콩씨를 열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닌 수백 수천 개 씨를 맡입니다. 그러니 다 먹이고도 그 종자는 남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익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살아나가면서 모두 남과 나와 둘 아니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중생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들어도 같이 듣고, 봐도 같이 보고, 사랑을 해도 같이 하고, 항상 같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생각하자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니까요. 그런 자기 중심의 막대기를 믿지 않고 어딜 믿습니까?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허밍하게 그냥 저 구덩이에 산 채로 묻히게 되는 것도 콩씨가 콩싹을 다스리고 나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장을 봐오는데 그날따라 거기 가기 싫어서 딴 데로 갔다고 합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그건 콩씨와 콩싹이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를 자기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기 뿌리만이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선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뚱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거기에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한테 콱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리로 가면 죽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건 왜냐?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있어서 자기 몸뚱이를 끌고 가기 때문이죠. 즉 자기 몸뚱이자 시자며, 시자이자 바로 자기입니다. 누구라도 '나는 그렇게 잘못되는 길을 걷지 않겠다' 해서 걷지 않아지는게 아닙니다.

육신은 배우처럼 역할만 다할 뿐 마음속 주인이 이몸 끌고 다녀요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의 차원에 따라서 이 몸뚱이 속에 악업, 선업 그리고 그 중에 유전성 · 인과성 ·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다섯 가지가 주둔해 있다가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례차례로 나오는데다 새로운 걸 되입력하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면서 또렷하게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심봉이 보이는 거죠. 즉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이 자기 몸뚱이를 자꾸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잘못된다 싶으면 술을 먹기 싫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또 술 마실 일이 있었는데도 그 술을 안마셔도 되게끔 급한 일이 생기도록 만들기도 하구요. 여러가지 문제입니다. 이 자기 주인공이란 어떻게 다 감사함을, 어떻게 감사하다고만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이지 말 한마디 못하도록 감사함이, 그 감사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해서 '자아 부처'라고 했고, '자성 불'이라고 했고, 부처 아님이 없다고 한 도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뚱이는 항상 영화 배우들과 같아서, 자기가 소임 맡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하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어떤 가난하고 나쁜 배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배역대로 해냅니다. 그건 왜냐, 막이 내리면 끝이니까 끝인 줄 알고 되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배역을 맡아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는, 막이 내리면 끝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잠시 배역을 맡았을 뿐이니까 자기 맡은 바를 그렇게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배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역을 맡았으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지극하게 나쁜마음 갖지 말고 모두가 내 스승으로 알고 아만을 떨지말고, 있다고 거만 부리지 말고,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항상 지극하게 진실하게 해나간다면, 우주 법계에서 다 알아요.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것도 우리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우주법계가 알고 있는 것을요.

그렇게 세상이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보지 않는 줄 알고, 듣지 않는 줄 알고, 남의 흉도 보고 또 말없이 말없는 도둑질 아닌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만좌(滿座)중에 다 보고 있는데서 훔쳐가는 것과 같고, 만좌 중에 있는데서 흉하는 것과 같고, 만좌 중에 앉은 데서 모두 이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갖은 악의적인 일들을 행과 말과 뜻으로 다 하죠. 그러나 그 마음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다 되구요.

나는 그래서 저 허공도 없고 세상도 없는 가운데 작대기로서 스승을 삼고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 작대기인 스승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처님 모셔놓은 데 가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높기는 뭐이 높아, 당신이 오히려 불쌍해서 죽겠어. 당신은 적든 크든, 벌레든 사람이든, 돌이든 흙이든 모두의 심부름군과 같이, 항상 밑을 씻어주는 심부름군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뭐가 높아. 이 도리를 알게 한 것도 당신인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로 다 하리까?"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안다고 자만 갖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마음의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걸 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길을 가다 나무 한그루 돌 하나를 봐도, '허허, 저런 모든 생명들이 아니고 저런 모습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저런 게 있는 줄 알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을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놓아지지 않는다' 이런 거, 왜 놓아지질 않느냐. 항상 말하듯이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고, 더불어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움죽거리고, 자도 같이 자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고 앉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러는게 누구 덕으로 그렇게 됩니까? 모두 여러분의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뭉쳤기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뭉쳤기 때문에, 열 손가락이 다 들어가야 들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 있다면 이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걸 못 들게 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그 한 몸뚱이 속에 세계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위 나라가 있고, 장 나라가 있고, 심장 나라가 있고, 척추 나라가 있고, 척수 나라가 있고, 식도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가 많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2)

'나' 하나 죽는다면 아무것도 붙을자리 없다.

내세울 게 없어야 벗어나지 내세울 게 있다면 벗어 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첫째도 몰락 놓아야 하고 둘째도 몰락 놓아야 한다. 다 놓는다는 것은 내세울 '나'가 없다는 뜻이다.
다 놓아야 윤회의 원통을 벗어난다. 하나조차도 세울 게 없을 때 도는 있다. 나라고 세울 게 없을 때 도가 있다. 그렇게 내세울 게 없기에 오히려 둥두렷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 '나의 것'이라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러자면 일체 경계를 둘로 보지 말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 버리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인공은 비유컨대 뜨거운 용광로와 같아서 거기에 던져 넣은 모든 무쇠, 잡쇠, 고철이라도 녹여 버린다.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 낸다. 변치 않는 영원한 순금을 만들어 낸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잘했다, 내가 주었다, 내 것이다, 나이다 하는 아집·아만·아상·욕심을 싹 빼어 놓아라. '나'가 들어가면 이미 걸린 것이니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해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제대로 놓는 게 된다. 그쯤 되어야 거기에서 생수 맛을 볼 수 있고 부와 자가 상봉을 할 수 있다.
유위법에 한 치라도 착을 두었다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마저도 놓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이다.

참된 수행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없다. 중생으로서의 자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중생인 나로서 세상을 보지 않고 나의 근본인 참 나로서 세상을 보며 그 입장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에 자기를 세우려는 것은 마치 천체의 운행을 멈추게 하려고 허공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존재와는 별개로써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는 결단코 없다. 허공에 무엇을 세울 수 없듯이 본성은 본래로 텅비어 '나'를 세울 데가 없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나'를 세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큰 바다에 '나'를 던져 버려라. 그것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도를 벗어나는 길이다.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통 속에 가두고 잇다. 중생들은 그런 것들을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싸워나갈 수 있는 방벽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갈수록 점점 높고 두텁게 쌓으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은 위축되고 추워지는 법이니 결국 그러한 방벽이란 나를 보호하는 방벽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방벽, 나의 감옥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공해서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온종일 '나'를 붙들고 헤매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 저녁이 되니 그만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게 된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나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낳는다. 죽음이 그래서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의 것'이 있다는 생각이 나의 것이 없는데 대한 불안과 공포를 낳는다.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참 나는 생도 멸도 없다.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쉼 없이 찰나 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멸이 없으니 '나' '나의 것'이 있음도, '나' '나의 것'이 없음도 없다. 오직 나툼일 뿐이다.

'나' 하나 죽는다면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 욕심을 낼 것도 착을 둘 것도, 남을 원망하고 싸우고 할 것도 없다. '나'가 살았기에 나로 인해 밖에서 들러붙고 안에서 일어나고, 착이 붙고 욕심이 붙는다. '나'를 볼바퀴에 그대로 내동댕이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든지 내가 뭉개지든지 상관 않고 무조건 내맡겨야만 업식을 항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가 없기에 나의 불기둥은 우주와 직결된다.

저절로 너·나가 없고, 사견을 여의고,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지 '아상이 없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만 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줄을 몰라야 하니 그것이 홀연히 깨우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협찬 : 심 규 하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 몸뚱이서 수많은 생명 더불어 살죠

☞ 15면에서 계속

있어서 그 나라를 한데 포함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 중에 한 나라만 없어져도 이 전체 세계가 다 죽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내 껍데기 내가 나라고 하면서 뽐내겠습니까? 뽐낼 거 하나도 없죠. 내가 당당히 홀로 섰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홀로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구성된 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체 속에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주는 선장이 있고, 그 나머지는 움죽거리는데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다쓰

한생각 잘해 주인공에 맡기면 조상과 나 그리고 자식 건져 세세생생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듯이 용도에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여러번 읽어도, 그걸 줄여서 놓은게 〈반야심경〉입니다. 그 반야심경을 더 줄인다면 '불심'입니다. 불심!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예요. 마음! 천차만별의 그 벌어지는 일들이 마음 하나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원하게 한판치고 울든, 한판치고 웃든, 그냥 여러분도 좀 그래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깨우친다, 성불한다, 뭐 견성한다 이런 건 다 이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 병원에 간 사람, 또 살 양으로 바들바들하고, 또 살리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러는 거를 나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개미굴이나 또는 개구리들이나 뱀소굴이나 여러 벌레들 소굴이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거나 이런다면, 우리 사람이 대형사고 났다고 하듯이 그네들도 온통 난리가 납니다. 난리를 벌이는데 똑같애요, 아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몰라요. 다리 부러지는 것도 그냥 끌고 가고, 목 떨어진 것도 끌고 가고 그럽디다. 개구리도 창자가 쭉 뻗어져 나왔는데도 그냥 업고 가고 말입니다. 똑같애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러니 모습과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과 더불어 사는 도리는 다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말고, 중천세계에서 마음을 걸러서 중심을 잘 둬라, 중심을 두게 되면, 중용을 하게 되고 중용을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세세생생에 하천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하천세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어버이로서 등장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금이 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말입니다. 물 흐르는 걸 내려다보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수없는 마음이 저 물 흘러가는 것과 같은데 어찌 칼로 툭 끊으리까. 끊으라고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끊어지진 않습니다. 수없이 나오는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 마음을, 화해서 찰나찰나 나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하며 어떻게 끊으오리까. 그때부터 "아, 끊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바로 더불어 같이 녹이는 거로구나"한 겁니다.

우리의 몸 속에 들어있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잘되는 것은 주인공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는 것은 '너 속에서 나온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럽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역대의 부모가 나 하나로 인해서 건져지고, 둘째는, 자기의 2세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건져지고 셋째는 조상과 나 그리고 자식 이렇게 3대가 다 세세생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생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간다면 안되죠. 상세계·중세계·하세계가 있다면 우리 중세계에서 마음에 따라서 체로 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세계로 떨어뜨리고, 상세계로 올리고 중세계에 그냥 납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도 그렇고 종자들도 그렇듯이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의 방편으로 말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잘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현재의 사람은 현대말, 현재말을 해야지 어떻게 삼천년 전에 썼던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높다 얕다 이런 걸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론하자는 생각으로써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안다고 아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져요, 아주 푸르렀을 때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빳빳하죠. 그러니 살아나가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말을 해도 아니되고 또 안다고 해도 아니되고, 말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다 이러지만, 허- 여러분이 말을 해도 말을 한 사이가 있습니까? 금방 이 말 했다가 저 말로 돌아가는데 무슨 말을 하는 사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까? 더불어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같이 모여서 말을 한 것이지 자기 혼자 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공했다 이런 겁니다. 공해서 한 사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공(空)이 색(色)이고, 색이 공이니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니라. 콩씨와 콩싹이 둘이 아니니라.'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콩싹이 콩씨를 정말 발견한다면, 콩싹과 콩씨는 둘이 아닌 까닭에 그 몸이 그렇게 크니라. 그래서 몸을 보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둘으니 몸을 보고는 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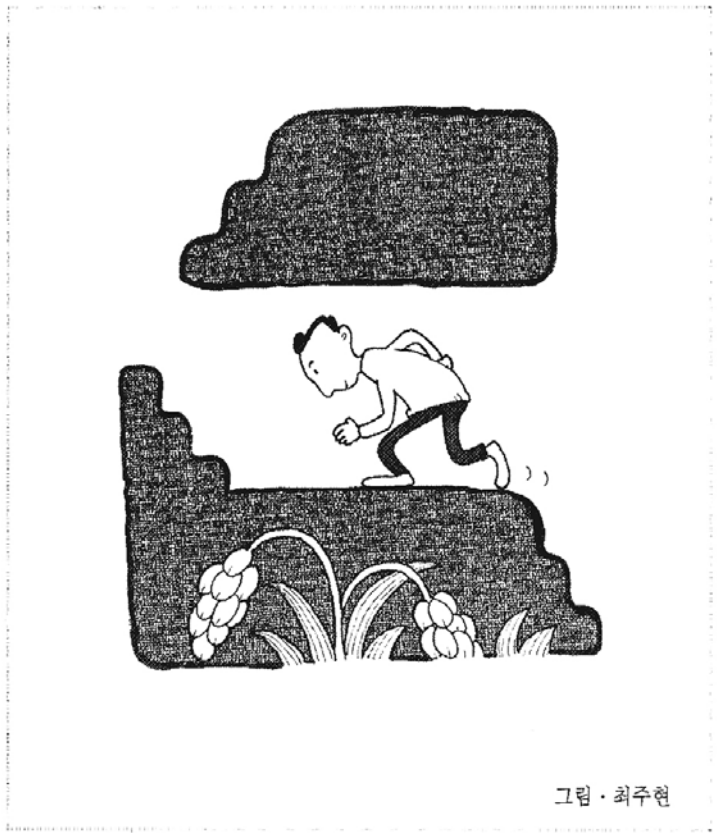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스로 구족해 있으니 통신해 쓰도록 자성삼보 귀의가 곧 불법승 삼보귀의

기복신앙과 원을 내는것 차이

문 저는 대구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뜻으로 풀어놓은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무슨 소린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형제 법회라든가 또는 책이나 테이프, 그리고 도반들과 얘기를 함으로써 궁금증이 풀리기도 합니다. 특히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다 곡을 붙인 선법가를 접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자성불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저한테 생명의 고귀함과 생활에 큰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많이 적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예전에 월급을 받을 때는 금액이 좀 적다 싶으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 밖에 안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금액이 좀 흡족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또 세금을 많이 뗄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 중에서 '돈을 벌어도 내가 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아, 이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과 선배, 후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번 돈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주위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원을 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인공에 맡기는 작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실천이 되는 것에 대해 제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해외연수를 상당히 원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회사에서 3개월간 가게 됐습니다. 그럴때도 '아! 왜 이렇게 실천이 잘 되는 건가?' 하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연수를 가게 되면 그동안은 법회에 참석할 기회가 없지만 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공부해서 연수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저 자신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원을 내면서도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복 신앙과 원을 내는 것의 차이점인데요,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성불에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복으로써 그냥 원하고 자성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혼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 이 원이라는 건 둥근 것이 원이죠? 그래서 원심을 낸 거죠.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천문학이기도 하고, 심성전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 내가 전체의 몸 속에 있는 의식과 모든 걸 한마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으로 원을, 원이라는 그 말이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 한마음을 냈는데, 한마음으로 내가지고 보니까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죠. 안에서 한마음이 다 한다고 말을 할 땐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다 조절을 한다, 한마음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내 마음 속으로 하는 것은 비는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 찾는 게 비는 것이고 기복이지 내 안에 주인공을 찾는 것은 한마음으로써 중심에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을 세운 그 마음 한 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첫째,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일을 한다면, 말을 해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죽거려야 될 일이면 그렇게 하고 전부 각각 이렇게 나가서 소임을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적인 모든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족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 겁니다. 당신네들한테 구족하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통신이 되게 해서 써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고 배깁니까? 그러니 딴 사람이 지금 속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죽여버려야겠다 이런다면, 벌써 이쪽에서 '흥!' 코방귀 탁 뀌고 자기는 몰라도 본래 자기 속에서는 벌써 알고 '흥! 날 죽여?' 그러구선 오히려 그쪽으로 몽둥이가 들어가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그걸 알고서도 자비스러우면 몽둥이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상대가 오히려 그런 실의에 되빠져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실천에 옮겨보면서, 실험을 해가면서, 체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그 끝없는 길을 걸어야죠. 그러다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몇 년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몇 년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자기의 그 착한 마음으로서부터 생기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세생생을 살게 하느냐, 아예 그니다. 그러니까 항상 둘이 아니죠. 그러니 형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자기 형상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부처님 형상을 무시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관찰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랑스러운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최초의 문제는 나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얘기죠. 모두 각자 나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하니까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이미 부처가 됐다고 하면서도 왜 부처를 깨닫지 못합니까?"하고 물으니까 "네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것과 같이 모두들 자기 그릇의 잣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둥글게 그 쪽에 모자라게 들어가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주고, 아주 적으면 아주 적은 대로 들어가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둥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허!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모자랐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겁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전자에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자기 그릇만 생각을 하고 '아휴 저거는 그냥 천리만리 모자라' 하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모가 나죠. 외면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자동적인 오신통중에 제일 중심에 숙명통이라는 그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숙명통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거기에 입력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서 거기다가 또 말기면 입력된 게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새 걸로만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해 본 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중심 자기 뿌리에 감사하고 슬기롭게 굴려 맡길 때 통신이 돼요

공부에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문 큰스님께서는 저희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희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놓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큰스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답 감사해요. 어떤 때는 부처님 법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만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복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모두 감응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면, 바로 내 자아궁처에 처해서 바깥과 안세상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듯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 중심에, 자기 뿌리에,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맡기고, 감사하게 맡기고, 또 슬기롭게 맡기고, 또 굴려서 맡기고 이러다면 통신이 되죠. 사대가 다 통신이 돼요. 그러면 안과 밖이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것은 제거하고 이러면서 잘 이끌어 가죠.

어떤 사람은 누가 큰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 얼마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 잘 되게 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허락을 안하더랍니다. 돈은 벌어야겠고 아주 딱한 처지인데 허락을 안하니까 그만 안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사기를 치고 없어졌더랍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빼놓고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을 데가 있고 자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데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콩싹에 콩씨가 붙어있듯이 여러분 몸 속에도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롭지 않게 이끌어 가고, 슬기롭게 이끌어 가고, 또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원하기 위해서, 또는 그 영원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삶의 보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몸 통 속에서 벗어나야 이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고, 지구통 속에서 벗어나면 이 모든 공기통 속에서 벗어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협찬 한마음

물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물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허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특별할인판매(수량한정)

동충하초 + 상황버섯
(1개월분 각 10만원)

■ 셋트로 구입하시면 불로환약을 무료로 드립니다. (판매가 10만원)
■ 암 및 불치병 완치사례 다수 있음.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건영백화점 1층
서울 02)926-6981
휴대폰 011)262-6981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기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 - 질병상담
문제아 무료상담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468-9632/011)453-861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옥천사**
주지 대원 합장

• 강 좌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심당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수맥 강좌

신비의 추 사용법
■ 매주 목요일 15시
■ 수맥관련 상담환영
(건강 · 양택 · 음택 · 기타)
■ 기 균형 전문(사업장 주택)
■ 행운과 건강목걸이 판매
(입시생, 몸이 불편한 분, 원이 있으신분)

대붕 氣 살림
02)3675-2118/011)239-6817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점술, 감정시부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특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수맥,온천 탐사 및 강좌

지하수,온천 개발을 위한 탐사
'수맥과 건강' 상담
■ 현장 실습교육,
■ 방문교육 가능
(펜듈럼과 엘-로드 사용법)
016)235-9220/02)455-9220
고려 수맥 탐사

역 학 강 의

개인지도 ○명
1~2개월이면 앞이 훤히 보임.
"팔자를 알면 출세하고 운을 알면 돈을 번다"
의 저자가 직접지도
염라 철학원
02)424-0064~5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용회사 수양원

수양 · 요양 · 기도공부
경전강의 참선지도
월숙식비 30만원
1인 1실, 침구일체완비
0591)746-9921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용 회 사

• 기 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염불전용녹음실

⊙ 법당 앰프, 마이크 설치 ⊙
●평소에 염불을 녹음하고 싶었으나 비용과 음질 때문에 망설였던 스님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에 불만을 갖고 계신 스님
●직접 법당내에서 평소에 하시는 염불을 녹음하시고 싶으신 스님
※ 수십년간 법당에서 좋은 염불을 하고 맑고 고운 음질의 마이크는 없을까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상법회를 할 수 있는 명상음악과 법요의 식용 찬불가 음반이 필요하신 분)
전화문의(法音寺) 김광덕 회장
0417)551-1562

장례관련상담

갑자기 상을 당하시어 경황이 없으신 분들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식 장례 · 묘지
납골당 안내
한마음 서비스
080)4444-111

도움부탁드립니다.

경제파탄으로 불자가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은행
838-21-0132-495
(김기창)
도와주십시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방산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해인 인테리어
☎ 02)201-1470
019)369-8000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 **사찰명 : 대명사**
● 소재지 : 경남 마산시 완월동 130-3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을 공고함.
1998년 11월 4일
대명사 주지 법승

• 사찰안내 •

사찰 안내

◇ 위치 : 동대문 요충지
◇ 면적 : 33평 옥상사용
◇ 동불 및 후불 A급
가스보일러 시설일체완비
◇ 즉시 법화가능
◇ 가격 : 전세 6천 5백
(절충가능)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 진 불 사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7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 ※
0446)877-9051
012)925-6118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4평,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 가격 : 2천 8백(월세없음)
◇ 시설비: 천만원(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2)954-1289

포교원(토굴)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서울에서 열차 2시간거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전면주택과 후면임야 대발)
◆대지 : 774-1번지 등기분 95평내에 기존건물 약50평,775번지 등기 90평
◆구조 : 법당1, 삼존불, 탱화1점, 방 3, 거실 및 조리장1, 샤워 및 보일러실 1, 마루 현관 있음. 옛날 기와집터현재 밭으로 사용
◆특별할인가 : 총 3600만원
0451-641-7569/011)401-8259

포교원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5동
◆평수: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1(주차유)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 전세 5천만원 가능
◆시설비: 상담후 결정요함
◆특 징: 주변전철역 2분거리 교통편리, A.P.T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종불암

◇법당 : 12평 ◇요사채 : 60평
◇대지 : 1,300평(신축기와, 목조건물), 계곡 有, 기도처로 최적지, 전망이 탁 트여 좋음.
◇가격 : 전세 5천만원
0596)972-1268
0596)973-1267

사찰(포교당)운영하실분

◇위치 : 대구광역시
◇대지 : 48평
◇총건평 : 1층-30평 2층-30평, 반지하식당-13평 (공양칸) 2층 : 법당 - 1층 : 요사(방3,주방,욕실,종무소,석가모니불,동불 5자,입상 관세음보살,지장보살,후불 · 신중 · 산신탱화, 집기일체 포함)
◇입주즉시 법화 가능
◇가액 : 매가 1억 3천만원
011)790-7162
053)656-6609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평수 : 대지+전 =16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50평
◇ 가격 : 2억 2천 5백만(급매)
◇ 특징: 주의경관 수려, 최상의 기도처
011)493-8936

토굴 · 암자안내

◇위치 : 경북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황악산 용담사 입구)
◇평수 : 675평(대지)
◇가격 : 2천만원
◇특징 : 토담집 1채, 계곡끼고 경관 수려 토굴암자 최적지
되도록 0582)541-2584로 연락요망
011)781-6957/0571)858-3004

토 굴 (건물만)

◇ 위치 : 충남 공주시 부근
◇ 건물 : 황토집-남향집 양명함. (방2, 재래식 구들방, 부엌)
◇ 가격 : 건물만 1,500만원 (대지 불포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416)841-5195
(저녁 7시이후 전화요망)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전포4동 190-62(대우자동차 뒤 황령산)
◇ 조건 : 대지 60평(하천부지13평) 건물 3동(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주방, 샤워실, 용왕당, 미륵불
◇ 가격 : 1억 2천 5백만원 (은행, 전세 6,500만원)
◆ 부산근교 각종 부동산과 교환가능
◆ 전세 4,500만 가능
011)546-0056
012)1525-6588

사찰안내

◆위치: 충남 ◆요사: 25평,
◆법당: 20평 ◆대지: 400평(문중)
◆가액: 3천만원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 법당 : 삼존불,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약15평(법회가능), 방2,부엌2,화장실
◇ 가격 :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나 포교하시는 스님께 약간의 전세금만 받고자합니다.
02)823-0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부지 : 370평(아담한 산속)
◆ 법당 : 39평(주불 약사여래 6자)
◆ 요사 : 30평
◆가격 : 9천만원
0658)542-5859

포교당 안내

◇위치 : 대전시 도마동 안심사
◇평수 : 40평
◇가격 : 2천 2백만원(전세)
016)564-8553
042)534-1441
052)298-3539

사찰 겸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대지 : 48평, 2층 법당 28평
◇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종무소, 반지하 식당-13평
◇매가 : 1억 1천 5백만원
053)656-6609
011)790-7162

지리산 명당소개

◇위치 : 함양군 마천면 소재
◇평수 : 약 2천평 (약간의 대지도 있음)
◇토굴, 선방, 암자 최적지
012)587-6233

사찰 운영하실분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부지 : 300평 ◆법당 : 26평(단청필 기와지붕) ◆요사 : 2동 / 기도실 : 2동/ 산신각(목조단청), 용왕당, 종각
◆가액 : 답사후 절충요망
◆특징 : 수려한 산세와 빼어난 주변경관을 자랑하는 천마산 산속의 기도 및 포교도량
◆위치 : 통영시 ◆부지 : 1,179평 ◆법당 : 25평 ◆요사 : 25평
◆주차장 : 무한대 주차가능 버스진입 ◆가액 : 1억 9천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빼어난 주변이 울창한 송림으로 감싸안고 있는 금오탁시형의 천하명당자리.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 011)736-4447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 (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안내

◆위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평수: 100여평
◆건물: 요사채2동
◆암자: 법당10평1동
◆매가: 1500만원
※산세 좋고 물 좋고 수려
만불사주지 석진범 합장
0397)574-1358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 신림본동 신림4거리 보도10분거리 대로도변 2층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철성탱화,각종만다라화 여러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시설및 일체물품(1천 2백만원)
02)888-1642
011)686-9925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사찰 안내

천 약 사
◇ 위치 : 진주시 사봉면 북마성리
◇ 법당 : 20평
◇ 평수 : 약 130평
◇ 가격 : 4,500만원 (절충가능함)
◇ 대웅전,산신각,요사채2칸
0591)754-5107

사 찰 안 내

북한산의 정기가 모인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복호혈의 명당 중의 명당에 자리잡은 고려 말엽의 고찰터로서 오래된 석축이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어 자연 풍광이 잘 보존되었고 기도처와 수행처로 써는 북한산 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법당 약 30평과 산신각 외 2동이 있으며 대지는 약 500평 사용하고 천연 자연 용천 약수가 있으며 미륵대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찰은 청정한 수행처가 지녀야 할 명당의 조건을 고루 갖춘 기운이 맑고 강한 도량으로 수행이 많이 되신 원만한 스님께 양도하였으면 합니다.
■ 가격 : **10억 (절충 가능함)**
■ 연락처 : **02)998-1818** 주지 합장

불자 세상보기

'왕따' … 학교가기 두렵다

'집단 괴롭힘' 작년보다 8배 늘어

최근 급우 5명에게 무려 50여가지에 이르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후 결국 이민의 길을 택한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 및 그 부모, 학교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공동책임을 지고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4일에는 여고 1년생이 학교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자 자살하기도 했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원인인 집단괴롭힘(왕따)을 당한 초·중·고교생 수는 올 9월까지 5천4백14명(교육부 조사).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에 달한다. 피해학생들이 빼앗긴 금품도 총 4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집단괴롭힘의 잔혹성과 폭력성이 끔찍할 정도에 이르렀다. 불교적인 전인교육으로 청소년문제 0%에 도전하는 종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집단괴롭힘 방지 및 극복 방안을 들어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특별활동 등을 통해 개성있고 치우침없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전남교사불자회의 청소년 축제.

종교의 눈 — 종립학교 교장들에게 듣는 '집단 괴롭힘' 대책

가정에서는 인성교육의 출발지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학생의 개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창조적이고 활달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청소년문화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종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통한 자기반성 및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토록 도와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 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 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는 좋은 친구"(인과경)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참선등 자기반성 교육

우하수교장〈명성여고〉

'집단 따돌림'은 하나의 인연소생(因緣所生)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왕따'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만한 인자(因子)를 가지고 있다가 '왕따'가 될만한 조건(緣)을 만나 고역을 치루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성격 등을 개선할 수 있으나, 타고난 문화유전자(본성)를 바꿀 수 없기에 타고난 업장(습관)이 새로운 연을 만나도록 전학 등을 통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종교교육 등을 통해 예절바르고 심성이 고운 학생을 길러야 한다. 〈육방예경〉의 "즐거우나 괴로우나 늘 변하지 않는 친구, 좋은 말을 해주는 친구, 동정어린 친구"인 선우(善友)를 길러내야 한다.

전학등 환경변화 필요

이원주교장〈동대부중〉

'집단 따돌림'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과 자녀의 마음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녀들의 작은 변화를 보고도 조짐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자녀들과 친한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방송·언론도 '왕따'를 과잉보도해 아이들이 모방심리로 따라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가정은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인성을 길러주도록 해야한다. 교사 역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알며,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임을 자각하도록 해야한다.

자녀의 친구관계 관심

이무열교장〈은석초교〉

부모들은 공주병·왕자병 자녀들을 길러 학교에서 이기적인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성적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속내를 털어놓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남들보다 뛰쳐지거나 뛰어난 친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정을 위한 최대의 노력은 벗에게 그의 결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라 로쉐흐크의 잠언)임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는 흑백논리와 획일적인 사고를 양산하는 틀에 박힌 학업제일주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다양한 특별활동과 자발적인 종교활동을 통해 개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발적 종교활동 유도

임완숙회장〈교사불자회〉

시론

IMF 1년



노부호
〈서강대 교수·경영학〉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 1년이 되어간다.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혁, 그리고 개방경제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왔느냐가 내년 전망을 가늠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소리는 높였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협조융자,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기업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지 매각, 합병, 청산 등으로 기업을 퇴출시키지는 못했다. 경쟁력없는 기업이 살아남아 싼 자금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덤핑 등을 통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5대 그룹에 대해 빅딜을 강요하고 있지만 빅딜을 통해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느냐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오히려 과잉용량의 규모를 키우고 부실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 "대기업 빅딜 금융 구조조정 실업대책등 성과 미흡하다"

금융의 구조조정에서 21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돈으로 BIS 기준만 맞춘다고 금융기관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금융산업의 근본적 개편이다. 노르웨이 등에서 했던 것처럼 회생가능성없는 은행에 대해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을 분리하여 합병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의 참여를 장려해 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대대적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 실직자대부사업 등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올해 6조원, 내년에는 8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많은 낭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실업대책이 미래가치창조형 사업이라기 보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성격이 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집행과정에 투입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관리노력 그리고 관계부처간 공조체제의 미비, 일선 담당공무원의 사명감이나 전문성의 결여 등을 생각하면 실제로 실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가치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IMF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통한 간섭과 이 과정속에 생겨난 부패구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는 계획만 있고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개방경제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외국인 투자인데 상반기에 작년 대비 19% 정도 감소한 것은 개방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은 한국을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경이 사라지는 정보화시대에 대륙과 태평양으로 뻗어나갈수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비교적 기술과 품질의 하부구조가 튼튼하여 아시아의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은 중요하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심장재단 창립이사장인 이순자여사가 1만5천번째로 수술을 받은 황원영 아기를 어루만지고 있다.

한국심장재단 1만5천명에 새 생명

한국심장재단(이사장 한용철)은 5일 교육회관 대회의장에서 '1만5천명 새 생명 탄생기념식'을 거행했다. 지난 84년 2월27일 전두환 前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설립한 이 재단은 최근 서울 삼성병원에서 선천성심장병에 걸린 생후 5개월인 황원영 아기를 1만5천번째로 수술후 무사히 퇴원시킨 것을 기념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용철 이사장은 "14년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환자는 물론 얼굴기형, 신장·골수이식, 기타 질환자들에게도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면서 "고통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한국 부패지수 세계 43위

김정길 장관-김옥두 의원 공무원 비판서 펴냈다



세계의 부패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지지수(CPI)를 85개국 가운데 43위인 4.2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7위, 일본 25위, 대만 29위에 크게 뒤쳐지는 순위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 등 전세계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의 비리와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들을 펴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옥두 의원(국민회의).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은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김 장관의 눈에 비친 공무원의 첫 인상은 '순발력과 눈치'였다. 서울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장관으로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은지 10분만에 행자부 간부들이 찾아왔다. 취임사에다 관용차, 결재서류에다 '행정자치부 장관 김정길'이라는 명함까지 준비돼 있었다. 또 △정신이 없도록 일정을 짜거나 쓸데없는 방문객이 몰리게 하는 등 '장관 길들이기' △조직-인력감축 등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지연-학연에 따른 줄서기와 난무하는 투서 △규제만 앞세우는 '못된 시어머니' 버릇 △다른 부처의 업무에 대한 냉소주의 등이 두루 거론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옥두 의원은 공직사회의 문제점과 공직개혁 방향을 정리한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김의원은 개혁대상 공무원을 △스프링형(감찰 때는 복지부동) △권생권사(權生權死, 철저한 줄대기)형 △투덜이(불평불만)형 △로봇(무사안일주의)형 △하이에나(돈될 일만 찾는)형 △물귀신(뇌물 분배)형 △카멜레온(기회주의)형 △굉풍(떠넘기기)형 △터줏대감(장관은 길어야 2년)형 △마피아(지·학연)형 등 10대 유형으로 분류, 비판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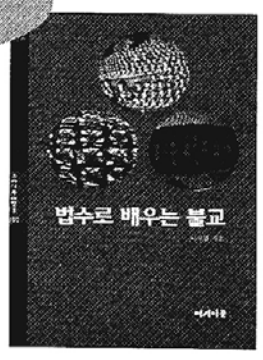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재열 지음●
B6 변형 193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변(七辯),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횡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재(齋),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03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불교TV · 불교방송 어린이 프로 부활

새싹불자 포교 신바람

btn '모여라…' 찬불동요 · 서원코너 등 볼거리
bbs 룸니비동산 구연동화 · 고민상담 인기만점

불교TV와 불교방송이 가을 개편을 계기로 7개월만에 다시 편성한 어린이프로 '모여라! 부처님나라'와 '룸비니 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튜디오 녹화없이 제작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불교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는 불교TV의 '모여라!…' (월요일 오후4시40분~오후5시5분, 담당PD 이범관)

캐그랜 김현기씨가 진행을 맡은 이 프로는 탐방한 유치원의 주요 수업시간과 천진난만한 원아들의 모습을 소개해주며, 유치원 소식을 MC와 원아가 더블 앵커가 돼 뉴스 형식으로 전해주기도 한다.

원생들이 일정한 형식이나 제약없이 부처님께 서원을 얘기하는 '있잖아요, 부처님!' 코너는 이 프로의 백미놀을 수 없는 볼거리. 이외에도 율동과 함께 하는 '찬불동요 부르기', '동승' 작가 원성스님이 그림과 함께 불교를 설명 해주는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 등도 마련돼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분부터 오후4시까지 55분간 방송되는 불교방송의 '룸비니동산'(담당PD 한지윤)도 새싹불자 포교에 가세했다.

전문가들이 각 코너를 진행하는 이 프로는 한국동화구연연구회 조영애 회장이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우리들의 동화나라', 이석순 수원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어린이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탁 터놓고 얘기해요' 등이 새롭게 선보였다. 부처님의 지혜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는 자용스님(경창 극락사주지)의 '이야기 보따리 팔만대장경'과 정유탁(찬불동요 연구가)씨의 '노래로 여는 부처님 세상'도 어린이 청취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불교TV와 불교방송의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불교TV의 '모여라! 부처님나라'의 한 장면.

오랜 공백기간을 깨고 모습을 바꾼 이 두 프로그램의 재 편성으로 어린이 영상포교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포교사된 전주댁 ②

내 친정은 전라남도 순천이다. 시골 살 때 송광사 포교당에 다녔다. 하루는 주지스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참선을 하라고 하셨다. 참선을 잘 모르던 나는 의문이 생겼다.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고. 스님은 가부좌하고 앉아 '이것이 뭣고' 하고 생각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뭣고'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이 우주만상이 다 무엇인고 라는 뜻이라고 스님은 자상하게 설명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책을 한 권 주셨다. 그때는 그 책을 읽어도 잘 몰랐다. 그렇게 10여년이 흐른 뒤에 다시 책을 손에 들게 됐다. 책의 제목은 〈광명의 길〉인데 동국대 초대총장을 지내신 권상로 스님의 법문을 옮긴 책이다.

하루는 그 책이 생각나 꺼내 읽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줄 미처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되어 발심이 일어났다. 그 때에는 내가 보험회사에 다닐 때라 하루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 우선 저녁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절에 나갔다. 절에서 매일밤 관음정진을 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몸에 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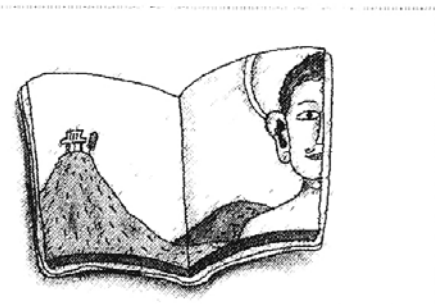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집에서 밤 10시에 출발하면 절에 11시에 도착했다. 그 때부터 법당 한 구석에 그대로 앉아서 새벽 4시30분 새벽예불 때까지 관음정진을 하고 예불을 모시고 절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청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하루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진하기로 발심했던 때라 피곤한 줄도 몰랐다.

하루에 5시간30분을 관음정진하니 더 할수록 소리가 크게 술술 잘 나왔다. 큰 소리로 정진을 하니 나보다 먼저 기도를 하던 보살들이 못보던 보살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시며 구인사에 갔다 왔냐고 물었다. 고향에서 같이 절에 다녔던 그 보살님도 말씀하셨던 구인사였다. 그때 난 그 보살들의 말씀은 한귀로 흘리고 계속 밤마다 관음정진을 했다. 한달 반쯤 관음정진을 오직 아무 생각없이 열심히 했다. 관음정진을 하는 동안 구인사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처음으로 구인사를 찾아가게 됐다.

구인사에 가서 3일째 기도정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쌀 한가마니만 빌려다오. 그러면 15일 후에 갚아주마"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이상해 눈을 번쩍 뜨니 법당엔 아무도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그 꿈을 꾸고 난 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달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님은 "어렸을 때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셨는데 왜 좋은 곳을 못가셨을까" 의문이 떠올랐다.

윤성애 〈서울시 양천구 신천동〉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일연과 삼국유사' 재조명
다큐 Q채널 19일 방영

다큐멘터리 Q채널(ch · 25)은 1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일연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한 '역사속으로의 여행, 일연과 삼국유사편'을 방영한다.

KBS · CCTV 첫 공동제작
'문화의…' 22일 방영

KBS와 중국CCTV가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의 동질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특별 공연이 10일 중국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국악인 안숙선,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 쑹페이(宋飛) 등이 출연했다. 이번 공연은 22일 오후 6시40분 KBS-1TV를 통해 방영된다.

'방과후 학교' 전인교육 필요

기능교육 편중…문예 · 음악 · 스포츠 보완을

이혜영 연구위원 지적

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교육 내용이 기능교육 보다는 문예 · 음악 · 스포츠 · 진로탐색 등 전인교육으로 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씨(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13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최 '98 청소년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방과후 교육활동과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발표, 전인교육의 장으로써 방과후 학교 활용을 적극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 · 중 · 고교생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희망 교육'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수영(394명) · 볼링(457명) 등의 스포츠, 요리(391명) · 방송제작(373명) 등의 진로탐색, 대중음악작곡(356명) 등의 음악 및 미술, 영화시나리오(429명) · 소설창작(361명) 등의 문예창작 교육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에서는 자비의집, 월곡청소년센터와 30여개 복지관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월곡청소년센터를 비롯해 능인 · 옥수복지관 등 10여 곳만이 컴퓨터 · 어학교육 외에도 무용 · 요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수현씨(사회복지사 · 부산 개금복지관)는 "복지관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능교육을 선호하는 학부형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또 복지관 내 전문 지도자들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명성여고생들의 경로잔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2백여명의 노인들이 합창하고, 그 사이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음식을 돌고 부산하게 다니는 정겨운 모습이 7일 명성여고 학생식당에서 연출됐다.

명성여자고등학교 불교학생회(회장 도혜진) 등 8개 동아리 회원들이 '경로 잔치'를 마련한 것. 학생들은 이번 잔치를 위해 10월30일 개교 68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꽃잔치'에서 먹거리, 불교용품 등을 팔아 2백여만원 기금을 조성했다.

청소년상담실 개원
청교련 보령지구

청교련 보령지구(지부장 정운스님 · 세원사 주지)는 17일 보령시 동대동에 청소년 상담실을 개원한다. 교계 최초로 위탁 · 운영되는 청소년 상담실은 30여평의 규모로 상담원 2명이 상주하며, 보령시(시장 신준희)로 부터 매년 프로그램 개발비 4백만원 등 총 2천여만원을 지원받는다.

원명유치원 학예발표회

제주 원명선원(주지 대효) 원명유치원은 14일 제주도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17회 원명학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예발표회에는 부채춤, 뮤지컬(일곱마리 아기염소), 무용(꼭두각시), 합창, 한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건강 365일 〈36〉 마늘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폐결핵 · 심장병 · 수족냉증에 특효
신진대사 돕고 강정제 · 살균 작용

마늘이 피로를 풀어주는데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소음인 체질에 효과가 크다. 마늘의 독특한 향은 유화알린이 주성분으로 강력한 살균작용과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불가에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성욕이 솟고 그로 인해 잡념이 많아서 수도에 방해가 된다 하여 금하는 음식으로 분류된다. 마늘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내분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정력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다. 마늘로 자기 폐결핵을 고친 이야기를 했다. 폐결핵으로 여러 해를 고생한 이 환자는 양약으로 결핵을 장기 치료하니 위장장애로 약을 계속 복용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직장도 그만 두었다. 가사는 어려워지고 할 수 없이 시골의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이나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렇게 시골생활을 하던중 어느날 집 앞을 지나던 노인이 마늘엿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엿을 담아 먹기로 하고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을 하였다. 내가 엿을 많이 고아 봤지만 마늘 엿은 처음이다고 하면서 마늘엿을 만들어 주었다. 돌책지근하여 먹기가 무척 거북스러웠다. 한달쯤 지났을까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3개월쯤 지나니 피로감도 줄어들었다. 5~6개월쯤 지나니 기침 가래가 삭고 7~8개월쯤 지나니 숨찬 증세도 가벼워졌다. 산행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다보니 정력도 되살아 났다. 병원에 X-레이 검진결과 흔적은 있으나 깨끗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 TV에서도 마늘이 심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방영된 적이 있다. 이외에도 마늘은 위장병과 수족 냉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소음인 체질엔 전방위적으로 좋은 식품이다. (02)762-551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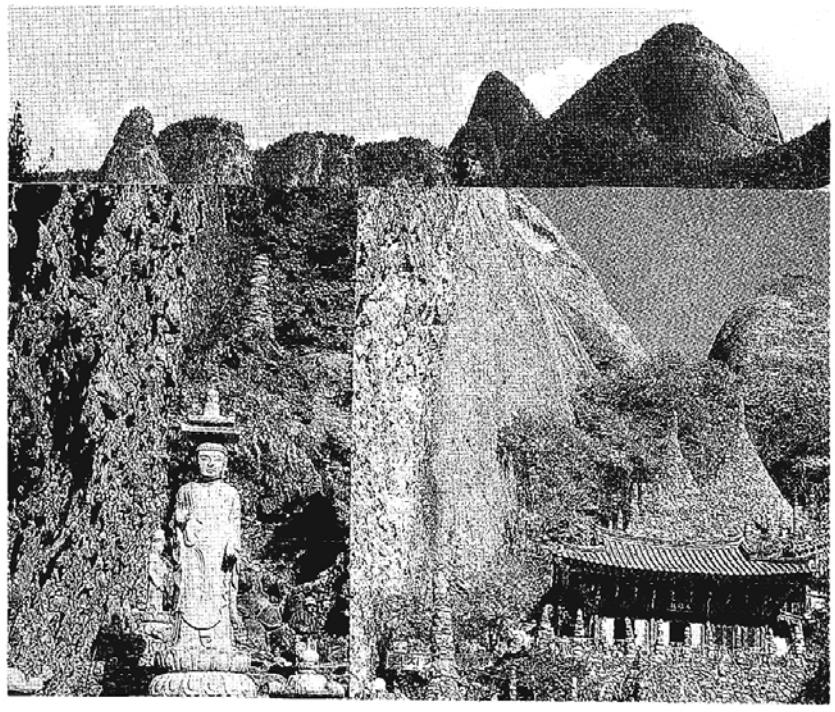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buddhapia shopping mall • buddhapia shopping mall • buddhapia shopping mall

부다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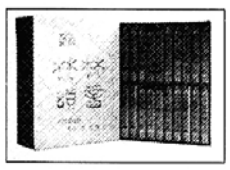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삼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욕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지장청시 I
14. 지장청시 II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시이운 · 명전점안
20. 증심 · 천수작법 · 요잡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강담래 교수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육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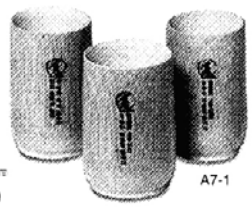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브악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곡일 해물,치 등
-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 살찌는 체질?
- 체질과 비만의 관계
-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 다이어트 음식
- 살빼는 민간차
- 지압으로 빼는 군살
-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 다이어트의 부작용
- 선택이 중요하다
- 절식요법이란?
- 쉽게 할 수 있다는데
- 혼자서 하는 클리오법 7가지
- 기별고 상쾌한 기분으로
-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형조건
- 멋지게 보내는 하루

대나무 잔

원진 자연산 대나무로 기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A7-1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거산죽염

선조들의 비전 비방



죽염은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健康藥(건강염)제조 비방에서 전래된것으로 생명유지의 필수물가겁한 藥性(임상)을 강화시켜 주고 인체내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천연미네랄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는 신비의 건강염입니다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법성게 걸망



A12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브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적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45(가로)㎝, 62(세로)㎝, 547쪽
가격 : ₩ 4,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적 부위에 올리 놓으시면 어적 갈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집어 긴으시면 팔목이나 골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풀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수월관음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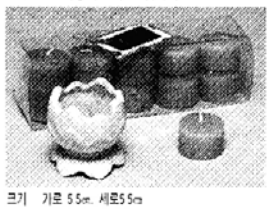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어 모습의 지세나 옷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심을 변화신(變化身)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신의 모습은 응현신의 슈지관음 삼십삼신의 여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름 삼십삼신의 관음(삼십삼관음신)을 33천신이라고도 한다 본 좌상은 수월관음좌상으로서 물위의 연꽃위에 앉아계시며 물에 비친 달을 관(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크기 260×300(㎜)
종류 수월관음좌상(금색) 가격 : ₩ 99,000

도자기 연꽃 향초

온온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하신후 남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꽃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레몬향) 1set(10개) ₩ 5,000

다량 주문시 협의 가능 합니다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엉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제품 하나하나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이익 기도, 기정 기도
제사, 신소등 중도다양

포장제질
천연 오동나무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황 각 한질
- 촛대 비림막이2개

가격 : 1세트 ₩ 2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희귀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4-1 A4-2 A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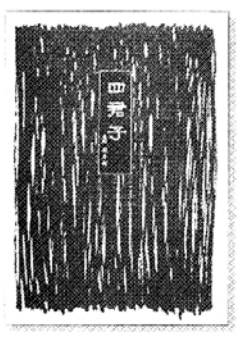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 350,000
(개금)
₩ 580,000

골동품형 개금형 브론즈코팅형

재질 100% 징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희의 세계로 빌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배우는 분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五福臨門 猛虎圖(오복림문 맹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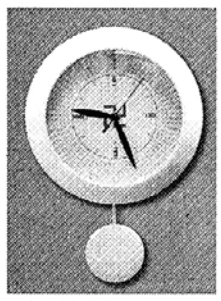


산속 푸르른 산중에
맹호 노하여 위용 떨치니
뭇새들 몰라 흩이지고
여러 짐승들도 달아난다
산비탈 치달리는 맹호앞에
칡바람 휘몰이 치니
여러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다
사방의 산마는
싸늘히 부르르고
해진넉 찬바람은
댓넓은 흘날리는데
어지러운 세끼에 맹호의
웅대한 기상은
천만리에 위용을 떨친다
운은 사방을 진동한다지만
맹호는 구름과 같이 어울린다
호풍이 잔별 청차게 불 때
천하의 사악한 무리들은
모두 몰라 쥐 구멍을 찾는다

응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생사의 고비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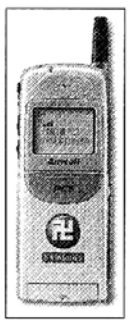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 드립니다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이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신하며 뇌종양 유산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핸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킬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킬테스트 해 보시면 깜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커릴리안(KIRILIAN)이 휴대전자파를 흡수 융해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상능이 좋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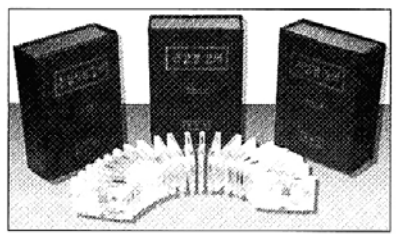




용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맥파
규격 2개 1세트

가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집히 브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짬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초집힌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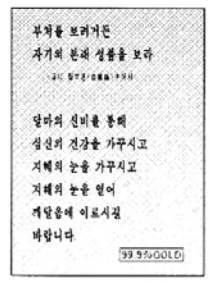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기꺼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기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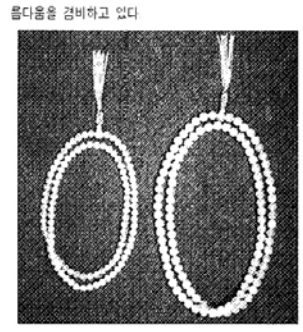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격 : ₩ 20,000

순금 99.9%

건강 옥 염주

옥은 군자의 길에 비기며 회남자(淮南子)에는 천지의 정(精)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방신하여 고칠압 투통 소화불량 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기는 재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추석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종 류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백옥염주(大) ₩ 40,00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미









가격 ₩ 5,000
색상 지주색
재질 T/C (면 혼합)
100장 이상 주문시 원안대로 인쇄 가능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지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illegible] 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아니라 모든 소원이라만히게 이루어 진다는 말을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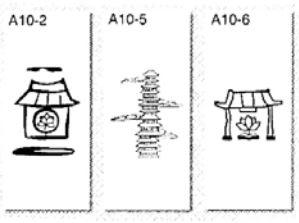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박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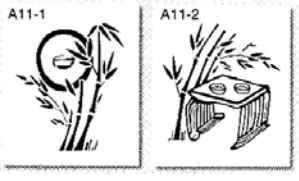


A10-2 A10-5 A10-6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신태적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 기도하실때 한걸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11-1 A11-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9-2

반야심경 종 차걸이



A9-1

밝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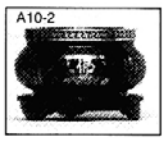
※ 업보시 대실 장우 한인 가능 합니다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종 류 검정 빔색 흰색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A10-2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빈아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앞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재질 동
특징 수금에 작품
규격 3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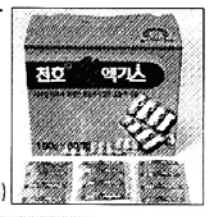
가격 : ₩ 50,000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협학자 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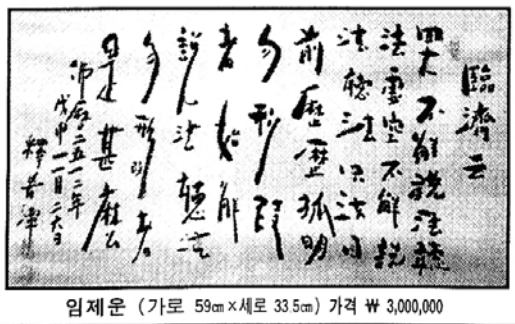
-해풍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팩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지휴 한의학 박사 천무원(韓방치한방병원장)



가격 : ₩ 50,000 (100g×60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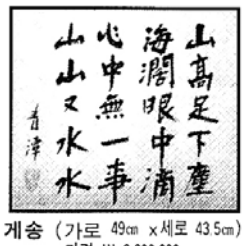


청담스님 친필 임제운

임제운 (가로 59㎝×세로 33.5㎝) 가격 ₩ 3,000,000

청담스님 친필 게송 · 친필 임제운을
가까이 두실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오

청담스님 친필 게송



게송 (가로 49㎝ ×세로 43.5㎝)
가격 ₩ 3,000,000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엮술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여영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0년간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이학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을을 첨기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벗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 아나라 우수한 생균라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획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명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도 있는 유의 중금속인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지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지용비누는 우물이 노출되어 있어기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공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연
세균비누는 이중등수용시킨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근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 첨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합가된 '건강기능성비누'는 처세니 이이다에 산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법회안내



청화스님 (성륜사 조실) 21일 오전 10시 광주 충장로 금륜회관 금륜회 영가천도법회. (062)224-0175



녹원스님 (동국대 이사장) 23일 오전 10시 예천 용문사 윤전대장경 초청법회. (0584)655-8695



법정스님 (길상사 회주) 25일 오후 1시 부산 시민회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초청법회 '맑고향기로운 삶이란' 주제 법문. (051)898-2672



고산스님 (쌍계사 주지) 21일 오후 1시 통도사 부산포교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 창립34주년 기념 초청법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주제법문. (051)464-2020



암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19일 오후 3시 부산 국제문화센터 대강당 4층 금정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및 초청법회. (051)403-709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19일 (목)

■오대산 상원사 보궁 및 지장암, 월정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5시 오대산 상원사 보궁 및 지장암, 월정사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11월20일 (금)

■한국불교학회 추계세미나=한국불교학회 제30회 추계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가 오전 10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02)260-3122

■도피안사·수덕사·고란사 참배=부산불교성지순례회는 22일까지 철원 도피안사, 백마고지 등과 전방을 둘러보고 수덕사, 부여 고란사 등을 참배한다. (051)644-5213

11월21일 (토)

■피라미타 대구지부 발대식=오후 3시 파라미타 대구지부 발대식이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053)255-4873

■장상문 거사 제6주기 추모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과 불교방송 초대사장을 역임한 중원 장상문 거사의 업적을 기리고 유업을 되새기는 제6주기 추모법회를 오전 11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한다. (02)703-0108

11월22일 (일)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개원법회=오후 2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개원 법회가 봉행된다. (0631)283-2495

■석불연구회 석불친견=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오전 8시 경기도 일원으로 석불 친견을 떠난다. (02)760-5171



◇석불을 친견하며 불교문학재의 중요성도 실감해 보자. 사진은 충북 상모면 미륵리 석불입상.

■맑고향기롭게 사찰환경 생태기행=맑고향기롭게는 서산 개심사로 제12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을 떠난다. (02)741-4696

■티벳스님 초청 마정수기법회=오전 10시 광주 관음사는 티벳스님 초청 마정수기법회를 갖는다. (062)223-7666

■남해보리암 참배=부산불교방송은 남해 보리암과 망운암으로 11월 참배법회를 간다. (051)644-5114

11월23일 (월)

■설악산 관모봉 영혈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30분 설악산 관모봉 영혈사 참배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11월24일 (화)

■군승단 창립 30주년 기념법회=군승단 창립 30주년 기념법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봉행된다. (02)749-8646

■정토수련법회=정토회는 29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깨달음의 장 수련법회를 연다. (0581)571-6031



◇성큼 다가온 겨울비람 속에서도 수행을 향한 열기는 식지 않는다. 사진은 철야정진 수행하는 물자들.

■불자모니터 방송교육=보리방송모니터회는 오전 10시 한마음불교사랑방에서 불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불자를 위한 방송수용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02)712-5812

11월25일 (수)

■제주 약천사 주지 진산식 및 수륙 영가천도재=오전 10시 제주 약천사는 주지 진산식 및 수륙영가천도재를 봉행한다. (064)806-4717

■전북 익산 숭림사 중창불사 회향 및 만등불사=오전 10시 전북 익산 숭림사 중창불사 회향 및 만등불사가 봉행된다. (0653)862-6394

종단소식

조계종

청련암 진신사리 친견

단양 청련암(주지 종덕)은 6일 대웅전에서 지장보살·후불탱화조성 100일 기도입재 및 부처님진신사리 친견 법회를 봉행했다.

감로사 보살계 수계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제35회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감로사는 27일 서면 르네상스커피숍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루찻집을 열 계획이다.

태고종

비구니회 창립법회



전국비구니회(회장 운정·사진)는 5일 서울 종무처에서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법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마음의전화 서울지부 개원

한국불교청년회 산하 마음의 전화(대표 도각)는 7일 마포구 신정동 성진빌딩 3층에 마음의전화 서울지부 총괄센터를 개원했다. (02)714-0553

보현도량 선학개론 강의

보현도량(회장 무위)은 매월 음력 22일 오후 8시부터 경기 고양시 대자사에서 선학개론 강연회를 연다.

매달 '법상종이란 무엇인가', '정토신앙 고찰'과 '토속신앙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0344)64-7075

전대종

전국청년회 단합대회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8일 관문사 옥불전에서 3백50여명의 청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년회 단합대회를 봉행했다.

포항 황해사 낙성식

포항 황해사(주지 무원)는 29일 낙성식 및 1053 관음존상 봉안식을 갖는다.

대지 3백90평에 지상 4층 연건평 9백82평의 규모를 갖춘 황해사는 95년도에 착공, 4년만에 완공됐다. (0562)277-3611

진각종

보살 십선계 수계불사



교육원(원장 일정)은 9일 신교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탑주심인당에서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가졌다.

'진각청년회의 밤' 개최

진각청년회(회장 성상신)은 28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진각청년회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청년회 및 연대 진각청년모임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음종

보명사 서울포교당 개원

천안 보명사(주지 성철)는 8일 서초구 방배3동 1023-2에 서울포교당을 개원했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명사 서울포교당은 도심 속에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경제한파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부들의 지혜로운 보살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륜종

21일까지 법계고시

법계고시위원회(의원장 혜봉 교육원장)는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용압사에서 법계고시를 개최한다.

1백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한 이번 법계고시는 선덕·중덕·대덕은 논술고사로, 종사·대종사는 논문심사로 진행되고 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알림

△무료합동결혼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 오후 2시 복지관 웨딩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합동결혼식을 갖는다. (02)282-1100

△무료취업정보센터=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과출봉사에서 전문 사무직까지 각종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한다. (02)852-0525

△초등학생 동요대회=개금사회복지관은 아름다운 동요보급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자리를 마련코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요대회를 연다. 접수마감은 18일까지. 본선은 28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치뤄진다. (051)893-5034

♣ 강좌

△지장경=전북불교대학은 17일부터 3개월간 〈지장경〉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0652)226-7878

△검도반=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도반을 개설했다. (02)421-6077

△에어로빅 재즈댄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를 대상으로 에어로빅 재즈댄스 강좌를 실시한다. (02)852-0525

△컴퓨터 특강=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위한 컴퓨터특강을 실시한다. 한달간 주 3회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02)571-2988

△장애아동 조기교육=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 3회 장애아동 조기교육 자람교실을 연다. 만 3세~5세의 발달장애아동 및 자폐아를 대상으로 능력향상 지도를 한다. (02)282-1100

△신심명 공개강의=울산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은 통도사 강주 지안스님을 강사로 매달 셋째주 화요일 오후 7시 〈신심명〉 공개강의를 실시한다. (052)272-1033

♣ 모집

△김장김치 서비스 후원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김장김치 서비스 후원에 동참할 이들을 기다린다. 가정에서 담근 김치 다섯포기를 보내주거나 5천원이상의 기금후원을 접수받는다. (02)806-1376

△하늘교실 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학습 보조프로그램 하늘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아동을 좋아하고 정기적으로 봉사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02)571-2988

△인도성순례 참가자=한국제이티에스는 인도 8대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99년 1월 17일~31일까지 14박 15일간의 일정으로 30일까지 접수 마감. (02)525-7264

△청각장애인 후원=연화복지학원은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사업에 도움을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02-5831

△남자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중증장애인의 목욕을 도와 줄 남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89-4215

△노인대학 수강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본동노인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건강체조, 댄스, 노래 등을 지도한다.

△자원봉사자=덕유종합사회복지관은 물리치료, 차량운전, 학습지도, 장애아적응훈련, 장애인공동작업장 등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 화촉

△동국대 공보실 변재덕씨가 22일 오후 2시 퇴계로4가 행복예식장 1층 축복실에서 유동원양과 화촉을 밝힌다.

책이 있는 시간 · 책이 있는 공간 · 시공사



수능세대를 위하여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 보자

절에 가면 착해져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면서 불상에 절은 왜 하죠? 참선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불교에 대한 열 개의 질문, 생각해 볼 이야기 여섯 가지. 그리고 고개마다 숨어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불교와 부처님과 친해집시다.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세요.



윤원철 외 지음 / 238쪽 / 값 7,000원

현전(現前)과 부재(不在)의 언저리에서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

삶도 세상도 그리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너조차도 無일 뿐이다. 내 온몸으로 감싸 안아도 그것들의 한 쪽 귀퉁이는 언제나 삐주룩이 나와 있고 그것들의 하중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늘 나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해서 벗어 던지거나 모른 체할 수도 없는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나는 오늘도 無 속으로 떠나는 것이다. 느릿느릿한 달팽이가 되어.



박재현 지음 / 268쪽 / 값 7,000원

시공 불교경전
1 유마경 장순용 풀어 옮김 / 값 12,000원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어 옮김 / 값 각권 12,000원
3 마하박가 1·2·3 최봉수 풀어 옮김 / 값 각권 14,000원

시공 불교 총서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E. H. 브루스터 편저 / 박태섭 옮김 / 값 6,000원
2 붓다의 엣길 피야닷시 지음 / 한경수 옮김 / 값 7,000원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령 옮김 / 값 6,000원
4 불교 철학사 D. J. 칼루파하나 지음 / 김종욱 옮김 / 값 8,500원
5 불교 심리학 루네 E. A. 오한슨 지음 / 박태섭 옮김 / 값 6,500원
6 유식 입문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 / 값 5,000원
7 간추린 인도불교사 에티엔 라모트 지음 / 정의도 옮김 / 값 5,000원

시공사의 불교책들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 / 값 18,000원 붓교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불교 입문서
미리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 값 18,000원 티베트 성지 미리래빠가 전한 아름다운 깨달음의 노래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 김호성 지음 / 값 6,500원 숨어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혜기 지음 / 값 5,000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려 뽑아서 재미있는 설화로 들려 주는 책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법 지음 / 값 6,000원 실을 꿰뚫은 1,700가지 생각한 생각들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슌류 지음 / 최세만 옮김 / 값 5,000원 어렵게만 느껴던 선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는 안내서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이영순 지음 / 값 7,000원 마음으로 떠나는 사찰 여행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제환 지음 / 값 6,500원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서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Y세대에 佛心심는 선재들



◇금정중학교 금정인터넷클럽회원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방과후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부산 금정중 '인터넷 클럽' 동아리

홈페이지 교리·설법 올려 신심 높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참된길 제시

통신을 통한 불교알리기에 한마음을 모은 청보리들이 있다. 부산 금정중학교의 금정인터넷클럽(KIC)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개설, 통신망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97년 8월 개설된 금정인터넷클럽(http://kumjong.ml.org/) 불교방은 진리의 길, 진리의 등불, 교법사 설법, 불교기초교리, 불교반소식 등의 메뉴가 개설됐다. 이 가운데 현익채 교법사의 설법은 정신적 방황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매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교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신문 '진리의 길'을 제작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입력해 전국 또래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는 학습자료실과 공개자료실, 금정중학교 소개 등이 개설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금정인터넷클럽은 1년전 유안드레아(98년 졸업)군이 통신을 이용, 학습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계획서를 건의했던 것이 홈페이지 개설의 첫걸음이 됐다.

금정인터넷클럽은 1년 사이 방문자수만도 2천7백여건이 될 만큼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도를 맡고 있는 김경만 선생님(수학교사)은 "처음 금정인터넷클럽을 지도할 때 청소년들의 성향에 맞는 불교적 내용을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 고맙다"라며 흐뭇해 했다. 지도교사와 회원들은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에서 입력한 불교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불교전체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 불교공부에도 열심이다.

금정인터넷클럽 회원들은 알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일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그래픽 디자인 개선, 아이콘 제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금정인터넷클럽은 학생들의 포교와 신심함양을 위해 사찰과 불교관련 사진수집에서부터 경전, 불교논문 등까지 입력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홍천 '강룡사'



◇강룡사가 생활불교실천도량으로 건립하고 있는 불교회관. 원내는 주지 월도스님.

도심불교 산실 '불교회관' 건립

강원도 홍천불교가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큰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생활불교실천도량을 표방한 강룡사(주지 월도) 불교회관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터닦기를 시작한 강룡사 불교회관 불사는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홍천읍 희망리에 건립되고 있는 불교회관은 총건평 9백여평에 4층규모로 99년 부처님오신날 완공될 계획이다. 1층에는 주차장과 식당, 2층에는 유치원이, 3층에는 종무소, 각종 신행단체사무실, 방사, 요사채가, 4층에는 예식장, 강의실, 기도실 등으로 사용될 대법당이 들어서게 된다.

공정 85%…내년 봄 개원
유치원·장수대학등 갖춰
1500가구 신도 자체 불사

강룡사는 불교회관이 완공되면 무엇보다 유아 및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어서 복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유아들을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과 시설을 갖춘 유치원을 설립하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와 장수대학(가칭)을 개설해 열린도량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월도스님은 "앞으로 불교회관 뒷편에 지하수를 개발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룡사는 이번 불사를 신도직영 방식으로 추진해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회관 기공식 이후 지금까지 전문적인 공사이외에는 신도들이 직접 참여 하고 있다. 4~5명이 1개조로 편성된 여신도들은 각기 쌀, 반찬류를 직접 가져와 공양을 제공하고, 남자신도들은 못빼기, 벽돌나르기 등의 잡역을 하고 있다. 강룡사 불교회관 불사는 1천5백여가구의 신도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신도직영식의 불사로 인해 강룡사는 건축불사이외도 예산절감, 불심함양과 신도화합이라는 부대효과도 얻고 있다.

스님은 "신도들의 불심을 일으키는데는 기도나 법회도 중요하지만 사찰운영에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신도들이 종무행정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사찰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충북 7개사찰 연쇄훼불

미덕사등 열흘새 '불상·탱화 손상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지역 사찰 7곳에 3일~11일 사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훼불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충주시 살미면 미덕사가 피해를 입었으며, 4일에는 충주시 이류면 해원정사가, 6일에는 충주시 안림동 백운사가 불상과 탱화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10일에는 지역적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찰 3곳에 연이어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오전9시 30분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해월사, 오후 1시 30분경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미륵사에서 훼불이 일어났으며, 이어 오후5시 30분경 제천시 한수면 손개리 덕주사에서는 훼불에 대비 ∝TV로 감시중이었으나 훼불범들이 공양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 또 11일 충주시 살미면 정심사에서는 훼불사건 소식에 탐방객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당에 들여보냈으나 신도를 가장한 남녀 2명이 30여분간 법당에 머물며 탱화를 칼로 훼손하고 사라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훼불범들이 법당의 불상 안면과 탱화를 면도칼로 훼손하는 등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훼불현장에서 봉고차를 탄 30대 남녀 4명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 등 정황증거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덕주사 주지 성일스님은 "이번 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이 아닌 계획적 훼불행위로 하루속히 범인을 검거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3시 지역내 11개 경찰서 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또다른 사찰의 피해여부 확인과 피해시찰에 경찰병력을 배치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용의자와 용의차량 추적에 나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법흥사는 8일 중흥불사 천일기도및 10만등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법흥사 중흥 천일기도 10만등 불사 입재식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 중흥불사 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불사 입재식이 8일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인허스님과 주지 현헤스님을 비롯 지역스님과 김태수 군수, 안재영 군의회의장, 최광석 경찰서장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 중흥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광주에 호남최초 불교병원

10층 규모…9개과 첨단진료 서비스

장례식장도 열어

최첨단시설을 갖춘 호남 최초의 불교병원이 광주시에 개원됐다.

광주불교병원은 7일 천운(향림사 조실) 지성(보성 옥천사주지) 영조(증심사주지) 광민(무각사주지) 해월(한마음선원 주지)스님을 비롯 김두원 광주·전남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층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료시술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부설 빛고을 장례식장도 문을 열어 진료에서 장례시설까지 갖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불교병원은 건평 1천7백74평에 지하1층 지상9층으로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와 부설 호스피스병동과 치매병동이 있다. 또 지하1층 지상8층 1천2백30평의 장례식장은 분향소 12실과 입관실 안치실 영결식장을 갖추고 있다.

준비위원장 회정스님(일본 고려사주지)은 "2천년까지 2백병상 규모의 메머드 종합병원으로 발전되도록 하겠다"며 "스님과 불자들에게 특별진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062)234-151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22일 점안 개원대법회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찬)은 22일 오전 10시 법당에서 개원및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목포시 상동 952-19번지 65평의 대지에 신축된 목포지원은 4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총건평 1백5평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종무소, 식당등이, 2층에는 법당이, 3층에는 요사채가 건립됐다.

목포지원은 개원법회에 이어 오후2시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울산 실업극복센터 개소

10개사찰 60개단체 참여
급식·취업상담·교육사업

실업극복지원센터(공동대표 덕진·정토사 주지)가 10일 울산에서 문을 열고 실업사태 극복에 나섰다.

실업극복지원센터에는 울산경불련, 불교여성회, 정토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등 11개 사찰과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YMCA 등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60여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실업극복센터는 울산시 태화동 명정신협 4층에 80평규모로 교육실, 상담실, 무료급식 등의 공간을 갖추고 개원됐다.

실업극복지원센터는 매일 점심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비롯 취업, 가정, 법률, 건강 등의 상담을 통해 실업자들의 재활을 돕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천미희 기자

혜춘스님 영결다비식 사부대중 1천명 참석

前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혜춘스님의 영결다비식이 10일 해인사 보현암과 연화대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비구니회 장으로 엄수됐다. 스님은 6일 오전 예불을 마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가 오고감이 한결같네 청풍은 만리로다(如是來 如是去, 來去一如 淸風萬里)"라는 임종게를 남긴후 입적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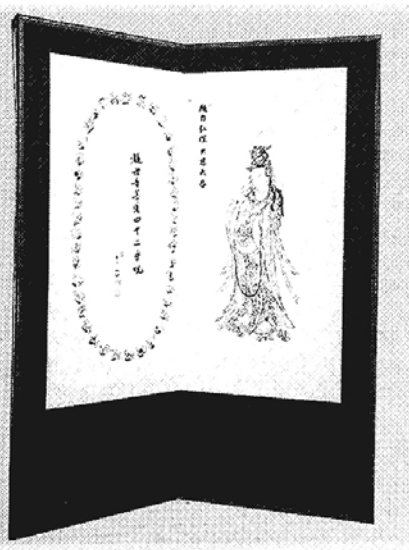


◇10일 열린 혜춘스님 다비식.

고침 197호 '우리절 불사' 기사중 부여 무량사 주지 지연스님을 의연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뜻밖의 재난! 액운을 미리막아 소원성취하는 호신진언가리개

소원성취 관음사십이수주



호신경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 제16탑



종합符(부)



관음부



가리개
· 관음사십이수주: 높이 5자 9치 넓이 2자 5치 한지 · 먹
· 묘법연화경: 높이 5자 5치 넓이 2자 5치 흑한지 금분
▶▶ 가격 ₩198,000

불국기획 02)737-0048 011)630-0108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흠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조계종사태 현장스케치

한숨-비판 속 몸싸움 이틀

○…승려대회를 마친 정화개혁회의측은 곧바로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 이 과정에서 총무원측에서 고용한 경호원들과 20분간 밀고 밀리는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월탄스님과 현호스님 등 정화개혁회의 집행부가 청사 문 앞에 이르러 두 손을 들어올리자 주위에 있던 불자들은 박수를 치는가 하면,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불자들도 있었다.

몸싸움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려는 선관위원들을 정화회의측에서 저지하며 또 몸싸움이 벌어져 조계사 경내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6시간 동안 종헌수호법회

○…이에 앞서 월주스님측 주최로 총무원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개혁종헌 수호 정진대법회'에는 전북불교회관 금산사 영화사 신도 3백여명이 참석,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승려대회가 끝날 때까지 찬불가와 트롯가요 등을 부르며 마라톤 집회를 가졌다.

확인들, 사태 불개입 천명

○…15개 강원 학인으로 구성된 전통강원연합은 10일 "종단의 정치에 학인의 신분으로 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발표, 이에따라 이번 사태에 중앙승가대 학인들을 제외하고는 승려대회 등에 참석치 않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사태 지켜보다 끝내 울음



○…총무원 청사 진입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청사 앞마당에는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가 널려 있었고, 서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 전광터를 방불케 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불자는 "불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냐"며 울음을 터트려 주위의 불자들을 숙연케 했다.

또다른 불자들은 조계사 대웅전을 가운데 두고 승려대회와 종헌종법 수호 결의법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계종이 쇠락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

취재진 60여명도 밤새워

○…정화개혁회의측 호법스님들은 총무원 청사 앞마당 3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20여명씩 모여 앉아 월주 총무원장측의 진입에 대비, 새벽 1시경 진입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한때 긴장된 분위기. 취재진 60여명도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밤을 꼬박 새웠다.

문닫힌 법당앞 수능기도



○…승려대회 관계로 조계사 대웅전이 일시 폐쇄된 가운데서도 자녀의 대입합격을 발원하는 한 어머니가 '폐쇄' 안내문이 붙여진 법당 밖에서 기도를 올려 뜨거운 모정불심을 보여줬다. 정화개혁회의측이 총무원 청사를 접수하고 격렬했던 시간이 지나가자 80여명의 불자들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기도에 열중해 밖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재가종무원들 대책반 구성

○…비상대책반을 구성한 재가종무원들은 12일 오전 "불법적으로 총무원 청사를 접거하고 있는 스님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정인 종무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화개혁회의는 이날 오전 종무원들의 출근을 명령하는 공고문을 조계사 일대에 게시.

경찰, 내부해결 기대

○…11일 오전 8시30분 김영화 종로경찰서장은 총무원측과 승려대회준비위측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7조를 근거로 물리적 충돌이나 기물파손의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또 12일 오전 10시 45분경 월주스님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종단 문제는 종단 내부에서 해결하길 바란다"며 응하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가족의 정 나누는 보살행

신부전증 덕기스님 속가누님 신장받아
美 LA대원사 신도 여동생에 장기기증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는 아들과 아내가 속출하는 등 천륜인 가족윤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기증한 불자들이 있어 따뜻한 미담이 되고 있다.

가족간의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한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에 사는 이광희(56) 보살과 미국 LA에 거주하는 상업인 경성현(51)씨 .

농촌에서 홀로 사는 이광희 보살은 지난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어릴 적에 출가한 남동생 덕기스님(시흥 법륭사 주지)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공양했다. 3년전 갑자기 찾아 온 신부전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던 스님에게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승보를 공양한 것. 특히 덕기스님과 그의 스승인 우룡(울산 학성선원 조실)스님, 사형인 덕민(前송광사 강주)스님과의 사형·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은 같은 문중끼리도 반목하고 있는 종단의 현실과 대비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우룡스님은 제자의 수술비를 마련해준 것은 물론 매달 초사흘 울산에서 올라와 덕기스님이 주지로 있는 법륭사 신도들을 위해 법문을, 덕민스님은 수시로 청년회 불자들을 위해 경전을 강의하고 있다. 또 덕기스님의 상좌인 현여스님은 불원천리 송광사 강원을 오가며 스승인 덕기스님을 간병했다.

이런 사실을 안 신도 3명도 선뜻 스님에게 장기기증을 희망했다. 하지만 유전자 및 혈액형이 맞지 않아 마지막으로 속가의 누나가 나서게 된 것.



◇생명의 일부를 가족에게 공양한 불자들. 왼쪽부터 이광희·경영현·경성현씨.

한편 동생을 살리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귀국한 경성현씨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3년6개월째 혈액투석 중이던 여동생 영현(39)씨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통해 생명을 나누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생업을 일시 접어둔 채 자신의 장기를 나눈 보살행이 쌀쌀한 날씨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그는 미국 LA 대원사 신도로서 故 서경보(前일붕선교종 종정)스님의 방미 때마다 집에서 모실 정도로 불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장기기증을 주선한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종단내분으로 불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가족을 살린 것은 불교의 자비정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회향돼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복지사업 '차질'

내분여파 복지센터·복지관 수탁 실패

조계종이 최근 잇달은 종권 분쟁으로 불교사회복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단 내분의 빠른 종식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최근 방송·신문사의 '봉은사 주지 쟁탈전' 보도로 서울 강남구 가정복지센타 수탁에 실패한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종단내분의 보도 여파로 서울시 중곡동 중곡복지관 수탁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봉은사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불교계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나빠져 구청 가정복지센타의 위탁운영자로 조계종을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재단 소속의 한 복지관장은 "불교계의 이미지 실추가 불교사회복지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종단이 안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 불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공익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종단의 불안정은 불교사회복지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교계복지관 김장김치 서비스

저소득가정 월동준비 도와

어느 해보다 몸과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교계 복지관 및 사회봉사 단체들이 대대적인 김장김치 봉사에 나서고 있다.

청담·구로·중리·옥수·문경 복지관 등 교계 복지관들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 가구 등 불우한 이웃에 김장김치를 나눠줄 계획이다. 김장김치를 보시할 대상 가구도 예년보다 늘려 잡고 있다.

서울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달 9~11일 총 1백50세대에 '제5회 우리이웃 김장담궈드리기' 행사를, 문경 모전사회복지관은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7백50세대에 약 5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보시하는 '김장 5포기 더 담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본동사회복지관 등 대부분의 교계 복지관이 김장김치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16, 17일 민락동 귀락마을 배추밭 현장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봉사를 실시, 배추 5백 포기, 무 2백여개를 나눠주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4년전과 똑같은 상황

이 경 숙 〈취재2부 부장〉

11일 오후 4시 15분. 조계사 대웅전 뒤에서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 청사 진입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기자를 비롯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이 98년인지 94년인지 어리둥절했다. 4년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쇠창살을 뜯어내고 건물 2층으로 사다리가 놓여졌다. 건물 안에서는 분말소화기가 뿌려지고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접한 대부분 일반인들의 반응은 "또 스님들이 왜 저래?"이고 불자들의 첫마디는 "이거 불교신도 엄청 떨어지겠군"이란 우려다. 해방 후 50년 돌교협대사를 얼룩지게 한 것이 바로 종권분규로 인한 폭력사태가 아니던가.

이번 조계종 사태로 본 신문사는 물론 방송국에, PC 통신으로 수많은 항의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들 지적한다. "탐진치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한 스님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왠 종권 다툼이냐"고.

싸움이 벌어진 11일 어떤 사람이 말했다. "아무래도 저 총무원 건물이 문제야. 저것 때문에 그동안 종단에 그렇게 싸움이 많이 났다는데 빨리 부셔버려야 해." 예로부터 불교계에는 총무원 건물이 조계사대웅전보다 높게 지어져 종단에 분규가 계속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건물탓을 할 것이며 누구탓을 할 것인가. 의식의 문제인 것이고 부처님제자로서의 본분과 처신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사태는 극히 일부의 일이다. 전국의 선방과 토굴에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자며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다.

불교역사의 시계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사욕에 따라 시계침을 뒤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도 없는 법이다. 상처받은 천만 불심들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종단의 원로, 중진 등 지도자스님들이 이번 사태의 수습과 대책에 빨리 나서기를 바란다.

(gslee@buddhapia.com)

뉴스 & 뉴스

전국법사연합회 간담회

전국법사연합회는 11일 송현클럽에서 간담회를 열고, 99년 6월 이전에 '21세기 불교중흥과 법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국법사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법사대회를 99년말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대·경 생명나눔회 2돌

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심업)는 7일 대구 뷰광사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자광(문경 김용사 주지)스님의 축하법어, 등화사 주지 성덕스님의 치사,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북, 고구려 불상·불감 발굴

북한 중앙통신은 최근 평양에서 53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시대의 불상과 불감(佛龕)을 발굴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발굴된 유물들은 기단과 당실, 불상인데 당실의 뒷벽에는 불상들이 고구려의 '낙랑동사'라는 절에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5행 47자의 옛 글이 새겨져 있어 제작년도를 539년으로 보고 있다고 중앙통신에서는 밝히고 있다.

삼존불과 당실은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당실은 3단 형태로 난간이 둘러져 있고 맨 윗단 바닥에 불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절 모양의 당실은 전형적인 고구려 건축양식인 우진각지붕 모양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조불련 임원진 일제히 개명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임원진들이 일제히 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7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산스님(평불협 미주본부 고문)과 지현정사(평불협 상임부회장)에 의해 확인됐다.

임원진 개명은 대외적으로 조불련 중앙우원회 임원진 개편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는 전략적인 이유에서 단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명한 조불련 임원진은 위원장 박태호→박태화, 부위원장 환병대→황병준, 서기장 심상련→심상진, 남쪽담당 지도원 류인수→유인명 등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박노해씨 초청 특별법회

정토회(회장 법륜)는 25일 오후 7시30분 서울 홍제동 정토법당(379-1650)에서 박노해 시인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한다.박씨는 이날 '미래문명·환경·수행'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초청강연은 박씨가 경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때 정토회에서 '정토'지와 불서를 보내준 데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마련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법형제, 자매님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름을 信 합니다.
IMF의 그늘을 헤치고, 21세기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후원하여 주십시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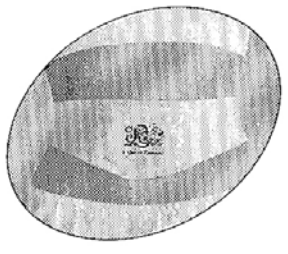
법형제 心 勇 회원
法 慧 元永一 합장

■ 연락처 : 02)942-6950(자택) / 02)778-7062(사무실)
■ 호 출 : 012)1873-5160 ■ FAX : 02)771-7334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놀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입 문

상을 지우는 불교 다가가기



■진연스님의 불교이야기 /진연스님 지음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책을 보아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불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렵다는 마음의 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진연스님(현안 성불사 주지)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경계하며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쉬운 용어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개괄하고 있어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그만인 입문서다. 부처님 일생과 계율, 업, 윤회, 자비, 보살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일상에서의 참선과 화두, 마음 닦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혜음, 8,500원 (02)563-0222

아함경을 통한 불교입문, 방향제시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반영규 지음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기억에 의해 정리·집성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삶과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함경〉으로 불교를 배우는 가능에서부터 불교의 역사와 기본사상, 붓다가 본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수행 등을 주제로 엮어져 있다.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준다.

솔바람 7,000원/(02)720-0824

에 세 이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오는 세상 편안하신가 /묘심화법사 지음

희망보다는 좌절의 쓴 맛을 곱씹는 시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증표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묘심화법사는 그 증표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서울에 '영혼 4차원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 묘심화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마음'을 주제로 인간과 정신의 세계를 조명한 부분도 흥미롭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을 한탄치 말라.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되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다.

누림, 7,500원 (02)323-2100

푸른 납자의 '없음' 공부



■툼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박재현 지음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쓴 산문집이다. 열한 개의 짧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보고 불교를 생각하고 해체철학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글들은 생활과 불교를 잘도 오간다. 그래서 문학이 느껴지고 불교가 느껴진다.

불교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을 반성하고, 이 땅에서 불교가 어떠해야 할지를 반성한다. 젊은 혈기로 치부하기엔 담담하면서도 넘칠한 눈초리가 매섭다.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없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명료하고 해곳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無와 空을, 불교를 말한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불교이해의 자료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법륜스님 지음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인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연기법을 세계관으로 삼는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무아·무소유·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앎과 수행의 통일을 강조한다.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에서 법문한 내용을 엮은 이 책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참된 자기실현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정토행자와 수행과 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인간에 대한 스님의 간절한 염원이 묻어난다.

정토출판, 5,000원 (02)3471-5100

기 타

북한문화유적 답사기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지음

자기 고향인 시리읜 성불사에 꼭 가 보리며 고향 사람과 자랑을 늘어놓던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 이 책에는 북한의 문화유적과 사람들의 표정을 따뜻하게 담아 내려간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있다.

고구려의 옛모습을 다시 복원해 놓은 광양의 장릉사, 묘향산의 보현사와 8각13층석탑 그리고 안심사 상원암, 서산대사의 금강굴 등 불교문화유적과 평양 대성산성, 묘향산,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강서의 고구려 벽화무덤 등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도 저자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만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문화유적을 알기에는 그만인 책.

중앙M&B, 9,000원 (02)751-911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문답속에 숨은 바른 삶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야만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터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31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그 철저한 무색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뚝차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떠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네 삶에 대한 구짖음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곽만연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들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엮음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청정국토본부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와 같은 책.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를 비롯해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성구(聖句), 불교의 자연관, 불교사상과 환경보전, 사찰환경보전,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환경교육, 불교의 생명사상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법정, 법륜스님을 비롯 목정배 오형근 박선영 연기영 전재성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석했다.

아름다운 세상, 17,000원 (02)278-6956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 가르침



■통찰의 체험/현음스님·이금주 공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지도가 골드스타인(J. Goldstein)이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 수행에 따르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수행을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하되 여러가지 수행법을 혼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주의력을 기울이되 매일 좌선 수행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규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남' '우리'니 '그들'이니 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공의 일체가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려운 불교용어는 수행에 관한 다른 책들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이 책의 매력이 있다.

한길, 5,000원 (0346)574-5585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까사끼 지끼도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출적한 해박한 지식을총동원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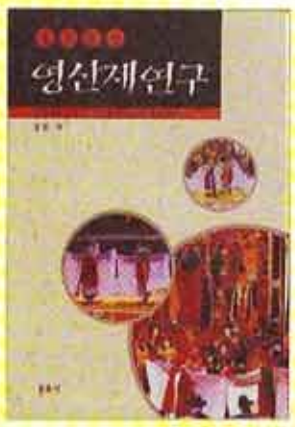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점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파주의적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흥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영산재 이해의 교과서



■영산재 연구/법현스님 지음

불교의 의례의식인 영산재의 진행은 범패(梵唄)로 불리운다. 불교음악인 범패는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써, 장단과 화성이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그러나 배움에 어려움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이가 줄어들어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고 그 맥을 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산재의 구성과 범패의 기능, 작법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영산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방송과 불교음악의 세계 두 곳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알차다.

불교음악을 공부하는 학인스님들뿐만 아니라 영산재에 관심있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길잡이 충분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이다.

운주사 15,000원 (02)720-9372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단말기 사양

※ 각 단말기 공히 신기종이며 통화감도 으뜸

모델명	G-2(한화)	4300(삼성)	4200(삼성)	4310(삼성)
크기	125×44×26㎜ (H×W×D)	116×45×23㎜	116×45×23㎜	116×45×23㎜
무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105g	105g	105g
통화시간	배터리 S 90분 배터리 M 168분 배터리 L 300분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420분 연속통화
대기시간	배터리 S 26분 배터리 M 48분 배터리 L 87분	120시간	120시간	120시간
사은가격	60,000	115,000	120,000	120,000

가입비 포함

제품모델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016 PCS 최신기종·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